

에 1조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규모
 12.29 한·중: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 합의...승선 조사 방해 시설
 물 설치 시 즉각 처벌 등, 여(與) 인명
 진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새누리당,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12.31 '박근혜 정권 퇴진' 10차 촛불집
 회...전국 110만여 명 참가,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제막

세계연표 (1901~2016)

1901년

2.1 청·러시아: 만주에 관한 밀약 체결(열국의 항의로 4.12 철회)
 9.6 매킨리 미국 대통령: 무정부주의
 자에게 피격(14일 사망)
 9.7 義和團사건(북청사변) 강화의정
 서 조인(북청요지 점령, 4억5천만 냥
 배상)
 12.10 노벨상 첫 시상

1902년

1.30 英·日공수동맹협약 조인
 1.31 러시아: 시베리아철도 완공
 4.8 러시아·청국: 만주환부조약 조인
 5.30 보아안: 영국에 항복(남아전쟁 종결)
 7.28 미국: 프랑스 파나마운하회사 권리
 를 4천만 달러에 매수(1904.5.4 기공)

1903년

4.21 러시아군: 龍岩浦 강점, 7월 조차
 를 요청
 6.10 세르비아 혁명파: 국왕·왕비 살해
 8.12 러시아: 극동총독부 신설
 11.18 미국: 파나마 운하지대 영구조차
 12.17 미국 라이트 형제: 최초로 비행에
 성공

1904년

1.6 러시아: 만주의 지분확립 재차 선언
 1.23 러시아·일본: 상호 중립을 선언
 2.6 러시아·일본: 국교 단절, 10일 선
 전 포고
 9.7 영국·청: 라사조약 체결

1905년

1.22 페트로그라드노동자: 冬宮으로 시
 위행진(피의 일요일, 1차 러시아혁명
 발단)
 7.29 美·日: 비밀조약 조인(미국의 對
 필리핀권익과 일본의 對한국권익을
 상호 승인)
 8.10 포츠마스 강화회의 개최(9월 5일
 러시아·일본 평화조약 조인)
 8.12 英·日: 동맹확장조약 조인
 10.16 노르웨이 의회: 스웨덴 분리법 의결
 12.22 淸·日: 만주이권에 관한 조약 조인

1906년

4.27 英·淸: 西藏조약 조인
 11.26 일본: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설립

1907년

1.25 러시아: 北滿철병 선언
 7.30 제1차 러시아·일 협약 조인
 8.31 영국·러시아협정 조인(아프가니
 스탄·페르시아지역 세력권 분할)
 9.26 뉴질랜드: 자치제 선언

1908년

2.1 포르투갈 왕·왕세자 피살
 10.7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및 헤르체
 고비나 병합
 11.15 벨기에: 콩고 병합
 2.1 上海 만국아편회의 개최
 4.6 미국 피어러: 북극탐험에 성공
 4.13 터키 황제: 청년당원 학살(27일 봉
 기, 황제 폐위)
 9.4 淸·日: 閩島이권에 관한 협약 조인

1910년

7.4 제2차 러시아·일본 협약 조인
 11.20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 사망

1911년

7.13 제3차 英·日동맹협약 조인
 9.29 이탈리아·터키전쟁 발발
 10.10 辛亥革命(淸國 武昌) 발발(10.13 독
 립을 선언)
 11.30 외몽골: 독립을 선언
 12.14 노르웨이 아문젠: 남극 도달
 12.16 淸 혁명군: 남경에 중화민국 임시
 정부 수립(12.29 대통령에 孫文 당선)

1912년

1.1 볼셰비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결성
 2.12 淸 宣統帝 퇴위(袁世凱, 임시공화
 정부 조직)
 10.17 제1차 발칸전쟁 발발

1913년

3.19 그리스 황제 조지 1세 피살
 6.29 제2차 발칸전쟁 발발(8.6 부쿠레슈
 티협약 성립)
 7.12 중국에 제2혁명(西北전란): 7.24 남
 군 패퇴
 10.6 袁世凱: 중화민국 제1기 대통령에
 당선
 11.5 러시아·중국: 외몽골 자치제
 선언

1914년

6.28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사라예보
 에서 세르비아인에 피살(제1차 세계대
 전 발발원인)
 7.28 제1차 세계대전 발발(오스트리아: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
 8.1 독일: 러시아에 선전 포고; 3일 프
 랑스에 선전 포고
 8.4 영국: 독일에 선전 포고
 8.4 미국: 국외중립 선언
 8.12 영국: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
 8.15 파나마운하 개통
 8.23 일본: 독일에 선전 포고
 8.25 오스트리아: 일본에 선전 포고
 11.12 터키: 영국·프랑스·러시아에 선
 전 포고
 12.17 이집트: 영국보호령에 편입

1915년

5.23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
 5.31 독일 비행선: 런던 공습
 12.25 중국에 제3혁명(雲南독립운동)

1916년

1.29 독일 비행선: 파리 공습
 3.9 독일: 포르투갈에 선전 포고
 5.31 영국·독일: 北海대해전 교전
 6.23 아라비아: 독립을 선언
 7.3 제4차 러시아·일본 협약 조인
 8.27 이탈리아: 독일에 선전 포고
 11.5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 발표
 (1906년 특수상대성이론 발표)

1917년

- 2.1 독일: 잠수함에 의한 선박무제한 격침 선언
- 3.12 러시아 2월혁명(15일 황제 퇴위, 로마노프왕조 단절, 케렌스키, 임시정부 조직)
- 3.14 중국: 독일에 국교단절 통고
- 4.6 미국: 독일에 선전 포고
- 4.30 奉天軍閥의 統領 張作霖: 독립을 선언하고 중앙정부와 관계 단절
- 9.10 孫文: 廣東에서 군정부 조직(남북 정부 대립 시작)
- 11.7 러시아 10월혁명(소비에트정부 수립, 수상 레닌)
- 12.15 러시아: 독일 · 오스트리아 · 터키와 휴전조약 체결

1918년

- 1.8 윌슨 미국대통령: 對독일평화강령 발표
- 3.3 소련: 對獨단독강화조약 체결
- 7.26 러시아 황제 일가 피살
- 8.2 일본: 시베리아 출병 선언
- 11.9 독일 11월혁명(카이저 황제 퇴위)
- 11.11 연합국: 對독일휴전조약 조인(세계 대전 종결)
- 11.13 오스트리아: 帝政을 해체(카를 황제 퇴위)

1919년

- 1.18 베르사유 강화회의 개최
- 3.23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스트당 결성
- 5.4 중국 5·4운동: 山東문제로 北京서 반일운동 발발, 각지에 파급
- 6.28 베르사유강화조약 조인(국제연맹 규약 및 국제노동협약 체결)
- 8.11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정
- 9.10 對오스트리아 평화조약 성립
- 10.29 제1회 국제노동회의(워싱턴, ~ 11.29): 8시간 노동제 가결

1920년

- 1.16 국제연맹: 제1회 이사회 개최(파리)
- 8.10 연합국: 對터키 평화조약 체결
- 11.15 제1회 국제연맹총회 개최(제네바)

1921년

- 2.21 對독일배상회의 개최(런던, ~3.14)
- 5.1 중국 광동정부 수립(대통령에 孫文 취임)

- 7.1 중국 공산당 결성
- 11.12 워싱턴 군축회의 개최(1922.2.6 군축조약 조인)

1922년

- 5.14 중국 張作霖: 만주 東三省 독립을 선언
- 10.28 파시스트: 로마 진군(10.30 무솔리니 내각 성립)
- 12.30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 성립

1923년

- 11.8 히틀러의 뮌헨폭동 실패

1924년

- 1.21 레닌 사망
- 2.3 윌슨 前미국 대통령 사망
- 7.1 미국: 排日 이민법 실시

1925년

- 1.15 트로츠키 실각→스탈린 세력 확립
- 1. 무솔리니: 독재 선언
- 3.12 孫文 사망
- 11.22 만주 郭松齡반란 발생
- 12.1 로칼로 유럽안전보장조약 조인

1926년

- 3.7 蔣介石: 국민혁명군 총사령에 취임(9일 북벌 시작)

1927년

- 3.21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上海 점령
- 3.24 南京 점령
- 4.12 蔣介石: 上海서 반공 쿠데타
- 5.21 미국 린드버그 대위: 대서양 무착륙 횡단비행에 성공
- 5.28 일본: 山東에 출병(1928.4.19 2차 출병; 5.8 3차 출병)
- 6.18 張作霖: 北京서 군정부 조직
- 6.20 美 · 英 · 日: 제네바 해군군축회의 개최(7.28 결렬)
- 10.17 제네바 국제무역회의 개최(11.8 국제무역장벽철폐조약 조인)
- 12.12 중국 공산당: 廣東소비에트정권 수립(일본 육전대 상륙으로 3일 만에 와해)

1928년

- 3. 蔣介石: 2차 북벌 선언
- 5.3 濟南사건(蔣介石의 북벌군; 일본 군과 충돌)

- 6.3 張作霖: 北平 철거(6.4 일본 관동군의 열차폭파로 폭사)
- 6.9 北伐軍 北平 입성(북벌 완료)
- 8.27 파리 不戰조약 조인
- 10.8 蔣介石: 국민정부 주석에 취임

1929년

- 1.7 일본 육전대: 중국 상륙(배일파업 · 일화봉쇄운동 잇따라)
- 7.17 소련: 중국과 단교(7.14 국경 봉쇄; 1932.12.12 국교 재개)
- 10.24 세계경제공황 시작(뉴욕 주가 폭락)

1930년

- 1.21 美 · 英 · 이탈리아 · 프랑스 · 日: 런던 해군군축회의 개최(4.22 해군군축조약 조인)
- 4.22 국제결제은행 설립
- 7.26 중공: 長沙소비에트정부 수립(8월 와해)

1931년

- 4.14 스페인 황제 퇴위(제2공화정부 성립)
- 9.20 영국: 금본위제 정지
- 10.18 발명왕 에디슨 사망
- 10.18 上海 배일운동 폭동화(일본 육전대 상륙)
- 10.24 국제연맹 이사회: 기한부 만주철병권고안 가결(일본측은 이를 거부)
- 11.7 중국소비에트임시정부 수립(瑞金, 주석에 毛澤東)

1932년

- 1.28 上海사면 발생(중국 각지에서 排日운동 격화)
- 3.1 만주국: 독립 선언(前淸國宣統廢帝 溥儀가 執政)
- 7.21 독일 총선거(나치당 승리)

1933년

- 1.30 독일 히틀러 내각 성립
- 2.24 국제연맹: 中 · 日분쟁에 관한 對日권고안 채택(일본, 3.27 탈퇴)
- 3.4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 취임(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단행)
- 4.19 미국에 공황(금수출 금지)
- 6.7 국제연맹: 만주국 불승인 결의안 채택
- 10.24 독일: 국제연맹 탈퇴
- 11.17 미국: 소련 승인(국교 회복)

1934년

- 3.1 만주국: 제정을 실시(황제에 溥儀)
- 6.14 히틀러·무솔리니 회담(베니스)
- 8.19 히틀러: 독일 총통에 취임
- 9.18 소련: 국제연맹 가입
- 10.1 중국 공산군: 長征 시작(1935.10 종료)
- 12.29 일본: 워싱턴 해군군축조약 폐기 (국제적으로 고립)

1935년

- 1.13 자르지방: 인민투표로 독일에 귀속
- 3.16 독일: 베르사유조약 폐기 선언(재 군비 단행)
- 10.3 이탈리아: 에티오피아에 선전 포고
- 12.9 런던 군축회의 개최(1936.3.25 미·영·프랑스 군축협정 성립)

1936년

- 1.15 일본: 런던 군축협의회 탈퇴(무제한 전함경쟁 시작)
- 3.7 독일: 로칼로조약 폐기, 라인무장 지대에 진주
- 5.12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병합 선언
- 7.11 독일·오스트리아 군사협정 성립
- 7.17 스페인혁명(8월 프랑코 정권 성립)
- 12.12 張學良: 내전정지·항일투쟁 요구 차 蔣介石을 감금(西安사건: 12.26 타협성립으로 蔣介石 남경 귀환)

1937년

- 4.1 버마: 인도에서 분리
- 7.7 中·日전쟁 발발(蘆溝橋서 양군 충돌: 8.15 전면전에 돌입)
- 8.21 蘇·中: 불가침조약 체결(8.29 발표)
- 8.22 중국 공산군 제8로군 편성
- 9.25 중국 國·共합작 성립
- 11.6 독일·이탈리아·일본 방공협정(로마) 조인
- 12.2 스페인 새 정부 성립(총통: 프랑코)
- 12.11 이탈리아: 국제연맹 탈퇴
- 12.13 일본군: 남경 점령

1938년

- 3.18 히틀러: 독일·오스트리아 합방 선언
- 4.28 영국·프랑스 회담(런던, 사실상의 군사동맹 성립)
- 5.10 일본: 국가총동원법 공포(7.7 정신 총동원조선연맹 발족)

- 7.12 蘇·日 張鼓峰서 충돌(8.10 정전협정 체결)
- 9.29 영·프랑스·독·이탈리아 4국회의(뮌헨): 주데텐지방의 독일양도를 결정
- 10.1 독일군: 스웨덴에 진주
- 11.3 일본 정부: '대동아신질서건설' 성명

1939년

- 4.7 이탈리아:알바니아 점령
- 5.22 독일·이탈리아: 군사동맹 체결
- 8.23 독일·소련: 불가침조약 조인(모스크바)
- 9.1 독일군: 폴란드에 진주
- 9.3 제2차 유럽대전 발발(영국·프랑스·호주·이집트: 對독일 선전 포고)
- 9.17 소련: 폴란드 진격 개시(9.18 독·소: 폴란드 분할협정 성립)
- 11.30 소련: 핀란드와 개전(1940.3.12 화평협정 성립)
- 12.14 국제연맹: 소련을 제명

1940년

- 4.9 독일군: 노르웨이·덴마크 침입
- 5.10 독일군: 벨기에(5.28 항복)·네덜란드(5.15 항복)·룩셈부르크 침입
- 5.11 영국 처칠 내각 성립
- 5.17 독일군: 마지노선 돌파
- 6.10 이탈리아: 영국·프랑스에 선전 포고
- 6.14 독일군: 파리 입성
- 6. 드골: 자유프랑스정부 수립
- 7.21 소련: 발트3국 병합
- 8.20 트로츠키: 멕시코서 피살
- 8. 독일 공군: 영국 본토 공습
- 9.22 일본군: 북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진격
- 9.27 독일·이탈리아·일본 3국동맹 조인

1941년

- 3.1 독일군: 불가리아에 진주
- 4.6 독일군: 그리스·유고에 진입
- 4.13 소련·일본: 중립조약 성립
- 5.6 스탈린: 소련 수상에 취임
- 6.22 독일·소련 전쟁 발발
- 7.2 중국: 독일·이탈리아에 국교단절 통고
- 7.12 영국·소련 군사협정 체결
- 7.25 미·영: 일본해외자산 동결령 발표
- 7.28 일본군: 남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상륙

- 8.2 미국: 對소련경제원조협정 성립
- 8.14 대서양헌장 발표(美·英: 대서양 정상회담에서 전쟁목적·전후세계건설·나치스 타도 등 8개 항목 공동선언)
- 11.15 독일군: 모스크바 공격 시작
- 12.8 태평양전쟁 발발(일본군: 진주만 기습, 미·영에 선전 포고)
- 12.23 처칠·루스벨트: 전쟁지도자회의 개최(워싱턴)
- 12.25 일본군: 홍콩 점령
- 12.26 영국·중국: 군사동맹 체결

1942년

- 1.2 일본군: 마닐라 점령
- 1.2 연합국 26개국: 공동전쟁강행 선언
- 3.17 맥아더 장군: 필리핀 탈출(4.19 서남태평양 연합사령관에 취임)
- 6.5 일본 해군: 미드웨이 해전서 패퇴
- 6.11 미·소: 상호원조협정 조인
- 6.20 루스벨트·처칠: 제2차 전쟁지도자회담 개최(워싱턴)
- 7.17 스탈린그라드 공방전 시작(9.15 독일군 돌입: 11.20 소련군 반격 시작)
- 8.7 미군: 과달카날도에 상륙(1943.2.9 일본군 패퇴)
- 8.9 인도 정청: 국민회의파 탄압, 간디·네루 투옥
- 10.28 미·영·소·중: 아시아작전회의 개최(重慶)

1943년

- 1.14 루스벨트·처칠: 제3차 전쟁지도자회의 개최(카사블랑카)
- 5.12 북아프리카전선의 독일·이탈리아군 항복
- 7.25 무솔리니 실각(7.29 바드리오 정권 성립)
- 8.1 루스벨트·처칠: 퀘베회의에서 對일본통합전략 협의
- 9.3 미·영군: 이탈리아반도 상륙(9.9 이탈리아: 무조건 항복)
- 11.27 카이로선언 발표(對일본통일반격전선 선언, 조선독립 공약)
- 11.28 미·영·소: 정상회담 개최(테헤란)
- 12.3 테헤란선언 발표(유럽제2전선 결성, 연합국의 전후평화공존 선언)

1944년

- 1.1 독일군: 우크라이나서 철수(동부전선 전면철수)
- 6.4 연합군: 로마 점령

- 6.6 연합군: 노르망디에 상륙, 제2대전선 결성(6.15 남부프랑스에 상륙)
- 8.29 연합군: 파리 탈환
- 10.9 미·영·소·중: 유엔안 발표
- 11.24 미국 공군: 東京공습 시작
- 12.28 헝가리: 對독일 선전 포고

1945년

- 2.4 미·영·소 알타회담(소련의 對일 본참전 등 결정)
- 3.22 아랍연맹조약 조인
- 4.12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사망(트루먼 부통령 승계)
- 5.7 독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 6.5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베를린협정 조인(독일분할점령)
- 6.25 유엔헌장 조인
- 7.16 미국: 원자폭탄실험 성공
- 7.26 미·영·중: 포츠담선언문 발표
- 8.6 미국: 일본 廣島에, 8.9 長崎에 원자폭탄 투하
- 8.8 소련: 對일본선전 포고
- 8.15 일본: 무조건항복(제2차 세계대전 종료)
- 9.2 맥아더 원수: 연합군 최고사령부 설치(東京)
- 9.25 세계노동조합연맹 발족
- 10.24 유엔 발족
- 11.9 중국 國·共내전 개시(1946.1.10 휴전협정 성립, 7.12 전면내전 재개, 1949.4.1 國·共평화회담 개시, 4.20 결렬)
- 11.20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개정
- 12.27 국제통화기금(IMF) 발족
- 12.27 미·영·소 외무장관회의: 한반도 신탁통치 합의(모스크바선언)

1946년

- 1.10 제1차 유엔총회 개막(런던)
- 2.20 소련: 사할린·알류산 영유권 선언
- 3.5 처칠: 미국서 '철의 장막' 연설
- 4.16 국제연맹 해산
- 5.3 극동국제군사재판 개정(東京)
- 5.22 소련군: 만주 철수
- 6.2 이탈리아: 왕제 폐지
- 7.1 미국: 비키니에서 원자폭탄 실험
- 7.29 파리강화회의 개막
- 8.24 인도 네루: 국민회의파 단독의 중간정부 조직
- 9.27 제1회 국제통화기금총회 개막
- 11.1 자유중국: 타이완 접수 개시
- 11.19 제1회 유네스코총회 개막

- 12.14 유엔: 군축헌장 채택(뉴욕)
- 12.20 프랑스·베트남 인도차이나 전쟁 개시

1947년

- 1.1 자유중국: 새 헌법 공포
- 1.16 프랑스 제4공화국 발족
- 2.10 파리 평화조약 조인
- 3.10 미·영·프랑스·소: 외무장관회의(모스크바)서 미·소 대립 표면화
- 3.12 트루먼독트린 발표(對터키·그리스 원조선언)
- 3.18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설치
- 6.5 마셜 미국 국무장관: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 발표
- 8.15 인도·파키스탄 분리독립 선언
- 9.2 美洲공동방위조약 조인
- 10.5 유럽공산당정보국(코민포름) 설치
- 10.30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조인
- 11.29 유엔총회: 팔레스타인분할안 채택

1948년

- 1.30 인도: 간디 피살
- 2.25 체코 공산정부 수립(2월혁명)
- 3.17 영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브뤼셀동맹조약 조인
- 3.24 국제무역협정(아비나헌장) 조인
- 4.1 소련: 베를린봉쇄 개시(5.12 해제)
- 4.6 소련: 핀란드동맹조약 조인
- 4.16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조인
- 4.30 美洲2개국: 보고타헌장 조인(미주기구 결성)
- 5.14 이스라엘 수립(아랍연맹: 이스라엘에 선전 포고)
- 8.19 중공 華北民主聯合政府 수립
- 10.25 西歐연합 5국회의: 북대서양조약(NATO) 초안 작성(1949.4.4 조인)
- 12.10 유엔총회: 세계인권선언 채택

1949년

- 1.20 트루먼 미국 대통령: 후진지역개발계획 발표
- 1.25 소련·동구 5국: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창설
- 1.31 중공군: 北京 입성
- 2.14 이집트·이스라엘: 휴전협정 조인
- 7.19 프랑스·라오스: 독립협정 조인
- 9.7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수립
- 9.24 소련: 원자폭탄 보유 공표
- 10.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주석 毛澤東)

- 10.7 독일인민공화국(동독) 수립
- 12.7 자유중국: 타이완(臺北)으로 천도

1950년

- 1.27 미국: 나토가맹국과 상호방위원조협정(MSA) 체결
- 1.31 트루먼 미국 대통령: 수소폭탄 제조 지시
- 2.14 중공·소련: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조인
- 7.26 한국전 지원 위해 유엔군(16개국) 편성(10.25 중공군: 한국전 개입)
- 9.19 유럽경제동맹(EPU)협정 조인
- 12.16 트루먼 미국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1951년

- 3.15 이란 국민회의 석유국유화법안 가결
- 4.2 나토(NATO)군사령부 발족
- 4.18 서구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 조인
- 7.1 동남아 英聯邦제국개발계획(콜롬보계획) 발족
- 9.1 ANZUS조약(호주·뉴질랜드·미국의 태평양공동방위체) 조인
- 10.17 영국·이집트: 수에즈서 충돌(1952. 1.4 영국군: 수에즈운하 봉쇄; 1952.1.19 이집트군과 충돌; 1956.6.13 수에즈운하철수 완료)
- 10.26 영국 총선서 보수당 승리(11.3. 처칠 내각 발족)

1952년

- 2.1 일본 자유대 발족
- 2.6 영국 조지 6세 사망(엘리자베스 2세 즉위)
- 2.24 미국·서구 6국: 對공산국수출금지협정 조인
- 2.26 영국: 원자폭탄 보유 공표
- 4.28 美·日 안전보장조약 발효
- 5.25 미국·영국·프랑스: 서독과 분협정 조인(점령 종료)
- 5.27 서구 6개국: 유럽방위공동체(EDC)조약 조인
- 5.31 동독: 동·서베를린경계선 봉쇄
- 10.2 아·태지역평화회의(北京)
- 10.3 영국: 제1차 원자폭탄 실험
- 11.1 미국: 첫 수소폭탄 실험

1953년

- 1.14 유고 국민회의: 초대 대통령에 티

- 토 선출
- 2.16 네루 인도 총리: 제3지역결속 제창
- 3.5 스탈린 사망
- 4.10 하마술드: 유엔사무총장에 취임
- 5.29 영국 등반대: 에베레스트 첫 등정 성공
- 6.16 동독 노동자데모: 反蘇폭동화
- 8.8 소련: 수소폭탄 보유 공표
- 9.12 소련: 공산당 제1서기에 흐루시초프 선임
- 10.22 프랑스 · 라오스 우호연합협정 조인(라오스의 실질적 독립)

1954년

- 1.7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오키나와군사기지 무기한보유 표명
- 3.1 미국: 마셜군도 비키니서 수소폭탄실험 개시
- 4.26 제네바 극동평화회의 개최
- 4.28 콜롬보그룹 발족
- 5.7 월맹군: 디엔 비엔 푸 점령
- 6.28 중공 · 인도: 평화5원칙 확인
- 7.20 월남휴전 위한 제네바협정 조인
- 8.9 그리스 · 터키 · 유고: 발칸군사동맹 조인
- 9.3 중공군: 金門 · 馬祖島 포격
- 9.8 동남아조약기구(SEATO) 창설

1955년

- 2.8 말렌코프 소련 총리 사임(후임에 불가신)
- 3.1 영국: 수소폭탄제조 선언
- 3.16 프랑스: 수소폭탄 제조 선언
- 4.18 아시아 · 아프리카회의 개최(반동 평화10원칙 발표)
- 5.14 소련 · 동구 8개국: 우호상호원조 조약(바르샤바조약) 조인
- 7.15 오스트리아 주권 회복(10.26 영세 중립 결정)
- 7.18 미국 · 영국 · 프랑스 · 소련 정상 회담(제네바)
- 11.22 중앙조약기구(CENTO) 결성
- 12.9 서독: 할슈타인독트린 발표

1956년

- 2.14 소련 공산당 제20회대회 개막(평화공존노선 채택)
- 4.28 프랑스군: 월남철수 완료
- 7.26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 수에즈운하 국유화 선언
- 9.20 국제원자력기구 창립총회(뉴욕)

- 10.23 헝가리 부다페스트서 반정부폭동
- 10.29 이스라엘군: 이집트 침입(10.30 영국 · 프랑스군 개입; 1957.11.5 유엔정전 결의안 수락)
- 11.21 유엔군: 수에즈에 진주(12.22 영국 · 프랑스군: 수에즈 철수; 1957.4.8 수에즈운하 재개)

1957년

- 1.9 이든 영국 총리 사임(후임 맥밀런)
- 3.1 미국 육군: 중거리탄도탄(IRBM) 발사 성공
- 3.25 구주경제공동체(EEC) · 원자력공동체(JRATOM) 설립조약 조인
- 5.15 영국: 수소폭탄 실험
- 7.3 소련 공산당 중앙위: 말렌코프 추방
- 7.19 미국: 공대공미사일실험 성공
- 8.22 소련: 대륙간탄도탄(ICBM) 실험 성공
- 10.4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호 발사 성공
- 11.16 64개국 공산당 · 노동자당대표자회의 개최(11.23 세계평화 선언)

1958년

- 1.31 미국: 인공위성 익스플로러1호 발사 성공
- 3.2 영국 탐험대: 남극대륙횡단 성공
- 4.15 제1차 아프리카독립제국회의
- 6.1 프랑스 드골 내각 성립
- 8.29 중공: 농촌에 人民公社 설립
- 9.19 알제리 임시정부 수립(카이로)
- 10.5 프랑스 제5공화국 성립(12.2 대통령선거에서 드골 당선)

1959년

- 1.1 카스트로 쿠바 혁명군: 바티스타 정권 타도
- 1.2 소련: 우주로켓 발사(최초의 인공행성)
- 2.19 영국 · 그리스 · 터키: 키프로스 독립 협정
- 3.5 미국 · 터키 · 이란 · 파키스탄: 상호방위조약(앙카라협정) 조인
- 4.27 중공: 국가주석에 劉少奇 선출
- 6.3 싱가포르: 자치국독립 선언
- 9.15 흐루시초프 소련 서기장 미국 방문(9.30 중공 방문: 중 · 소대립 격화)
- 10.4 소련: 우주스테이션 루나3호 발사(달뒤편 촬영)
- 10.19 유엔총회: 어린이권리선언 채택

- 11.20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설립조약 조인
- 12.1 남극조약 체결(21개국, 워싱턴)

1960년

- 1.19 미국 · 일본: 신안보조약 조인
- 2.13 프랑스: 사하라서 원폭실험 성공
- 5.1 소련: 영공침범한 미국 정찰기(U2형) 격추
- 7.20 미국: 잠수함서 IRBM 폴라리스 유도탄발사 성공
- 8.7 카스트로: 쿠바 내 미국재산 몰수
- 9.26 국제개발협회(IDA) 발족
- 12.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약 조인
- 12.20 월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 결성

1961년

- 1.3 미국: 쿠바와 단교
- 1.7 카사블랑카 아프리카정상회담: 아프리카헌장 발표
- 1.31 미국: 침팬지를 태운 로켓 발사
- 2.1 미국: 고체연료를 이용한 ICBM 미니트맨 시험발사 성공
- 2.12 소련: 궤도상의 인공위성에서 금성로켓 발사
- 3.9 미국: 개(犬)실은 우주선 발사 · 회수에 성공
- 4.11 나치 전범 아이히만 재판 개정(에루살렘)(1962.5.31 형사집행)
- 4.12 소련: (유인)우주선 보스토크1호 발사(지구궤도 일주에 성공)
- 4.17 쿠바혁명평의회 회의 카스트로군 쿠바 상륙(5.1 카스트로 총리,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
- 5.5 미국: 유인탄도로켓 발사에 성공
- 6.3 케네디 미국 대통령: 흐루시초프 소련 총리와 회담(빈)
- 7.1 아프리카국가연합(가나 · 기니 · 말리) 발족
- 7.31 필리핀 · 타이 · 말레이시아 3국: 동남아연합(ASA) 결성 선언
- 8.12 동독: 베를린장벽 구축
- 9.29 유럽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족
- 10.30 소련: 50메가톤급 핵실험
- 11.5 미국: 새 대외원조기구(AID) 발족
- 11.29 미국: 침팬지를 태운 위성 발사(지구 2바퀴 돌고 귀환)

1962년

- 1.2 중남미자유무역연합 발족
- 1.19 나토 諸國: 파리선언 채택

- 1.26 미국: 달로켓 레인저3호 발사
- 1.31 미주기구 외무장관회의: 쿠바추방 결의안 채택
- 2.3 케네디 미국 대통령: 2월 7일자로 對쿠바금수조치 발표
- 2.6 영국: 서인도제도연방 해체 선언
- 2.8 미국: 駐越南軍司令部 설치 발표
- 2.20 영국: 국방백서에서 극동통합사령부 설치 발표
- 3.14 18개국 군축위원회의 개막(제네바)
- 3.18 프랑스·알제리: 정전협정 조인(에비앙)
- 4.14 드브레 프랑스 내각 총사퇴(후임 총리에 포피두 취임)
- 5.15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 도브리닌 미국주재 소련대사와의 회담에서 라오스 휴전 합의
- 6.14 유럽 10개국: 유럽우주개발협력기구 수립협정 조인
- 6.27 중공: 金門·馬祖島 포격 개시
- 7.6 미국: 첫 수폭형핵실험 실시(네바다)
- 7.11 미국, 텔스타 통신위성을 통한 텔레비전중계 성공
- 7.21 라오스 국제회의: 라오스의 중립 선언·부속의정서 채택
- 8.27 미국: 금성로켓 마리너2호 발사
- 9.1 이란 서북부에 대지진(사망 2만 명)
- 10.22 케네디 미국 대통령: 소련은 쿠바에 중거리탄도탄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쿠바해상봉쇄를 선언하고 긴급 안보리 소집 요구(10.24 쿠바봉쇄작전 개시;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 미국의 대쿠바봉쇄·소련의 무기수송중지 및 미·소협상 요청; 10.28 흐루시초프 소련 총리, 쿠바 내 미사일기지철거를 명령했다고 미국에 통고; 11.20 미국: 쿠바해상봉쇄 해제)
- 12.18 케네디 미국 대통령·맥밀런 영국 총리: 비공식회담에서(바하마) 스카이볼트 계획을 포기하고 폴라리스 핵잠수함으로 대체기로 합의; 12.21 나토 핵훈련부대 창설 등의

1963년

- 1.21 드골 프랑스 대통령·아데나워 서독 총리회담(파리): 외교·방위 등 주요 사항을 사전협의기로 하는 프랑스·서독협력조약 체결 합의
- 5.22 아프리카 33국 정상회의(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헌장 채택

- 6.3 교황 요한 23세 사망(21일 새 교황에 몬티니 추기경 피선; 바오로 2세로 취임)
- 6.21 프랑스: 대서양함대의 나토철수 통고
- 7.15 미·영·소 핵실험금지회담 개막(모스크바, 7.25 대기권 및 수중핵실험금지조약 가조인)
- 8.1 미·영·소 외무장관: 부분핵금지조약 조인(모스크바)
- 8.7 유엔 안보리: 인종차별비판·무기금수 등 對남아공 제재결의안 채택
- 9.20 케네디 미국 대통령: 유엔총회서 미·소 공동 달(月)탐험 제의
- 9.25 소련 최고회의: 핵금지협정 비준
- 11.22 케네디 미국 대통령: 델라스에서 피격·사망(존슨 부통령 승계)
- 12.6 프랑스: 중공에 통상문호 개방
- 12.20 베를린장벽 개방

1964년

- 1.8 파나마운하 미국관리지역에서 미군과 파나마학생 유혈충돌(1.17 미·파나마 단교; 4.3 국교 재개)
- 1.13 아랍 13국 수뇌: 요르단강 水利문제 협의의 위해 회담(카이로)
- 1.27 프랑스: 중공 승인(2.11 자유중국; 프랑스와 단교)
- 1.30 미국: 달로켓 레인저6호 발사(2.2 달표면에 착륙)
- 2.6 쿠바: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에 금수 중단(2.7 미국: 對쿠바 경제봉쇄 강화키로)
- 2.22 미국: 에코2호 위성에 의한 미·영·소 3국협력 위한 국제우주전파통신에 성공
- 3.3 유엔 안보리: 평화군 파견·분쟁조정관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키프로스결의안 채택(3.14 평화군 재진; 키프로스 상륙)
- 4.19 라오스 우파군: 쿠데타로 연립정부 타도, 푸마 총리 연금(5.2 푸마; 우파·중립파군 통합 발표)
- 5.1 체코 프라하서 메이데이 행사 중 반공데모
- 5.4 가트 케네디라운드 각료회의 개막(제네바)
- 5.3 통일아랍: 새 아스완댐 재기 공사 완공
- 6.5 루마니아: 소련의 政·經간섭에 불만을 표시하며 對서방접근 선언

- 6.12 소련·동독: 우호상호원조협력조약 조인(동독불가침 보장, 서베를린을 독립된 정치단위로 취급)
- 7.18 미국 백인경관의 흑인소년 사살사건으로 뉴욕시 할렘街서 흑인 폭동
- 10.15 흐루시초프 소련 서기장 실각(후임에 브레즈네프 취임)
- 10.15 영국 총선거에서 노동당 승리(월슨 당수 총리에 지명)
- 10.16 중공: 첫 원폭실험 성공(核禁 爲한 세계정상회담 제의)
- 10.19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 평화공존추구 선언
- 11.14 미국: 서독과 방위협정 체결
- 11.28 미국: 화성로켓 마리너4호 발사(11.30 소련: 화성로켓 존도2호 발사)
- 12.15 월슨 영국 총리: 태평양핵전력구상 발표

1965년

- 1.7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엔탈퇴 발표
- 3.15 미군기: 처음으로 북위19도선 넘어 월맹 군사기지 폭격
- 3.19 소련 보스호드2호 우주인: 첫 우주 산책 성공
- 3.23 미국: 첫 2인승 우주선 제미니3호 발사
- 3.30 베트남: 사이공 주재 미국대사관 폭파
- 4.3 미국: 첫 원자로위성 스냅10A 발사
- 4.30 영국: 철강회사 국유화백서 발표
- 5.13 서독: 이스라엘과 수교(아랍10개국; 서독과 단교)
- 7.14 미국 우주선 마리너4호: 최초로 화성 근접촬영(1964.11.28 발사)
- 7.28 미국: 對월남 신정책 발표(주월미군 12만5천 명으로 증강, 무조건협상 용의)
- 8.11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사망 32명); 8.13 시카고시에서 흑인 폭동
- 8.30 인도·파키스탄: 캐시미르휴전선 전역서 교전
- 9.20 유엔 안보리: 인도·파키스탄전쟁 49시간 내 정전 결의(9.22 인도·파키스탄; 안보리결의에 따라 정전)
- 9.25 미군: 월남에 야전군사령부 설치
- 10.17 미군기: 하노이 북방 공업지대 첫 폭격
- 11.16 소련: 자동우주스테이션 베네라3호 발사
- 11.26 프랑스: 첫 인공위성 시 발사

12.15 미국 우주선 제미니7·6호: 사상 최초로 랑데부 성공

1966년

- 1.3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AALA) 3대륙 인민연대회의(~1.15 아바나선언 채택)
- 2.3 소련 자동우주스테이션 루나9호 달에 연착
- 2.3 미국 항공우주국: 첫 기상관측위성 발사
- 3.16 미국 인간위성 제미니8호 도킹에 성공
- 3.30 프랑스: 나토통합군 이탈 통고
- 4.4 소련 루나10호 달궤도에 진입(최초의 인공달위성)
- 5.9 중공: 핵실험성공(4번째 수소폭탄 보유국)
- 5.15 월남 불교도·반정부군: 전면항쟁으로 내전상태
- 5.30 미국: 무인탐색선 서베이어11호 발사(6.2 달연착에 성공)
- 6.3 중공 정풍운동 표면화(林彪 국방부장 추진)
- 6.3 미국: 인간우주선 제미니9호 발사(무인표적위성과 랑데부, 우주유영)
- 6.29 미국 공·해군기: 하노이·하이퐁 석유저장시설 폭격
- 8.8 중공 문화혁명 격화
- 8.21 중공 홍위대선풍 전국으로 확대(9.15, 北京에서 홍위대 집회)
- 9.12 미국: 제미니11호 발사(아데나 위성과 결합, 인공중력 실험)
- 10.7 존슨 미국 대통령: 동서융화 위한 유럽구상 발표(미·소 駐유럽군 감축, 對동구무역제한 완화, 공산권여행 자유화, 나토 재검토)
- 11.4 미·소: 민간항공협정 조인
- 11.11 미국: 제미니12호 발사(아데나 위성과 도킹, 개기일식 촬영, 우주유영)

1967년

- 1.17 말리노프스키 소련 국방장관: ABM(대탄도미사일요격미사일) 배치 발표
- 1.27 미·소 등 각국: 우주평화이용조약 조인
- 1.27 미국 아폴로우주선 시험 중 화재로 첫 우주비행사 3명 사망
- 4.14 美洲수뇌회의(4.12~, 푼타델에스테): 중남미공동시장 설립 합의

- 5.22 나세르 아랍연맹 대통령: 아카바만 봉쇄 발표
- 6.6 아랍연합 수에즈운하 봉쇄(아랍 6개국: 미·영과 단교)
- 6.7 이스라엘군: 시나이반도 점령
- 7.23 미국: 디트로이트 흑인폭동으로 비상사태 선포
- 8.8 동남아 각료회의(방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설립 공동선언
- 9.18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 對중공 방위 위해 ABM(탄도탄방위조직)망 건설에 착수했다고 발표
- 10.18 소련 베네라4호: 최초로 금성 대기권 돌입 성공
- 10.23 77개 저재발국회의: 경제무역협정(알제) 채택
- 11.8 아랍공화국 대변인: 이스라엘의 생존권 인정 밝혀
- 12.3 우 탄트 유엔 사무총장: 키프로스·그리스·터키 3국에 분쟁조정안 전달

1968년

- 1.23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元山 앞바다에서 북한에 피랍
- 3.30 10개국 재무장관회의: 특별인출권(SDR) 창설 결정
- 4.4 미국 흑인지도자 킹 목사 피살(전국 41개도시에서 흑인 폭동)
- 5.1 가트(GATT) 주요국: 케네디라운드(관세일괄인하) 1년 조기실시 합의
- 5.20 프랑스 파업 확대: 공공부문 마비(5.30 드골 프랑스 대통령: 의회해산·총선실시 발표)
- 7.1 EEC관세동맹 발족(역내 無稅, 역외 공동세율)
- 7.1 미·영·소 등 62개국: 핵확산금지조약 조인
- 8.16 미국: 첫 다핵탄두미사일 포세이던 발사 성공
- 8.21 소련·동구군: 체코 침공; 두브체크 제1서기·체르니크 총리 등 연행
- 9.1 이란 대지진(1만 명 이상 사망)
- 9.12 알바니아: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
- 10.15 미국: 파나마와 단교
- 11.1 중공: 劉少奇 추방 발표
- 11.5 미국 대통령선거서 공화당의 닉슨 후보 당선
- 11.19 서구 전역에 통화위기(영국·프랑스 외환시장 폐쇄)
- 12.28 이스라엘 공군: 베이루트공항 기습폭격(중동 긴장 악화)

1969년

- 1.14 서구 4개국: 경제동맹 결성계획 초안 작성
- 1.18 일본 대학분규 악화(경찰 東京大 구내에 돌입)
- 1.20 체코 反蘇데모 확대
- 1.25 제1차 월남평화회담(파리) 개최
- 2.5 이탈리아 노조: 전후 최대 총파업
- 3.2 중·소: 우수리강 다만스키도서 무력충돌
- 4.23 레바논: 비상사태 선언(팔레스타인난민과 군대 충돌; 24일 카라미 총리 사임)
- 4.28 드골 프랑스 대통령: 국민투표(4.27)서 패해 사임
- 5.13 말레이시아 인종폭동으로 100여명 사상(5.15 전국에 비상사태 선포)
- 5.22 미국 아폴로10호(5.18 발사): 달착륙테스트에 성공
- 5.30 서독: 할슈타인원칙(동독승인국과 단교) 폐지 결정
- 6.5 세계공산당회의 개막(모스크바, 75개당 참가)
- 6.10 베트남: 월남에 임시혁명정부수립 발표
- 6.11 영국 탐험대: 첫 북극도보횡단 성공
- 7.20 미국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올드린(아폴로11호):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
- 8.21 예루살렘 엘아크사 회교사원 방화 사건 발생(중동사태 긴박)
- 10.27 미국: 국내외 미군기지 307개소 폐쇄·축소 발표
- 11.2 레바논 정전 위한 카이로협상 성립
- 11.17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개막(헬싱키)
- 11.21 닉슨 미국 대통령: 佐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1972년 오키나와 반환키로 결정
- 11.26 미국: 월남 미라이학살사건 특별성명
- 12.19 울브리히트 동독 원수: 하이네만 서독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평등조약 등 제의
- 12.21 동·서독: 1970.1월부터 외교관계 수립 협의키로 합의

1970년

- 1.1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발효(국제통화 새 시대에 접어들어)
- 1.14 브란트 서독 총리: 동독에 무력불행사협상 제의

1.14 유럽 공산당회의 개막(모스크바)
 1.20 EEC외무장관회의: 유럽정치통합 문제 토의
 1.30 서독·소련: 무력불행사협상 재개(모스크바)
 1.31 브란트 서독 총리·퐁피두 프랑스 대통령: 서독의 對동방외교정책 협력 약속(파리)
 2.3 일·미·영·소: 핵금지조약 조인
 2.5 서독·폴란드: 전후 최초로 정치 회담 개최(바르샤바)
 2.12 이스라엘 공군기: 카이로 무차별 폭격
 2.12 동독: 서독에 총리회담 제의(2.18 서독: 예비회담개최 합의; 3.2 예비회담 개시)
 2.18 닉슨 미국 대통령: 외교교서(닉슨 독트린) 발표
 2.27 미국·영국·프랑스: 對소련각서에서 베를린문제에 관한 대사급 회담 제의
 3.5 핵금지조약 발효(미·영·소 비준서 기탁)
 3.15 일본 만국박람회(EXPO70) 개막(오사카)
 3.23 시아누크: 캄보디아 해방을 위한 민족연합정부와 민족해방군을 조직한다고 발표(베이징)
 3.26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국 대사급 회담 개최(서베를린)
 4.1 프랑스: 인도차이나 평화국제회의 제창
 4.15 周恩來 중공 총리: 日·中共무역에 관한 담화(周4원칙) 발표
 4.16 미·소전략무기제한협상(SALT) 개막(빈)
 4.30 닉슨 미국 대통령: 캄보디아 직접 개입 발표
 5.1 미군: 캄보디아영내 진공
 5.5 시아누크: 베이징에 캄보디아왕국 연합정부를 수립했다고 발표
 5.10 이스라엘 외무장관: 팔레스타인에 아랍국가 인정한다고 언명
 5.10 북아일랜드에서 종교폭동
 5.12 이스라엘군: 레바논 침공(유엔 안보리: 이스라엘군의 즉시철폐 결의)
 5.14 코메콘총회 폐막(국제투자은행 설립 결정)
 5.16 캄보디아문제 아시아회의(자카르타) 개막(5.17 캄보디아로부터 모든 외국군 철수 요구)

5.20 마오쩌둥 중공 주석: 인도차이나 인민의 對美투쟁지원 성명
 5.21 제2차 양독총리회담(서독 카세르) 개막(견해대입으로 실패)
 5.27 나토 이사화: 동서상호군축·유럽 안보토의참가 제의
 6.5 프랑스·소련: 외무장관 공동성명(파리)에서 인도차이나 자결권보장 확인
 6.19 영국 총선거에서 보수당 승리(6.20 히스 내각 발족)
 6.30 미국 상원: 對캄보디아 개입금지 의결
 7.3 북아일랜드서 가톨릭계 시민·군인 간 시가전 벌여
 7.23 나세르 통일아랍공 대통령: 중동 평화 위한 미국의 제안 수락
 7.27 서독·소련: 무력불행사선언 본격 협상(8.7 조약에 가조인)
 8.3 미국 해군: 다핵탄두 포세이던 미사일 수중발사성공 발표
 8.12 서독·소련: 양국 간 무력불행사·국경존중조약 조인(모스크바)
 8.28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 對중공 정상화 밝혀
 10.7 닉슨 미국 대통령: 인도차이나 휴전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평화 5개항 제안
 10.10 캐나다 퀘벡해방전선: 퀘벡주 노동장관 납치(10.16 정부: 비상사태 선포)
 10.14 미·일 등 18개국: 중국대표권문제를 주요 사항 지정 재확인안으로 유엔 총회에 제출(11.21 가결)
 10.20 27개국 공산당회의 개막(모스크바); 유럽안보 토의
 10.21 그로미코 소련 외무장관: 유엔 연설에서 중공·양독의 유엔참가 요청
 11.12 유엔총회: 중국대표권문제 토의(미국 대표: '2개의 중국방식' 전환 시사)
 11.14 동파키스탄 대해일(사망자 16만6천 명)
 11.26 칠레: 사회주의계획 발표(은행의 국유화)
 12.2 나토 국방장관회의: 1970년 대방위 계획·전유럽안보문제 등 토의
 12.2 바르샤바조약기구 수뇌회의: 소련·서독조약 및 전유럽안보회의문제 등 토의
 12.14 폴란드에서 물가폭동에 항의하는 대규모폭동 발생(12.18 비상사태 선포)

1971년

1.13 이집트: 아스완댐 준공
 2.4 중동 산유국: 원유가를 일반적으로 인상(서방의 對석유자본에 대한 산유국의 자주적 투쟁)
 2.21 런던 노동자: 영국 보수당 정부의 파업규제법 입법계획에 항의 대규모 시위 벌여
 2.24 알제리: 사하라사막의 석유·천연가스 국유화 발표
 2.25 닉슨 미국 대통령: 외교특별교서(닉슨독트린) 발표(아·태지역의 미·소·중·일의 협동체제 필요성 강조)
 3.26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공화국 수립 선언
 4.10 미국 탁구팀 중공 방문(핑퐁외교)
 4.14 닉슨 미국 대통령: 통상·여행제한완화 등 對중공관계개선 발표
 4.17 아랍공·시리아·리비아: 연방국가형성협정 조인
 4.19 소련: 케도우주정거장 살류트호 발사
 5.4 마르크화의 평가절상기미에 유럽 통화 혼란(각국 환권시장 폐쇄)
 5.22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히스 영국 총리: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가입 합의(파리)
 5.27 소련·아랍공: 15년 '우호·원조조약' 조인
 6.10 닉슨 미국 대통령: 對중공금수해 제조치 발표
 7.26 미국: 달 위성 아폴로15호 발사(7.31 달표면에 착륙, 손수레로 과학적 탐사활동 개시)
 8.9 인도·소련: 20년간의 '평화우호협력조약' 조인
 9.2 이집트·수단·리비아: 아랍공화국연방 발족
 9.30 미·소: 우발핵전쟁방지협정 및 인공위성중계 직통전화망 신설협정 발표
 10.25 유엔총회: '자유중국축출·중공가입'안 가결(자유중국 대표: 유엔탈퇴 선언)
 11.14 미국 무인화성위성 마리너9호 화성궤도 진입
 11.15 인도·파키스탄: 국경서 군사충돌(11.27 동파키스탄; 인도와 전면전상대 선언)
 11.26 동남아국가연합(ASEAN): 중립화안 조인(12.6 인도; 방글라데시 승인)

- 12.7 소련 무인화성탐색위성 마르스3호 최초로 화성에 착륙
- 12.17 동·서독: 베를린협정 조인(동·서 베를린 왕래)

1972년

- 1.6 미국·일본: 오키나와 반환 위한 공동성명 발표
- 1.9 킌 엘리자베스호 홍콩에서 화재로 전복
- 2.21 닉슨 미국 대통령: 베이징 방문(미국 대통령 최초의 중공 방문)
- 2.27 미국·중공: 평화5원칙 합의(미국: 타이완을 중공의 일부로 인정)
- 3.24 히스 영국 총리: 종교분쟁 중인 북 아일랜드 1년간 직접통치 선언
- 5.8 닉슨 미국 대통령: 월맹이 미국측의 정전안을 수락할 때까지 해상기뢰 봉쇄 선언
- 6.3 미국·영국·프랑스·소련 외무장관: 베를린협정 조인
- 6.27 북아일랜드 종교분쟁(영국·아일랜드군 무기한 정전)
- 9.5 아랍계릴라: 뮌헨올림픽촌에 난입, 이스라엘선수 11명 살해
- 10.3 미국·소련: ABM제한조약비준서 서명
- 12.21 동·서독: 관계정상화기본조약 조인

1973년

- 1.24 닉슨 미국 대통령: 베트남평화협정 발표
- 2.22 미국·중공 공동성명(베이징·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 무역·과학·문화교류 확대 합의)
- 3.2 베트남평화보장 파리국제회의: '파리결의'에 조인(베트남평화협정에 국제구속력 부여)
- 4.30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닉슨 대통령 곤경(8.9 닉슨 사임; 8.10 포드 부통령이 승계)
- 6.1 그리스: 공화제 선언(150년간의 왕정 종결)
- 9.14 가트락료회의(도쿄): '도쿄선언' 채택
- 9.18 제28차 유엔총회: 동·서독 유엔 가입 승인
- 9.18 아시아경기연맹(방콕): 중공가입·자유중국추방 결정
- 10.6 제4차 중동전쟁 발발(이집트·시리아군: 이스라엘 점령지 공격)

- 10.20 아랍산유 5국: 미국 등 이스라엘 지원국에 석유수출 중단

1974년

- 2.8 히스 영국 총리: 경제위기로 의회 해산(3.5 월슨 노동당 내각 발족)
- 3.12 소련 마르스6호(1973.8.5 발사): 화성에 착륙
- 4.5 나이로비 해양법회의: '나이로비선언'(영해권 200마일) 채택
- 5.5 브란트 서독 총리: 보좌관의 스파이사건으로 인해 사퇴
- 5.19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지스카르 데스탱 재무장관 당선
- 6.18 나토 각료이사회(오타와): 대서양 선언에 합의
- 9.23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유엔총회에서 세계경제공황을 경고하면서 유가인하 촉구
- 11.26 포드 미국 대통령: 미·소정상회담(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핵무기상한선을 2,500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12.8 그리스: 국민투표로 142년간의 왕정 종식

1975년

- 1.19 중공: 새 헌법 발표(사회주의국가 규정)
- 2.11 영국 보수당 당수에 대처(여) 피선
- 2.23 아랍제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아랍통화기금 설치 합의
- 4.14 시킴왕국 국민투표: 인도에 합병 승인
- 4.30 월남: 베트남에 무조건항복(30년 전쟁 종식)
- 7.17 미국 아폴로·소련 소유즈 우주선: 대서양 상공서 도킹
- 10.16 국제사법재판소: 모로코·모리타니의 스페인령 사하라영유권 불인정
- 12.7 포드 미국 대통령: 신태평양독트린 발표

1976년

- 1.21 영국·프랑스가 공동개발한 초음속여객기 콩코드 운항 개시
- 1.26 유엔 안보리: 팔레스타인 독립 승인
- 2.27 폴리사리오: 스페인령 사하라에 사하라민주공화국 수립 선언
- 4.7 중국 공산당 중앙위: 鄧小平의 모든 직무 해임(華國鋒을 黨제부주석·총리에 임명)

- 6.27 텔아비브발 파리행 프랑스 에어버스 피랍(7.4 이스라엘 특공대: 인질구출작전 성공)
- 7.20 미국 우주선 바이킹호 화성에 연착륙
- 10.7 中共서 江青·王洪文·張春橋·姚文元 '4인방' 등 문화혁명 좌파 30여명 체포사실 밝혀져

1977년

- 3.7 아랍·아프리카 수뇌회담(카이로) 개막(새 정치블록지향 위한 '카이로선언'에 60개국 서명)
- 7.12 카터 미국 대통령: 중성자탄두생산 잠정결정
- 8.12 미국 우주선 스페이스셔틀 첫 단독비행에 성공
- 11.21 이집트·이스라엘: 상호대화계속·전쟁회피·제네바회담 조기개최 등 공동성명 발표
- 12.4 아랍강경파수뇌: 이집트와 외교동결·통일전선결성 등 '트리폴리선언' 발표

1978년

- 1.1 인도 여객기 봄베이 앞바다에 추락(승객·승무원 213명 사망)
- 1.3 카터 미국 대통령: 미국·인도공동성명(텔리선언, 핵무기제거 주창)에 서명
- 1.11 소련: 유인우주선 소유즈27호, 살류트6호 및 소유즈26호와 3중연결에 성공
- 1.24 소련 군사위성 코스모스954호: 원자료를 적재한 채 캐나다 상공서 추락(1.30 카터 미국 대통령: 원자로위성의 전면금지 위한 對蘇협상의사 표명)
- 2.5 베트남: 캄보디아에 휴전 제의(2.7 캄보디아는 이를 거부)
- 2.7 미국 상원: 핵확산방지정책법안 가결
- 2.20 브라운 미국 국방장관: 트라이던트 미사일배치 등 동아시아에서의 미 군사력강화의사 표명
- 2.22 영국 하원: 스코틀랜드분권법안 가결
- 2.26 중공 全人代 제5기회의 개막(3.5 새 헌법 채택)
- 3.8 이탈리아 기민·공산·사회·사민·공화당: 기민당 소수단독내각 수립에 관한 협정 체결

3.11 팔레스타인 게릴라: 이스라엘에 상륙(3.14 이스라엘: PLO 게릴라거지에 보복공격)

3.19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의 철병·유엔군 잠정주둔을 내용으로 한 미국 측결의안 채택

3.21 로디지아: 백인정권과 흑인온건파의 잠정연합정부 발족

4.11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점령지에서 제1단계철수 개시

4.25 카터 미국 대통령: 중성자탄제조를 중지하자는 소련측 제안 거부

5.4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 중성자탄 제조·배치중지를 제의(본)

6.12 카터 미국 대통령: 비핵국에서의 핵무기불사용 선언

6.12 카터 미국 대통령: 미국·중공 정상화에서 타이완에의 무력불침공 등 3개 조건 제시

6.17 영국·중공 외무장관: 제3세계는 서방과 연합해 공통의 적인 소련에 대항해야 한다고 언명

7.7 유럽공동체 수뇌회의: 유럽 新通貨제도 발족에 원칙으로 합의(1979.1부터 실시)

7.13 가트(GATT) 도쿄라운드: 공산품의 관세인하·농산물긴급수입제한 등 연내 완결 확인

7.25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 영국에서 탄생

7.25 티토 유고 대통령: 비동맹국 외무장관회의(베오그라드)에서 '아프리카에 새 식민지체제출현'이라며 소련·쿠바를 비난

8.13 팔레비 이란 국왕의 '정치자유화 선언'으로 폭동 격화

8.13 베이루트 내 PLO본부 폭파(150명 사망)

9.6 미국·이스라엘·이집트 수뇌 중동평화회담 개시(미국 캠프데이비드: 9.17 '3개월 내 이스라엘·이집트평화조약 체결'·'가자지구에 5년 후 자치권 부여' 등 2개 협정에 조인)

9.8 이란: 12개 도시에 계엄령 선포, 왕정반대 시위군중에 발표

9.29 유엔 안보리: 나미비아에 유엔군 파견 의결

10.19 미국·영국·남아공 외무장관회담: 나미비아 독립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11.5 아랍 수뇌회의: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조인을 반대하는 정치선언 채택

11.22 유네스코: '언론선언' 채택

12.5 유럽공동체 수뇌회의: '유럽통화제도 설립에 관한 유럽이사회결의' 채택

12.15 미국·중공: 1979.1.1부터 국교정상화 발표

12.26 터키: 종교분쟁으로 앙카라 등 13개시에 계엄령 선포

12.28 이란: 반정부데모로 석유생산 전면중단

1979년

1.1 미국:중공과 수교, 자유중국과 단교

1.7 캄보디아반군·베트남: 프놈펜 점령(1.11 국명을 캄보디아인민공화국으로 개칭)

1.16 팔레비 이란 국왕: 이집트로 탈출(1.17 파리에 망명 중인 이란 혁명운동 최고지도자 호메이니; 이슬람임정수립 발표; 3.31 이란회교공화국 수립)

3.13 유럽공동체 수뇌회의: 유럽신통화제도(EMS) 발표

3.26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조인(30년 교전상태 종료)

4.7 국제올림픽위: 中共가입 승인

4.12 미국·일본·유럽공동체: '도쿄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 합의의사록 가조인

5.4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 압승(대처당수, 첫 여성총리로 취임)

7.17 소모사 니카라과 대통령: 민족해방전선세력에 밀려 미국으로 망명

10.3 시아누크 前 캄보디아 국가원수: '민족주의연합' 조직

11.4 이란 회교도·학생: 팔레비 前 국왕의 신변인도 요구하며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 점거(11.14 미국 내 이란자산 동결)

11.19 이스라엘: 점령지 시나이 이집트에 반환

1980년

1.6 사우디아라비아: 소련의 아프간침공에 항의하며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선언

2.20 미국: 모스크바올림픽 불참방침 확인

4.7 카터 미국 대통령: 인질장기화 전망으로 對이란 단교·금수 등 제재조치

4.17 국제통화기금: 중공가입 승인

6.13 EC 수뇌회담: '중동평화선언'·'아프간특별선언' 발표

7.7 영국: 세계 최초로 國際電送우편제 실시

7.11 미국 MIT大: 세계 최초로 인공피부 생산·이식에 성공

8.7 미국 국방부: 소련의 남진정책억제 위해 '인도양 3각방위망'계획 발표

8.18 폴란드 노조파업 전국으로 확산(사회주의체제개혁 요구)

8.30 중공 제5기 전인대회: 총리에 趙紫陽 지명, 실용주의 경제정책 발표

9.4 鄧小平 중공 부주석: 소련의 패권주의 견제 및 미·일·중 3각추축체제구상 발표

11.8 차우셰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소련군의 아프간철수 및 對폴란드 외세개입반대 선언

1981년

1.16 마크 미국 공군장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용 레이저광선무기 실험성공 발표

1.27 인도네시아 여객선 탐포마스호 해상화재로 침몰(589명 사망·실종)

3.25 미국 보스턴의대: 사상 처음으로 癌면역체 생산에 성공

5.26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 페르시아만협력협의회(GCC) 창설

6.6 인도 동부의 한 철교에서 열차 추락(사상 최악 3천여 명 사망)

6.28 이란 회교공화당사 폭파(대법원장·각료·국회의원 등 69명 사망)

6.29 중국 공산당 주석에 胡耀邦, 黨군사위 주석에 鄧小平

6.30 중공: 毛澤東사상 폐기 등의 실용주의지도체제 선언

7.13 미국 국방부: 미국과 일본은 극동에서의 군사적 책임분담에 합의했다고 밝히

10.16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군 사열 중 피격·사망

11.10 페르시아 6개국 정상회담(리아드): 통합군사기구 구성 합의

11.13 미국: 유인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발사(14일 로보트팔 실험성공)

12.13 폴란드에 계엄령(자유노조활동 정치, 노조간부·반체제인사 1천여 명 체포)

1982년

1.28 이탈리아 경찰: '붉은 여단'에 납치됐던 제임스 도지어 미국 육군준장 42일 만에 구출

- 2.11 프랑스: 국유화법안 발효
- 3.1 소련 무인우주선 비너스3호: 금성서 사상 첫 컬러사진 송신
- 3.10 태양계 9개 행성이 일직선상에 놓인 우주기현상 발생
- 4.2 아르헨티나: 영국령 포클랜드군도 강점(6.15 아르헨티나군: 영국에 항복)
- 4.7 미국 베일러의대: 인간유전자복제 성공 발표
- 4.30 유엔 해양법회의: 국제해양법조약 채택(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00해리)
- 7.6 미·소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제네바) 개시
- 8.17 미국·중공: 미국의 對 타이완 무기 판매감축·'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 발표
- 9.1 鄧小平 중공 군사위 주석: 12전인대서 개방정책 계속 추진 선언(9.2 胡耀邦 중공 黨 주석: 실용주의 계속 추진 선언)
- 10.1 서독 하원: 슈미트 총리 불신임안 가결(새 총리에 헬무트 콜 기민당 당수 선출)
- 11.13 레이건 미국 대통령: 對蘇 금수조치 해제 발표(새 동서무역정책 선언)
- 12.2 미국 유타대학 메디컬센터: 세계 최초로 영구인공심장이식 성공

1983년

- 1.29 미국·일본: 일본 사세보항을 동해·태평양의 對蘇 전략전진기지로 삼기로 합의
- 4.7 중공 테니스선수 胡那의 망명허용에 대한 보복으로 對 미국 문화·스포츠 교류중단 선언
- 4.18 레바논주재 미국대사관 폭발사고(외교관 등 63명 사망·130명 부상)
- 5.4 이란: 친소련 투데당(공산당) 해체(소련 외교관 18명 추방)
- 5.17 미국·이스라엘·레바논: 레바논 철군협정 조인
- 5.30 서방7개국 정상회담(윌리엄스버그): 인플레이제·금리인하 등 경제회복방안에 관한 선언문 채택
- 6.1 유럽핵연구소: 물질과 에너지의 신비를 밝혀낼 '2제로입자' 발견
- 6.18 중공 전인대: 국가주석에 李先念, 중앙군사위주석에 鄧小平 선출
- 6.18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여성우주인 등 5명 탑승)
- 6.24 서방19개국 지도자: 사회주의인터

- 내셔널(S)에 대항키 위한 국제민주연합(IDU) 발족(런던)
- 7.10 이란 외무부: 이란주재 프랑스 문화원·영사관 폐쇄 발표
- 7.22 폴란드: 계엄령(1981.12.13 선포) 해제, 정치범 석방
- 7.25 미국 공군: 레이저광무기로 미사일 격추실험 성공
- 9.5 레이건 미국 대통령: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과 관련 전략물자금수 등 對蘇 제재 조치
- 10.23 회교 과격분자로 보이는 테러범이 레바논주둔 미국·프랑스 군사령부에 동시에 폭탄터럭으로 돌진·자폭(兩軍 300여 명 사망)
- 10.25 미군: 쿠데타로 집권한 그레나다 군부에 의한 좌경화를 막기 위해 점령
- 11.22 서독 의회: 미국 퍼싱II 핵미사일의 서독 내 배치 승인
- 12.24 레이건 미국 대통령: 미국의 유네스코탈퇴 결정

1984년

- 1.6 소련: 극동에 최신형 항공모함 노보로시스크호(4만3천톤) 배치
- 1.21 미국 공군: 위성요격미사일실험 성공
- 2.3 미국: 유인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구명줄 없이 우주유영 성공)
- 3.18 중공: 다렌, 칭다오 등 10개 항구도시에 외국인투자 허용
- 4.6 미국: 유인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위성우주수리에 성공)
- 4.10 호주 의료진: 사상 처음으로 냉동수정아 출산 성공
- 5.8 소련: 제23회 LA올림픽불참 발표
- 6.5 인도 정부군: 시크교 황금사원 공격(시크교도 260명 사살)
- 6.9 제10회 서방경제정상회담: 국제금웅위기 논의, '런던헌장' 발표
- 6.22 미국 정보소식통: 1984.5. 소련 무르만스크 부근 탄약고의 대규모 폭발사고로 소련 北洋함대 미사일 30%가 파괴됐다고 밝혀
- 7.17 모로와 프랑스 내각 총사퇴(새 총리에 로랑 파비우스 공업장관)
- 10.20 중공 제12기 공산당 중앙위: 자본주의경제개혁안 채택
- 10.31 간디 인도 총리: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피살
- 11.13 미국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14

- 차 우주여행 중 사상 처음으로 고장위성회수에 성공
- 11.19 멕시코시티 가스공장서 대규모 폭발사고 발생(544명 사망)
- 11.26 미국·이라크: 17년 만에 외교관계 재개
- 12.3 인도 보팔시 유니언카바이드사 공장서 유독가스 누출로 2천여 명 사망
- 12.19 영국·중공: 홍콩반환협정 조인

1985년

- 1.13 에티오피아 열차탈선사고(450여명 사망)
- 1.15 브라질 대통령선거에서 야당후보 탄크레도 네베스 당선(군정 21년 종식)
- 3.11 소련 새 서기장에 고르바초프 피선(동서긴장완화·평화공존정책추구 선언)
- 4.9 일본: 대외시장개방책 발표
- 5.23 중공·포르투갈: 마카오반환협상 합의
- 6.14 레바논 시아파 회교도: 아테네서 로마로 가던 미국 TWA기(153명 탑승) 납치;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동료석방 요구
- 7.28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취임(40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
- 7.31 일본·중공 외무장관회담(도쿄): 원자력협정 조인
- 8.12 일본 항공보잉747기: 군마현 오스카산에 추락(사망 516명)
- 9.23 레이건 미국 대통령: 미국상품에 대한 외국시장개방촉진을 위한 새 통상정책 발표
- 11.13 콜롬비아 루이스화산 폭발(2만여명 사망)
- 12.28 레바논 기독교·회교민병대 지도자들: 내전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조인

1986년

- 1.7 레이건 미국 대통령: 로마와 빈 공항 테러사건에 리비아가 개입한 증거가 있다면서 對 리비아 경제제재조치 발표하고 미국 내 리비아 자산동결 명령(1.8)
- 1.13 남예멘: 쿠데타음모혐의로 압둘파타 이스마일 前 대통령 처형 발표
- 1.15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2000년까지 핵무기 완전폐기 제의
- 1.20 일본 이오지마 부근의 해저화산 폭발로 길이 700m·폭 300m의 섬 생겨

1.20 영국·프랑스 : 1993년 완공목표로 도버해협터널 건설 합의 발표

1.22 일본 사회당: '新宣言' 채택(마르크스-레닌주의 청산; 서구형 사회민주주의로 전환)

1.28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 후 공중폭발로 승무원 7명(女2) 전원 사망

2.5 레이건 미국 대통령: 아시아에 배치된 소련의 SS20미사일을 절반으로 줄이고 유럽에 배치된 미·소의 중거리핵미사일을 제거하자는 군축안 제의

2.7 필리핀 대통령선거 실시(25일 코라손 아키노 취임; 마르코스 대통령직 사임하고 미국에 망명)

2.28 팔메 스웨덴 총리: 괴한의 총탄으로 사망

3.14 소련: 미국이 전략방위구상(SD)을 계속 추진하면 지구궤도의 우주정거장을 핵기지화하겠다고 경고

3.20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총리에 자크 시라크 공화국연합(RPR) 총재 임명(제5공화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좌익대통령에 우익총리 체제)

3.25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의회를 해산하고 임시정부 선포

4.20 비동맹회의 101개국: 미국의 對리비아폭격을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4.26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화재사고로 3천 명 이상 사망

5.1 이란·이라크: 6년여 간의 전쟁중식을 위한 8개항 계획에 합의

5.14 프랑스 우익정부: 국영 제1TV방송의 민영화방침 발표

5.23 개발도상국대표: 77그룹 무역회담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에 대항하기 위해 개도국끼리 특혜관세 실시기로 합의

6.8 발트해임 前 유엔사무총장: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

6.12 남아공: 전국에 비상사태 선포; 종교인·학생 등 반인종차별주의자 검거

6.18 페루 3개 교도소 재소자 폭동(156명 사망)

6.18 호주: 인종·국적에 관계없이 7월 1일부터 이민문화개방 발표

6.20 130여국: 광범하고 단호한 對남아공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 채택

7.2 칠레 反政연합체: 민정복귀 촉구하며 총파업

7.5 파키스탄 인민당 등 반정부세력 수만 명: 70여 도시에서 지아 대통령 하

야·민주선거실시를 요구하며 시위

7.17 필리핀: 미군기지협정이 끝나는 1991년 이후 모든 외국군기지를 금지키로 결의

7.31 프랑스 국민의회: 65개 국영회사 의 민영화법안 최종 승인

8.1 다자간섬유협정(MFA) 당사국: 섬유유류무역에 관한 54개국 협정을 5년간 연장기로 합의(제네바)

8.1 크라시 이탈리아 총리: 연립내각구성에 성공(1개월간의 정치위기 종식)

8.13 프랑스 의회: 제1TV방송의 민영화법안 의결

8.14 파키스탄 전국서 대규모 반정부시위(야당지도자 베나지르 부토(여) 피체)

8.14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승인한 미국 상원의 결정은 선전포고라고 규정, 국민을 군사동원하겠다고 선언

8.28 볼리비아: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폭동계획을 저지키 위해 전국에 70일간의 계엄령 선포

8.31 소련 여객선 나하도프제독호(1만7천): 흑해 노보로시스크항 근해서 화물선과 충돌 침몰(사망 79명, 실종 319명)

9.25 EC 내무장관들: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국가 간에 새 경찰 합작라인을 가설기로 합의

9.26 국제원자력기구 특별회의(빈) 참가국들: 핵사고에 관한 국제협력증진협정에 서명

10.15 자유중국 국민당: 계엄령해제·신당허용결정 발표

10.17 중남미경제기구(SELA) 25개국: 외채상환불능 선언

11.1 중공 光明日報: '공산주의는 중공의 국가적 이상이 아니다'라고 주장

11.21 프랑스 우익정부: 국영기업민영화 5개년계획 착수(66개 업체 민영화계획)

11.24 EC 외무장관회의(브뤼셀): 다자간섬유협정(MFA4) 정식채택

12.9 중공 안후이성 허페이시 대학생 3천여 명: 민주화요구 시위

1987년

1.5 베이징 대학생들 관영언론 규탄시위

1.6 체코 인권운동단체 '77헌장' 그룹: 민주화행동 촉구

1.6 프랑스 철도노조파업(가스·전력·부두·체신 노조로 확대)

1.7 영국 케임브리지 천문연구소: 最古 항성(144억 광년) 발견

1.15 소련·아프간: 소련군 완전철수 합의

1.26 아프리카 8개 산유국: 아프리카석유생산국협회(APPA) 창설

2.20 브라질: 외채이자지불 90일간 유예 선언

2.28 소련: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의 5년 내 철거 제의(22 미·소 군축협상 대표: 소련측 제의 협의 개시)

3.2 중공: 시안지방 룡산유적지서 5천년 전의 甲骨文 발견

3.4 미국: 소련에 유럽배치 중거리핵미사일제거안 제시

3.6 영국 여객선 헤럴드 오브 엔터프라이즈 벨기에 앞바다서 전복(160명 사망)

3.11 소련·베트남 외무장관회담(하노이): 對중공관계개선노력·컴퓨터아문제 합의

3.12 미국 하원 예산위: 대통령에 수입규제권한을 부여하는 새 무역법안 승인

3.14 소련 공산당 중앙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민주화 정책추진 다짐

3.14 에콰도르: 외채상환중지 선언

3.15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민: 민주화요구 시위

3.23 중공·포르투갈: 1999.12.20 마카오반환 합의

4.13 슈트르갈 체코 총리: 소련식 개혁추구 선언

5.5 남아공 흑인근로자·학생 100만여명: 백인단독총선에 항의하며 파업

5.18 대처 영국 총리: 의회 해산

6.4 일본 대장상: 금융시장자유화개혁안 발표(정부공채시장·도쿄증권거래소에 외국참여 확대키로)

6.9 서방7국 정상회담: 이란·이라크 戰 종식·군축·반테러 등 3개항의 공동선언 발표

6.10 파나마 정부: 군부지도자 축출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로 비상사태 선포

6.21 소련: 지방대의원·판사선거에서 사상 처음 복수후보투표(일부지역) 실시

6.22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페르시아만전쟁 종식결의안 채택

6.26 유엔고문방지협약 발효

6.30 소련 최고회의: 국영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제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제의한 경제개혁법안 채택

- 7.15 자유중국: 계엄령해제 및 해외투자자유화·외환규제 완화
- 7.20 유엔 안보리: 이란·이라크 휴전 요구결의안 채택
- 7.29 인도·스리랑카: 스리랑카 인종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조인
- 7.31 이란 순례자들: 메카서 사우디의 이라크지원 항의시위 중 사우디 경찰과 유혈충돌(400여 명 사망)
- 8.21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 중미 5개국 평화조약 수락
- 8.27 서독 사민당·동독 공산당: 이념적 접근 위한 공동선언 발표
- 9.15 미·소: 핵위험감소센터(NRRC)설치협정 체결
- 9.23 소련: 유엔총회서 페르시아만 평화유지군창설 제의
- 10.19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 미국은 보복으로 이란의 해상석유시추시설을 초토화했다고 밝혀
- 10.22 유엔총회: 유출된 각국의 문화재는 원래의 소유국으로 반환토록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11.4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공산주의운동은 새롭고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소련은 더 이상 동맹국에 정책을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 11.25 유엔 안보리: 남아공에 2주 내에 앙골라로부터 병력을 철수 시키고 對 앙골라 침략행위를 중단하라는 결의안 채택
- 11.27 에르사드 방글라데시 대통령: 전국에 비상사태 선포(모든 파업·시위 금지, 통금실시, 대학휴교령 내려)
- 12.8 미·소 정상회담: 중거리핵전력(INF) 폐기협정에 조인
- 12.12 레이건 미국 대통령: 소련이 미국의 SDI에 계속 반대할 경우 전략핵무기감축을 위한 어떤 협정도 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 12.20 필리핀 여객선 도나 파르호 침몰로 1천500명 이상 사망
- 12.24 유엔 안보리: 이란·이라크에 적대행위의 종식을 촉구하고 휴전요구를 거부하는 나라에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경고
- 12.29 소련 우주선: 지구궤도 우주정거장에서 326일 체류 후 지구로 귀환. 최장기록

1988년

- 1.10 新華통신: 중국은 라오동반도를 대외경제개방창구로 설정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보도
- 1.26 세계보건기구: 'AIDS에 관한 세계각료회담(런던)'에서 AIDS환자는 1988.1.12 현재 130개국에서 7만5천392명이라고 밝혀
- 2.17 타이·라오스: 휴전협정 조인
- 2.23 아프가니스탄 회교반군: 아프간임시정부수립 선포
- 2.24 소련: 체코·동독배치 SS12 단거리핵미사일 철거 개시
- 2.26 파나마 비상의회: 군사령관 노리에가 장군의 해임에 반기를 들고 델바에 대통령을 축출키로 의결(각의; 마누엘 솔리스 팔마 교육장관을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
- 3.2 나토 정상회담: 소련의 재래식무기 감축촉구와 미국의 전략핵무기 감축노력에 지지하는 성명 발표
- 3.5 소련: 국영기업에 경쟁을 보장하고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사기업장려법안 마련
- 3.5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반중국 시위로 유혈폭동 발생
- 3.14 중국·베트남: 난사군도 근처에서 무력충돌
- 3.15 인도 전역에서 간디 총리의 퇴임 및 조기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파업 돌입
- 3.15 헝가리 시민: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 3.16 니카라과 정부군: 온두라스 내 콘트라반군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온두라스 침공(미국은 대응조치로 온두라스에 미군 3천 명 파병)
- 3.23 소련 최고회의: 라고르노 카라바흐지역의 아르메니아 편입요구 거절(아르메니아인들; 26일을 '봉기의 날'로 선포)
- 4.14 미·소·아프간·파키스탄 외무장관: 아프간 주둔 소련군을 1989.2.15까지 전면철수시킨다는 아프간 국제평화협정에 조인
- 4.20 중국: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경제계획 발표
- 5.7 소련 민주연합당: 소련 내 첫 야당 창당작업에 착수(5.10 다당제촉구 등 당강령 채택하고 창당 선언)

- 5.14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의회를 해산하고 6월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 5.15 아프간 주둔 소련군: 8년간 주둔해 온 병력을 평화협정에 따라 철수 시작
- 5.22 카다르 헝가리 서기장: 개혁파에 밀려 32년 만에 퇴진(후임에 그로스 총리)
- 5.26 소련 최고회의: 물자수입·외국회사와 합작을 허용하는 등 사기업 자활화를 확대하는 새 개혁법안 채택
- 5.27 미국 상원: 제4차 미·소 정상회담에서 교환될 INF폐기협정 비준
- 6.20 제14차 G7회담: 아프리카 빈국들의 광범위한 외채경감조치에 합의
- 7.8 소련: 화성탐사선 발사
- 7.14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폴란드 방문중 보이체흐 야루젤스키 국가평의회 의장과외의 공동성명에서 폴란드의 독자노선을 허용
- 7.25 親베트남계 캄푸치아 정부: 내전 종식 위해 7개항의 평화계획 제의(7.27 캄푸치아 4派; 임정수립 합의)
- 8.16 유럽경제공동체 대변인: 소련을 포함한 동구5국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키로 하고 口上書를 보냈다고 밝혀
- 8.17 지아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등 비행기 폭발사고로 사망(8.19 새 대통령에 마웅 마웅 선출)
- 8.20 이란·이라크 휴전협정 발효
- 8.22 체코 시민들: 소련의 체코침공 20주년 맞아 소련군 철수·자유선거·인권보장 등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벌여
- 8.24 소련 3개공화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독·소불가침조약 체결 49주년 맞아 자치권 요구
- 9.9 버마 반정부지도자들: 임정수립을 선포하고 10월 9일 복수정당제의 종선을 실시하라고 촉구(버마사회주의계 획당은 다당제를 수락)
- 9.16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크라스노야르스크市 연설에서 아·태지역의 안보증진을 위한 7개항의 평화안 발표
- 9.24 소련 이즈베스티야: 소련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포함한 극동지역에 대한 여행제한조치를 철폐했다고 보도
- 9.29 미국: 유인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에 성공
- 9.29 미국·일본·캐나다 등 서방 12국: 사상 최대 규모의 유인우주정거장 공동건설협정에 서명

- 10.16 라코프스키 폴란드 총리: 폴란드 공산당의 독재정치는 종식되었다고 밝혀
- 10.22 유고 연방의회: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헌법개정안 통과
- 10.29 라틴아메리카 7국: 정상회담 후 '우루과이선언'서 미국에 외채경감을 촉구
- 11.15 아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 기구(PLO) 의장: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독립국가 창설을 선언
- 11.19 유고 최대 민족인 세르비아인 130만 명: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민족차별에 항의(유고사상 최대의 인종시위)
- 12.1 소련 최고회의: 선거법개정을 골자로 하는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안 승인
- 12.12 베트남 의회: 공산당간섭을 배제하는 자주화 선언
- 12.14 레이건 미국 대통령: 아라파트 PLO 의장의 중동평화안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말하고 미국은 PLO와 직접대화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1989년

- 1.11 국제화학무기금지회담(파리): 화학무기금지선언문 채택
- 1.12 아랍연맹 특별회의(튀니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랍국가들은 자체방어를 위해 화학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성명 발표
- 1.15 아·태평화개발회의(마닐라): 지역 내 핵무기해체와 미군기지철수를 촉구하는 '마닐라선언' 채택
- 1.15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유럽의 재래식군비감축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최종문서서 서명(빈)
- 1.17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유럽안보회의와 관련 동서 간의 '냉전'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고 말하고 세계협조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
- 2.11 소련 프라우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백러시아공화국 영토의 20% 이상이 오염돼 있다고 보도
- 2.14 미국: '악마의 시'와 관련, 對이란 외교관계 동결
- 3.2 유고 코소보 자치주를 진원지로 한 대규모 유혈민족분규 발생
- 3.3 페레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국내 경제악화로 외채상환을 중지한다고 선언
- 3.6 티베트 승려들: 라사에서 독립을 요구하며 폭동(37 중국: 계엄령 선포)
- 3.7 이란: 영국작가 샬먼 루시디의 '악마의 시'에 대한 영국의 출판금지거부와 관련, 영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
- 3.9 폴란드 정부·자유노조: 자유선거에 의한 양원제국화와 대통령제채택에 합의
- 3.13 회교국 외무장관회의 개막(~16일): 아프간 임시정부 승인
- 3.15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정부주도 계획의 농업에서 소규모 자영농업으로 전환키로 하는 농업개혁정책 선언
- 3.26 소련: 인민대표회의의 대의원선출을 위한 직접투표 실시(보리스 옐친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민족세력 대거당선)
- 4.9 소련 그루지야공화국 군중: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
- 4.20 중국 민주화시위 전국으로 확산: 텐안먼광장에 10만여 군중 운집(4.27 50여만 시민·학생: 텐안먼 점거·시위; 5.20 베이징에 계엄령 선포)
- 4.25 소련: 그로미코 등 공산당 중앙위원 110명 축출(고르바초프체제 강화)
- 5.23 소련: 체코주둔 소련군 철수 시작
- 5.30 나토 정상회담(브뤼셀): 동구권 개혁지원 선언
- 6.3 베이징 계엄군: 텐안먼광장에 진입, 시위대에 발포(6.4 텐안먼시위 진압)
- 6.5 소련 타스통신: 우랄산맥에서 가스수송관 폭발로 열차끼리 충돌해 8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 6.6 프랑스: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동결한다고 발표
- 6.9 우노 일본 총리: 참의원에서 일본은 2차 대전의 침략국이라고 인정
- 6.14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소련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대규모 경제협력력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서독에 요청
- 6.24 중국: 당3기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총서기에 장쩌민 정치국원을 선출하는 등 당지도부 개편(자오쯔양 실각)
- 7.6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나토가 전술핵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회담참가에 동의한다면 소련은 유럽배치전술핵미사일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유럽의회(스트라스부르)에서 밝혀
- 7.15 서방7개선진국(G7) 정상들: 중국에 민주화운동 탄압중지를 촉구하고 동서관계·테러방지 및 인권문제 등 4개 주요의제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7.18 소련 그루지야공화국: 독립을 요구하는 아바하지아인들의 폭동으로 일부지역에 비상사태 선포
- 7.27 소련 최고회의: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공화국에 1990년부터 경제자치 허용키로
- 7.27 아라파트 PLO의장: 단계적 철수·총선실시·팔레스타인독립국가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단계 팔레스타인문제 해결방안 제시
- 8.1 캄보디아 평화회담(파리): 민주총선실시 및 외세개입중지방안 등 캄보디아의 항구적 평화정착방안을 마련키 위한 3개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
- 8.17 소련 공산당: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구성시킨 1922년의 연방협정을 수정하라는 발트연안 3국의 요구를 수락
- 8.19 헝가리 공산당: 혼합경제 및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스탈린주의와 결별을 촉구하고 당명을 변경키로 하는 탈공산주의 선언
- 9.5 소련 내무부: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에 속해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 관할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확대로 군병력 투입
- 9.7 비동맹운동: 반제·반서방노선에서 후퇴, 대결 아닌 협조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베오그라드선언 채택
- 9.8 폴란드: 서구식 시장경제의 실현과 脫蘇독립노선을 추구하고 있을 선언
- 9.23 미·소 외무장관회담: 소련은 전략무기감축과 우주무기협상과의 연계요구를 철저히하고, 화학무기억제 등 6개 현안 타결
- 9.25 부시 미국 대통령: 미국과 소련은 보유중인 화학무기 비축분의 80%씩 각각 폐기하자고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의
- 9.28 유고 슬로베니아 의회: 연방탈퇴권을 포함한 일련의 자결권수립을 위한 헌법개정안 의결
- 9.28 페렌치 카르파티 헝가리 국방장관: 동구권 동맹국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을 천명하고 있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소멸됐다고 밝혀
- 10.1 중국 덩샤오핑: 건국 40주년을 맞아 '4대기본원칙(사회주의국가건설, 공산당지도, 인민독재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주의)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혀
- 10.1 발트해연안 3개 공화국대표: 소련

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발트해 연안
국익원단 구성

10.17 소련 최고회의: 국민에게 '생산수
단'의 소유를 인정하고 농민에게 임차
농지의 상속을 허용하는 법안 가결

10.18 헝가리 의회: 공산당 1당독재를 종
식시키고 다당제 도입 · 대통령제도 ·
국호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
정안 채택

10.24 소련 최고회의: 인민대표대의원
전원을 지역구별로 직접 · 보통선거로
선출하고 각 공화국의 지도자들을 주
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하는 선
거제도 승인

10.27 바르샤바조약기구 외무장관회담
(바르샤바): 모든 나라의 주권과 외세
불간섭원칙을 존중한다고 선언(브레
즈네프독트린 폐기)

11.4 동베를린 시민들: 에곤 크렌츠 동
독 서기장정부의 퇴진과 정치개혁, 언
론자유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11.7 60개국 환경장관회의 개막(네덜란
드): 지구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
소 등 각종 가스방출을 안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 채택

11.7 유엔 안보리: 중미국경지역을 감
시하고 콘트라군의 니카라과 정부군
공격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미평화유
지군 창설을 승인

11.9 덩샤오핑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직 사임(장쩌민 총서기가 승계)

11.9 동독: 베를린장벽을 포함한 동독
의 모든 국경을 개방한다고 밝혀

11.14 헬무트 콜 서독 총리: 폴란드 방문
중 타데우스 마조비에츠키 총리와
의 공동선언문에서 유럽 내의 모든 국가
들의 영토보전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언

11.15 유엔총회: 미국과 소련이 냉전논
쟁종식을 위해 공동발의한 '평화와 안
보에 관한 결의안' 채택

11.15 레흐 바웬사 폴란드 자유노조 지
도자: 미국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동유럽에 대한 경제원조가 평화와 자
유를 위한 최상의 투자라고 말하고 서
방세계가 동구권에 대해 '신마셜플랜'
을 수립하라고 호소

11.20 체코 재야단체들: 민주화개혁운동
강화를 위해 반정부운동연합세력인
'시민포럼'을 결성하고 공산당 지도부
의 퇴진을 요구

11.20 유엔총회: 어린이의 도덕적 · 사회
적 · 법률적 ·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어
린이헌장' 채택

11.27 유럽경제공동체(EEC): 소련과 포
괄적 무역 · 경제협력협정 체결

11.27 소련 최고회의: 라트비아 · 에스토
니아 · 리투아니아에 독자적인 화폐발
행권을 부여하는 등 경제자치법 의결

11.28 헬무트 콜 서독 총리: 동서독이 재
통일을 향한 준비단계로 연방을 구성
하는 내용의 10개항 통독안 발표

11.29 체코 의회: 공산당의 권력독점 및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교육원
칙을 명시한 헌법조항의 철폐를 승인

12.4 부시 미국 대통령: 나토 정상회담에
서 미 · 소정상회담(몰타)의 결과를 설
명하면서 인권존중 속에 평화가 지속
되는 '새 유럽'과 '신대서양주의' 제창

12.14 동 · 서독: 새 국경개방시대를 계
기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교역확대 · 투자협력을 위한 공동경제
위원회를 설치기로 합의

12.15 파나마: 미국과의 '전쟁상태' 선언
(1220 미국: 파나마의 반미정권타도를
위해 2만여 병력 파병)

12.18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유럽
경제공동체(EEC), 동유럽경제상호원조
회의(COMECON), 유럽자유무역협회
(EFTA) 등 유럽 3개 무역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럽3각위원회' 창설을 제안

12.21 루마니아 내란상태로 시위대와 군
경간 시가전 벌어져(12.25 차우세스쿠
대통령 부부 도주하다 붙잡혀 특별군
사재판에서 사형선고 받고 처형됨)

12.21 동독 국경수비대: 독일분단의 상
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을 통한 동 · 서
베를린 간의 새 관문을 건설하기 위해
부근장벽에 대한 해체작업 개시

12.26 루마니아: 37인통치위원회를 구성
하고 의장에 이온 일리에스쿠 前 공산
당 서기 임명(루마니아에서 비공산당
인 국민기독농민당(NCPP) 창당)

1990년

1.1 하벨 체코 대통령: 2만여 명의 죄
수에 대해 40년 만에 대규모 사면령
내림

1.2 루마니아 정부: 공산당 정치국원
전원을 투옥하고 다당제 도입 · 사형제
폐지 등 일련의 개혁조치 선포

1.20 소련 타스통신: 아제르바이잔 내
전진압을 위한 소련군이 바쿠시를 장
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

2.2 데 클레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통령: 26년간 복역해 온 흑인민족지도
자 만델라를 석방한다고 발표

2.7 소련 공산당 중앙위: 공산당의 권
력독점을 보장한 헌법 제6조의 폐지
등 급진개혁안 채택

2.13 미 · 소 · 영 · 프랑스 · 동서독: 통
독과 관련된 안보문제를 관할할 '6개
국 통독기구' 설치에 합의

3.1 헝가리 의회: 대통령직선제 · 사립
학교설립허용 등을 골자로 한 헌법수
정안 승인

3.6 소련 최고회의: 70여년 만에 처음
으로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임금노동자
의 고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

3.15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인민대
회 비밀투표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에
피선

3.31 소련 사상 첫 야당인 신자유민주
당(LDPSU) 창당

4.5 동독 의회: 첫 민선의회 개원식에서
서독법을 근거로 한 통독에 합의

4.6 네팔 군중 20여만 명: 민주화를 요구
하며 시위(군경 발표로 150여 명 사망)

4.12 동독 연립정부: 서독과의 경제 ·
사회 · 문화 동시통합시한을 7월 1일로
결정

4.25 미 · 소: 화학무기비축량을 5천으로
제한하는 등의 화학무기감축에 합의

5.2 드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만델
라 아프리카민족회의 지도자와 백인
소수통치회담에서 인종차별정책종식
에 합의

5.5 독일통일을 위한 동 · 서독과 미
국 · 영국 · 소련 · 프랑스 간 '2+4' 회
담 개막

5.18 동 · 서독: 화폐 · 경제통합협정에
조인

5.21 남 · 북예멘: 예멘공화국 통일을
선언

6.4 베이징대 등 11개 대학생 3천여 명:
텐안먼사태 1주년을 맞아 현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며 각 대학서 시위

6.5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유
럽군축회담 진전을 위해 핵탄두 1천
500기 등을 감축기로 하는 새 군축계
획 발표(유럽안보협력회의)

6.7 바르샤바조약국 정상들: '더 이상

시대정신을 반영치 못하기 때문에' 이 기구를 재편기로 했다고 밝혀

6.13 소련 최고회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경제개혁안 승인

6.18 코스타리카·온두라스·니카라과·엘살바도르·과테말라 정상회담: 내전방지를 위해 '중미경제공동체'를 창설기로 합의

6.21 이란 IRNA통신: 북부지역 강진으로 3만5천여 명 사망·10만여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

6.26 EC회원국: 소련의 경제복구를 위해 150억 달러를 제공기로 합의

7.2 사우디 메카순례자 1천400여 명: 성지순례 중 터널을 지나다 질식사

7.6 나토 회원국 정상들: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 평화선언을 제의하는 등의 평화안에 합의

7.13 폴란드 하원: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골자로 한 입법안 승인

7.16 소련 우크라이나: 자국법이 연방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공화국 주권을 선언

8.2 이라크軍: 쿠웨이트 점령,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괴뢰정부 수립(미국; 이라크와 모든 통상거래를 중단하고 對 이라크자산 동결)

8.6 굴람 이샤크 칸 파키스탄 대통령: 부정부패·권력남용 등의 이유로 베나지르 부토 총리를 해임하고 국회 해산 후 비상사태 선포

8.11 중국 新華통신: 중국·일본·한국·북한은 베이징-평양-서울-도쿄를 잇는 새 항공노선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

8.25 유엔 안보리: 對이라크 경제제재를 위한 걸프지역에서의 무력사용을 인결의안 의결

8.30 부시 미국 대통령: 페르시아만주둔 미군방위군비를 한국·일본 등 우방에 분담 요구

8.31 동·서독: 통일조약 체결

9.12 '2+4'회담: 핵·화학무기생산금지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통일독일의 최종협정 체결

9.18 체니 미국 국방장관: 1991년부터 서독 등 10개국 150개소의 미군기지를 폐쇄한다고 밝혀

9.25 양상군 중국 국가주석: 타이완에 대해 '1국가·2체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촉구

9.26 체니 미국 국방장관: 동서진영 간의 군사력감축협정체결을 앞두고 서유럽주둔 미군 중 4만 명의 철수를 명령

10.1 소련 최고회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승인

10.1 유고 크로아티아공화국 내의 소수파 세르비아계주민: 공화국 내에서의 민족자치 선언

10.3 동·서독 통합(양독 총리; 동·서독의 통일과 독일의 출범 선포)

10.4 통일前 독일의회(하원) 개원

10.5 숲 독일의회: 동·서독과 미국·영국·소련·프랑스 간에 체결된(9.12, 모스크바) 독일의 주권회복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10.12 유럽의회: 한국·일본·미국·유럽공동체 12개 회원국이 공동출자한 동구재건개발은행(BERD) 창설을 승인

10.19 소련 최고회의: 소련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경제개혁안 승인

11.6 유럽공동체: 1995년까지 농업보조금 30% 삭감을 골자로 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안 채택

11.15 나토·바르샤바조약기구: 유럽 22개국의 재래식무기감축조약 원칙에 합의

11.17 소련 최고회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정치·경제난국 해결을 위한 비상대권 부여

11.21 소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들: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 채택

11.26 불가리아인 50만 명: 소피아를 비롯해 전국에서 안드레이 루카노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파업

11.30 유엔 안보리: 이라크가 1991.1.15까지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경우 對이라크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 채택

11.30 베네수엘라 등 남미 5개국 정상: 1991년 말까지 자유무역권을 형성키로 하는 협정 체결

12.1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해협터널 관통

12.10 미국·소련: 양국의 장거리전략핵미사일을 3분의 1씩 감축기로 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협상 개최(휴스턴)

12.14 유엔총회: 중동분쟁의 모든 국가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참가하는 국제중동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결의안 가결

1991년

1.3 미국 상원: 부시 대통령의 '페르시아만' 무력사용 승인요청 거부

1.3 미국 국무부: 이라크 외교관 등 75명 강제추방

1.5 회원국들: 코메콘 해체를 선언

1.17 걸프전쟁 발발(미군; 이라크 바그다드 공습)

1.22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통화개혁 단행

2.1 데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인종차별법 폐지 발표

2.22 미국: 이라크·소련의 평화안을 거부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철군조건 9개항 발표(미군; 이라크 영내로 진격)

2.26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쿠웨이트에서 철군명령 발표(미국; 전쟁계속을 선언)

2.28 부시 미국 대통령: 전투전면중지 선언, 對이라크휴전조건 5개항 제시(3.3 이라크; 다국적군과의 회담에서 휴전조건 수락)

4.30 리덩후이 타이완 총통: 중국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며 43년간의 '전시비상총동원시기'의 종식을 선포

5.14 영국·프랑스 해저터널 개통식

5.20 소련 최고회의: 자유로운 해외여행과 이민을 허용하는 법안 승인

6.1 미·소 외무장관: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CFE)감축협정에 합의

6.5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소련에 대한 서방의 경제지원을 촉구하고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할 경우 평화시대의 전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

6.14 미·소: 1990년 파리 유럽재래식 전력협정 비준을 위한 타협안 발표

6.17 고르바초프 대통령: 연방 내 9개 공화국 지도자와 새 연방조약 초안에 합의

6.20 남극조약협상국가: 남극대륙에서의 광물자원개발을 50년 간 금지키로 하는 최종타협안에 합의

6.28 소련 최고회의: 모든 기업을 민영화하는 법안 승인

7.13 중국 재해대책위원회: 최악의 홍수로 1천300명이 사망하고 8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혀

7.15 G7정상회담(런던): 소련에 대한 시장경제지원을 위한 3개 선언 채택

7.26 소련 공산당 중앙위, 마르크스-레닌주의 포기를 골자로 한 새 강령 승인

- 7.31 미·소 정상회담(모스크바): 전략 무기감축협정(START)에 서명
- 8.19 소련 군부(보수강경세력): 쿠데타로 고르바초프 대통령 실각(옐친 러시아 대통령; 쿠데타를 비난하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총파업 촉구)
- 8.21 소련 쿠데타 실패(최고회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복권 결의)
- 8.24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임하고 공산당 내 모든 자산을 국유화한다고 밝혀
- 8.29 소련 최고회의: 소련 전역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하고 최고회의해체를 선언하는 결의안 채택
- 9.2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및 10개 공화국 대통령: 연방인민대표회의에서 새 연방형태인 '주권국연방'안을 주창하고 7개항의 과도적 국가체제개혁안 제시
- 9.28 부시 미국 대통령: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상 및 해상발사 단계 리핵무기를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철수하겠다'는 핵무기감축계획 발표
- 10.6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감축선언과 관련, 모든 지상단계리핵의 폐기를 선언
- 10.10 소련 각 공화국들: 새로운 국가창설을 위한 신연방조약안의 초안 채택(국명 '자유주권공화국연방')
- 11.8 나토(NATO) 정상들: 유럽에서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강조하는 '평화와 협력에 관한 로마선언' '새로운 나토의 전략개념' '소련과 유고에 관한 특별성명' 등 4개 선언문 발표
- 12.4 소련 대외경제은행: 소련은 1991.12. 5부터 1993.1.1까지 외채에 대한 원금상환을 중지한다고 발표
- 12.4 EC 재무장관들: ①환율고정 ②유럽통화연구소설립 ③단일통화제도 도입의 3단계로 EC화폐·경제통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잠정합의
- 12.8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 슬라브계 공화국: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창설기로 합의
- 12.10 유럽공동체(EC) 정상들: EC를 보다 강화된 새 연합체성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로마조약개정안 채택에 합의
- 12.19 나토 외무장관들: 소련의 '독립국가연합'을 국가로 승인하고 소련에 대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기로 합의

- 12.24 옐친 러시아 대통령: 對유엔서한에서 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유엔 안보리 좌회 및 유엔산하기관의 의석을 러시아가 공식 인수했음을 통보
- 12.28 옐친 러시아 대통령: 국영집단농장제도를 폐지하고 토지사유화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포고령 발표

1992년

- 1.6 그루지아공화국 내전 종식(탈출했던 감사후르디아 대통령 체포)
- 1.15 유럽공동체: 유고의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를 독립국가로 승인
- 1.28 아세안 정상회담(싱가포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조기타결을 촉구하고 '싱가포르선언' 채택
- 1.30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독립국가연합(CIS) 중 러시아를 제외한 10개국의 가입을 승인
- 2.1 부시 미국 대통령: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우호를 위한 새로운 관계에 관한 6개항의 '캠프데이비드선언' 발표(워싱턴)
- 2.7 유럽공동체: 유럽경제·통화동맹(EMU)과 정치통합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동맹'창설조약 조인
- 2.21 유엔 안보리: 유고에 1만4천 명의 유엔보호군(UNPROFOR)을 파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 3.24 나토·바르샤바조약기구 외무장관들: 소유연안보협력회의(CSCE)회의에서 '상호공명사찰'조약에 조인
- 5.3 EC·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세계 최대 공동시장(EEA)을 창설하기 위한 협정에 조인
- 5.13 프랑스 국민의회: EC의 정치·경제통합을 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헌법수정안 가결
- 5.15 독립국가연합(CIS) 정상들: 나토형 군사동맹을 목표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조약 등 13개 문서에 조인
- 6.14 유엔환경개발회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산림에 관한 원칙성명', 행동계획 어젠다 채택
- 6.27 EC 정상들: '유럽정치·통화통합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 및 사회·경제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議長總擘을 채택(마스트리히트)
- 7.1 나토·바르샤바조약기구: 유럽 내 재래식병력(CFE)을 감축기로 합의
- 7.2 부시 미국 대통령: 미국은 전 세계

- 에 배치된 모든 지상 및 해상배치 전술핵무기 2천400기에 대한 철수를 완료했다고 발표
- 7.13 부시 미국 대통령: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미국은 무기용 플루토늄생산을 중지한다고 발표
- 7.17 슬로바키아 의회: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하기 위한 주권선언 채택
- 8.7 제네바군축회의: 화학무기금지협정 최종안에 합의
- 8.12 부시 미국 대통령: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타결을 선언
- 9.20 유엔 안보리: 신유고연방(세르비아·몬테네그로)을 유엔총회에서 축출할 것을 건의하는 결의안 승인
- 10.7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조인
- 10.28 유럽의회: 1993년 발표되는 유럽경제지역(EEA)협정 비준
- 11.2 옐친 러시아 대통령: 인종분류가 계속되고 있는 그루지아접경 북오세티아와 잉구세티아에 1개월간의 비상사태 선포
- 11.9 유럽재래식병력감축협정(CFE) 발표
- 12.3 유엔 안보리: 對소말리아 군사개입결의안 채택
- 12.17 EC 회원국들: 역내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및 농산물교역에 대한 보조금중단 등 농산물시장단일화방안에 합의
- 12.29 미국·러시아: 전략핵무기를 현재의 3분의 1로 감축기로 하는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 타결

1993년

- 1.3 부시 미국 대통령·옐친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에 조인
- 1.13 미국·서방측: 걸프전 휴전협정에 대한 이라크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對이라크공격을 개시
- 1.20 세르비아계: 보스니아를 10개 자치주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안 가결
- 3.7 아프간 9개 반군지도자: 내전종식을 위한 평화안에 합의
- 3.21 옐친 러시아 대통령: 비상통치를 선언하고 의회권한을 정치(4.25 국민투표실시 선언)

3.25 러시아: 모든 대외채무상환을 6개월 간 중지키로 했다고 밝혀

4.15 서방선진7개국(G7): 정치적 곤경에 처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434억 달러의 對러시아원조계획 발표

5.2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 국제평화협상(아테네)에서 유엔평화안에 서명(장기내전해결의 전기 마련)

5.25 세라노 과테말라 대통령: 파업과 시위가 가열되자 의회와 최고재판소 등 국가통치기관의 해산을 선언

6.16 러시아 제헌회의: 토지사유·양원제 채택

6.26 러시아·우크라이나: 흑해함대 분할협정에 합의

7.2 우크라이나 의회: 자국영토에 남아있는 舊소련핵무기에 대해 소유권 선언

7.24 러시아 중앙은행: 1993년 이전에 발행된 지폐의 통용을 중단한다는 화폐개혁조치 발표

8.12 중국 인민일보: 중국정부는 국영기업의 3분의 1을 1995년까지 독립채산제의 회사로 전환키로 했다고 보도

9.1 에스핀 미국 국방장관: 한반도 및 걸프 두 지역에서 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경우 4단계 작전으로 이를 승리로 이끈다는 '2개 전쟁 동시승리(win-win)전략'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혀

9.2 미국·러시아: 양국 간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우주·에너지부문에서 합작사업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수출을 통제하게 될 협정 체결

9.23 옐친 러시아 대통령: 1994년 6월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최고회의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는 대통령령 발표(최고회의, 인민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옐친의 해임을 결정하고 루츠코이 부통령을 새 대통령에 임명)

10.3 러시아 反옐친시위대의사당을 포위하고 있는 경찰저지선을 뚫고 모스크바 시청사 점령(옐친 대통령: 유혈시위사태와 관련, 모스크바에 비상사태 선포)

10.13 일본·러시아 정상: 공동성명(도쿄)에서 '도쿄선언'과 '경제선언'을 발표하고 16개의 협정과 각서 교환

10.19 클린턴 미국 대통령: 가속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대책' 발표(2000년까지 오염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억제)

10.25 우크라이나: 舊소련의 핵무기 중 4분의 1을 보유 중인 핵미사일탄두를 모두 해체한다는 내용의 '안전해체보장협정'을 미국과 체결

11.1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11.12 런던협약서명국들: 방사능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영구히 금지토록 하는 결의안 채택

11.17 미국 하원: 미국·캐나다·멕시코를 단일자유무역경제권으로 묶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법안 승인

11.20亞太경제협력체(APEC) 정상들: 아태지역의 경제적 통일과 개방적 시장경제체제 실현을 다짐하는 'APEC지도자경제비전성명' 채택

12.2 남아공: 정권을 300년 만에 소수 백인으로부터 다수흑인에게 이양하게 될 헌법안의 최종안 합의(12.7 남아공 다인종과도행정부위원회 출범; 342년간의 백인통치 사실상 종식)

12.9 EC지도자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EC·러시아 간 경제 및 정치협력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공동정치선언' 채택

12.13 EC: 유럽경제지역(EEC)을 창출하는 협정 비준(1994.11 발족)

12.15 영국·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

12.22 남아공 의회: 신헌법안 승인(3세기 이상 지속된 백인 지배체제에 종지부)

12.30 이스라엘·로마교황청 공식외교관계 수립

1994년

1.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공식 출범

1.3 베네수엘라 사바네타 교도소 죄수들 유혈충돌·방화로 최소 100여명 사망

1.8 호주: 시드니 근교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28명 사망

1.8 러시아: 우주개발계획의 중요성을 가능하게 될 소유스 우주선을 바이코누르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1.13 미국·러시아 정상회담(모스크바): 전략미사일의 상호 겨냥을 배제하며 舊소련에 배치돼 있는 핵무기를 해체키로 합의하고 미국은 러시아 개혁정책에 9억 달러 원조 약속

1.14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들: 우크라이나 보유 핵탄두 1천800개를 완전철거하는 협정에 조인

1.16 스칼파로 이탈리아 대통령: 부패 스캔들로 곤경에 빠진 의회를 해산

1.17 LA에 진도 6.6의 지진 강타(市전역에 비상사태 선포)

1.19 세르비아계가 주도하는 신유고연방과 크로아티아: 2년 반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협정에 조인

1.27 미국 상원: 對베트남 무역제재조치 해제안 가결(20여 년간의 적대관계 청산)

1.30 이스라엘·PLO: 요르단 내 예리코 등 이스라엘 점령지구로부터 이스라엘군의 철수에 관한 최종 조건에 합의

2.4 클린턴 미국 대통령: 19년 만에 베트남금수 해제(상호연락사무소 설치, 외교정상화는 유보)

2.25 군복유태인: 사원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에 무차별 난사, 63명 사망·270명 부상

3.21 석유·석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 발효

3.2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회교계와 크로아티아계: 연방국가창설을 위한 첫단계조치로 제한의회 개최

4.1 이탈리아 검찰: 로마지하철건설과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베티노 크락시前 총리와 최대 민간기업인 피아트社 최고경영자 2명 등 6명 기소

4.10 우크라이나軍 특공대: 크림반도 오데사항에 있는 흑해함대기지를 급습·점거하고 러시아장교들을 체포하는 등 흑해함대관할권을 놓고 충돌사태 빚어

4.15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위원회 각료회의 대표들: UR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을 담은 최종 의정서에 서명·폐막

4.26 타이베이發 중화항공기가 일본 나고야공항에 착륙 중 폭발, 262명 사망

4.26 남아공: 342년의 백인통치와 흑백인종차별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최초의 다인종총선에 돌입(5.2 넬슨 만델라: 남아공 최초의 흑인대통령으로 선출)

5.5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는 핵역지력인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국의 전력 밝혀

5.6 영국·프랑스 해저유로터널 개통

- 5.13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의 중심지 예리코市를 팔레스타인 경찰에 이양(27년 간의 점령통치 마감)
- 5.21 北예멘·南예멘: 통일예멘으로부터 분리를 선언(1990.5. 통합된지 4년 만에 분단)
- 5.23 독일 연방의회: 바이츠체커 대통령 후임에 기민당의 로만 헤르초크 후보를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
- 6.4 미국·러시아·영국·중국·프랑스 등 9개국: 미국과 러시아의 해체된 핵무기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비롯, 잉여 플루토늄의 관리일원화를 위한 신체제 구축 합의
- 6.24 유럽연합(EU)·러시아: 양자간 정치·무역분야의 협력을 위한 동반협력협정에 서명
- 7.9 유럽연합(EU):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연안 3국과 자유무역협정 서명
- 7.21 토니 블레어: 영국 제야당인 노동당 당수에 당선
- 7.24 멕시코 등 20여 중미국가와 카리브해 연안국가들: 자유무역연합창설에 서명
- 7.25 이스라엘·요르단 정상들: 46년간 지속된 적대관계청산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에 서명
- 8.19 클린턴 미국 대통령: 쿠바 구조난민을 모두 쿠바 남단 해군기지에 억류키로 결정하고 卍방위군에 대기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책 발표
- 8.22 아르헨티나 의회: 대통령직선과 임기단축, 포클랜드섬에 대한 주권선언 등을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안 가결
- 8.31 아일랜드공화군: 9월 1일을 기해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전면휴전에 들어간다고 선언
- 9.13 이스라엘 외무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평화체제촉진을 다짐하는 '오슬로 선언' 채택 발표
- 9.20 국제원자력기구 20여 개국: 전 세계 430개의 민수용 핵발전소에 적용되는 핵안전도개선을 위한 실험약에 서명
- 9.28 승객과 승무원 1천54명을 태운 에스토니아 선적 여객선 핀란드 발트해 부근 해상에서 침몰, 실종·사망 838명
- 10.4 러시아 소юз TM20 우주선: 카자흐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독일인과 러시아인 등 3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
- 10.4 미국·중국: 일정사거리 이상의 중국미사일의 대외판매를 금지시키는 핵확산금지에 대한 협정에 조인(對中 경제제재 철폐)
- 10.13 북아일랜드 신교도 무장조직들: 구교도와 아일랜드공화군(RA)에 대한 휴전선언 발표(25년에 걸친 북아일랜드의 유혈사태 종식 전망)
- 10.17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군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
- 11.8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참패, 공화당 압승(40년 만에 양원 장악)
- 11.11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자카르타): 회원국 간 문호개방확대, 기술인력·정보교환에 합의
- 12.11 美 34개국 정상들: 汎美洲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 12.17 브라질·우루과이·파라과이·아르헨티나 대통령: 1995.1.1부터 역내관세완전철폐 서명
- 12.30 미국·EU·캐나다: 1995.1.1자로 WTO출범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혀

1995년

- 1.2 멕시코: 폐소화 평가절하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비상경제조치 단행
- 1.17 일본 고베지역을 중심으로 한 긴키지역에 대규모 지진(5천243명 사망)
- 1.20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 '국제범죄와의 전쟁'을 선언(마약밀매·테러리즘 대처 발표)
- 1.26 국제통화기금(IMF): 멕시코에 77억 6천만 달러 차관제공을 승인
- 1.31 세계무역기구(WTO) 창립총회
- 2.3 미국: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최초의 여성 우주선 조종사 탑승)
- 2.8 러시아 탄광광원 50만 명: 체불임금 및 정부보조금지급을 요구하며 전국적 파업에 돌입
- 2.12 이스라엘·PLO·요르단·이집트·미국: 테러행위대처 등 4개항의 '중동평화안' 합의
- 2.22 영국·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영구평화구축을 위한 기구구성 등 평화안 발표
- 3.3 미군 검열단: 1단계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처음으로 러시아의 핵미사일기지를 기습검열
- 3.6 유럽연합(EU): 20년 이상 끌었던 터키와의 관세동맹결정에 합의
- 3.14 러시아: 소юз TM20우주선 발사(16일 우주정거장 미르號와의 도킹에 성공)
- 3.20 일본 경찰: 도쿄지하철 내 등 18개 역구내와 객차에 사린독가스가 살포돼 4천695명이 중독되고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혀
- 3.20 유럽연합(EU)·러시아 등 52개국: 인종분규종식을 위해 '유럽안정협정'(파리) 채택
- 4.5 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 메콩강유역 수자원공동개발·보존협정 체결
- 4.19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건물 차량폭탄테러사건으로 240여명 사망·실종
- 5.15 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지중해 안전확보를 위해 南유럽 합동군 창설
- 5.23 미국 하원: 대통령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외교정책안·대외원조삭감안 의결(클린턴: 거부권행사 밝혀)
- 5.28 러시아 사할린섬 북부에 강진으로 3천200명 매몰, 사망자 2천500여명
- 6.3 나토·유럽연합(EU): 보스니아 주둔 유엔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해 5천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키로 합의
- 6.23 호주: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재개키로 한 프랑스측의 결정에 대한 항의로 프랑스주재 자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보복조치 발표
- 6.26 카타르 QNA통신: 하마드 알타니 국왕이 그의 아들 칼리파 알타니 왕자에게 축출 당했다고 보도
- 7.25 유엔 舊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와 라트코 밀라디치 사령관을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
- 7.28 세계무역기구(WTO): 은행 등 금융분야 시장개방을 위한 협정 승인
- 8.5 미국·베트남: 외교관계 공식수립
- 8.18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1997년까지 공산품 역내무역을 자유화하는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합의
- 9.26 보스니아·크로아티아·유고연방: 미국이 중재한 회담에서 공동대통령 선출 및 의회·사법부구성을 비롯한 헌법원칙에 합의하고 민주선거를 실시키로 합의

- 10.28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의 지하철 화재로 340여 명 사망
- 10.29 세계 60여 개국 지도자·기업가들: 중동지역경제를 재건하고 역내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해외자본투자를 촉진키 위한 정상회담 개최
- 11.31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투즈만 크로아티아 대통령: 舊유고지역 내전종식을 위해 東슬라보니아를 둘러싼 분쟁에 개입해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합의
- 11.4 라빈 이스라엘 총리: 텔아비브 평화협상 지지시위 참석 중 유대인 극단주의자의 총격에 피살
- 11.19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일본):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이행을 위한 보고르선언에 대한 행동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오사카선언을 통해 발표
- 12.3 클린턴 미국 대통령: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스페인) 무역과 평화유지 및 범죄퇴치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협정 체결
- 12.6 독일 연방의회: 나토의 보스니아 평화유지군활동에 참여키 위한 병력 파견을 승인
- 12.14 세르비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 등 보스니아내전 당사국 대표자들: 보스니아 내전종식을 위한 평화협정(데이턴협정)에 정식조인

1996년

- 1.7 일본: 중국과 훈련함대의 상호방문을 추진하는 등 안보교류를 확대키로 합의
- 1.8 불가리아: 1천63개 국영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조치 단행
- 1.11 베트남·중국: 1979년 중·베트남 국경전쟁 이후 중단된 양국 간의 철도운행을 재개키로 합의
- 1.15 러시아군: 전폭기와 헬기, 중화기를 동원해 페르보마이스카아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체첸반군들에 전면 공격
- 1.21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 자치총선에서 초대 대통령에 당선
- 1.30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핵실험종결 선언
- 1.30 그리스·터키 간 에게해 무인도 '이미아'섬에 '국기전쟁'인 영유권분쟁 발생(1.31 미국의 중재로 에게해에서 병력을 철수)

- 2.1 러시아·우크라이나 광원 100만 명: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 2.2 알바니아 검찰: 라미즈 알리아 前 대통령이 대량학살·살인·강제추방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
- 2.8 유럽회의 각료회의: 러시아를 3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로 결정
- 2.20 일본 정부: 유엔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과 관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전면설정을 공식결정
- 2.23 러시아 우주관계소: 러시아 소유 스텐TM-23 우주선이 우주정거장 미르호와의 도킹에 성공했다고 밝혀
- 3.13 29개국 반테러정상회담: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안보강화, 중동평화협상 진전 등을 촉구한 공동성명 발표
- 3.20 보스니아 회교 크로아티아연방과 세르비아계 공화국 간의 국경선 발효(데이턴 평화협정에 따른 보스니아의 분할이 공식실현)
- 3.23 방글라데시 군중 200만 명: 인권을 사수를 형성해 반정부시위 벌여
- 4.4 아르헨티나 교도소 폭동사태 전국으로 확산(전국 17개 교도소에서 1만3천여 명 가담)
- 4.17 클린턴 미국 대통령: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쿄)에서 미·일 안보체제강화와 유사시 일본의 미군후방지원확대 등 아·태지역의 안보협력강화에 합의
- 4.20 선진7개국(G7):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제로옵션'원칙에 합의
- 4.24 열친 러시아 대통령: 장쩌민 주석과의 정상회담(베이징)에서 모스크바-베이징 '하이라인'개설에 관한 협정 등 14개 협정에 서명
- 4.26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8천km 국경의 비무장화에 관한 역사적인 지역안보조약에 서명(접경 100km내 무장병력을 철수키로)
- 5.16 열친 러시아 대통령: 2000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를 도입키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 6.3 나토 외무장관들: 탈냉전시대 이후의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신방위전략 승인
- 6.28 터키 회교정당 복지당: 보수파 정당인 정도당과 연정에 합의(공화정 사상 최초의 회교정부 출범)

- 6.30 몽골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연맹이 집권 몽골인민혁명당에 압승(75년 간의 공산주의통치 종식)
- 7.3 열친: 러시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서 주가노프 공산당수를 누르고 승리
- 8.6 클린턴 미국 대통령: 이란과 리비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
- 9.2 필리핀 정부: 회교반군세력과 24년간 지속돼온 회교분쟁을 종식시킬 평화협정에 서명
- 9.4 제10차 리우그룹(중남미·카리브 국가) 정상회담: 미국의 쿠바제재법을 거부하고 불법마약거래와 빈곤추방을 위한 선언문 채택
- 9.10 유엔 총회: 모든 형태의 핵실험금지를 목표로 한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안 가결
- 10.4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국민국들에 대한 획기적인 부채감면계획을 승인하고 범세계차원의 부패척결방안 논의
- 10.4 바나 포아 유엔 대변인: 핵군축을 향한 역사적인 전기로 평가되고 있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에 5대 핵무기보유국 등 111개국에서 서명했다고 밝혀
- 10.15 우루과이 의회: 대통령직선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의결
- 10.25 이고르 로디오노프 러시아 국방장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통제불능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
- 10.30 스위스: 나토의 평화제휴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발표(건국 이래 고수해왔던 고립주의에서 탈피)
- 11.9 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평화유지활동을 책임지게 될 다국적유럽군 창설
- 11.12 유엔총회: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11.17 유엔세계식량정상회담: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로마선언'과 7개항 행동계획 채택
- 11.22 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마닐라):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마닐라실행계획(MAPA) 채택
- 11.26 유럽·지중해 연안 27개국: 수자원보호를 위한 14개항 선언서 발표(마르세이유)

- 11.30 보스니아의 3인공동 대통령: 전후 최초의 정부구성에 대한 2개월여 논란 끝에 새 내각구성에 최종 합의
- 12.4 유엔총회: 이스라엘에 대해 현재의 예루살렘통치가 불법이라고 비난 하면서 골란고원 철수를 촉구하는 2개 결의안 채택
- 12.4 불가리아 40만 근로자들: 안 비데노프 사회당 정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전국적 파업 벌여
- 12.7 미국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최장 우주체류기록(17일 15시간 53분)을 경신하고 케네디 우주센터로 귀환
- 12.12 유엔 안보리: 보스니아내전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스니아평화이행군(IFOR)을 다국적평화안정군(SFOR)으로 명칭을 바꿔 18개월간 보스니아에 주둔시키기로 결정
- 12.16 옹당청 싱가포르 대통령: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의회를 해산한다고 발표
- 12.17 유엔총회: 새 유엔사무총장에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 사무차장 선출
- 12.17 페루 경찰: 좌익반군들이 수도 리마의 일본대사관저에 침입, 다수의 외교관과 페루 각료들을 인질로 잡고 대치 중이라고 밝혀
- 12.30 인도 경찰: 아삼주에서 1천2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급행열차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한 3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혀
- 12.31 베오그라드 시민 20여만 명: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에게 야당의 지방선거 승리인정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

1997년

- 1.1 수십만 명의 세르비아인들: 세르비아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 1.3 캘리포니아주내 26개 카운티를 비롯해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네바다주, 아이다호주 등에서 약 50개 카운티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됨
- 1.13 수단: 에티오피아군이 동부국경에서 군사도발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 동원령 선포
- 1.18 불가리아 야당·시민들: 3월 조기 총선실시와 의회의 즉각 해산을 요구

- 1.20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검찰의 독립과 무죄추정원칙의 강화, 사법제도 및 서비스의 현대화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발표
- 1.20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집권2기 취임
- 1.26 알바니아 의회: 피라미드식 저축 관련 시위에 대해 베리사 대통령에게 시위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상권한 부여
- 2.6 에콰도르 의회: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을 '정신적·육체적 무능'을 이유로 전격탄핵하고 파비안 알라르콘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에 임명
- 2.19 사이드 고바시 아랍에미리트연합 경제장관: 아랍경제장관들은 1998.1.1을 기해 아랍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합의했다고 밝혀
- 3.19 이탈리아 정부: 알바니아 난민이 쇄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위험인물 292명을 강제송환
- 3.28 유엔 안보리: 무장소요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알바니아에 질서회복을 위한 다국적군파견 결의안 승인
- 4.2 러시아·벨로루시: 양국 합병조약에 조인
- 4.2 폴란드 의회: 1989년 공산체제붕괴 이후 처음으로 제정된 새 헌법안 승인
- 4.4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 20개국: 인간유전공학 및 복제에 대한 연구를 통제하는 '인권·생물의학협정'에 서명
- 4.11 알골라 좌파정부·반군세력: 20여년의 내전에 종지부를 찍는 단일거국 정부 출범시켜
- 4.21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실시 발표
- 4.30 제53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방콕): 지역경제협력 및 환경과 개발의 조화, 사회기반시설 개발, 기술혁신, 빈곤경감, 인적자원개발 등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
- 5.1 영국 노동당 총선에서 승리(신임 총리에 토니 블레어 당수 임명)
- 5.25 러시아: "러시아 지도부는 독립국가연합(OS) 국가들이 침범을 당할 경우 약속된 집단안보체제가 즉각 발효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혀
- 6.7 영국·프랑스 등 유럽 사회주의국가 정상들: 유럽의 개혁을 추진하고 유

- 럽단일통화체도를 예정대로 1999.1.부터 시행키로 다짐하는 선언문 채택
- 6.27 대인지료금지국제회의: 대인지료의 생산·사용·수출을 전면금지하고 각국이 비축 중인 물량도 점차 폐기하며 이를 감시할 국제기구도 창설토록 촉구하는 선언문 채택(캐나다)
- 7.9 나토 회원국 정상들: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舊소련권 동유럽 3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일기로 최종 합의
- 9.19 아시아·유럽지역 재무장관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환시장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금융감독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방콕)
- 10.3 국제원자력기구 총회(빈): 이라크에 대해 핵사찰이행 및 핵무기관련 정보의 인도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10.11 유럽회의의 정상회담: 유럽 인권법원설치 및 인간복제금지, 전 세계적 사형금지, 유럽대륙의 안보개선 등을 다짐하는 선언(프랑스)에 합의
- 10.25 英연방 54개국 정상들: 회원국의 공동번영과 평등을 목표로 무역, 투자, 개발, 환경 등에서 공동원칙을 추구하고 다짐하는 경제선언 '에든버러선언' 발표
- 11.10 중국·러시아: 17세기부터 계속돼 온 양국 간 국경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경확정협정에 서명(베이징)
- 11.25 아·태경제협력체 정상들: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유럽연합 국가들을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체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선언문 채택
- 12.13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시장개방을 위한 세계금융서비스자유화협정 타결

1998년

- 1.1 아랍연맹 역내공동시장창설을 위한 자유무역지대화계획 발표
- 1.14 세계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인 남극대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 발효(채광과 석유시추 등 이 지역의 환경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앞으로 최소한 50년 동안 금지)
- 2.13 호주 헌법회의: 210년 동안 지속돼 온 영국과의 관계를 끊고 2001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헌군주제를 공화정으로 전환키로 하는 변경안 의결

- 3.2 유엔 안보리: 이라크가 유엔무기 사찰합의를 위반할 경우 '가장 가혹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결의안 채택
- 3.13 미국 상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국제전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유엔재판소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4.3 유엔 인권위원회: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4.4 한국·미국·영국 등 세계 100여 개 국가들: 종족학살, 반인류범죄, 전범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창설기로 합의
- 4.10 북아일랜드 신·구교도 간 피의 분쟁을 청산하고 공존공영의 출발점이 될 역사적인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타결
- 4.19 미주 34개국 정상들: 남·북미를 묶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2005년까지 창설기로 하는 '산티아고 선언' 채택
- 5.21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힘'에 굴복, 사임하고 정부를 바차루딘 주수프 하비비 부통령에게 이양
- 6.8 유럽연합(EU): 세르비아 코소보주 알바니아계 주민 무력진압에 대한 보복으로 세르비아에 대한 EU국가들의 신규투자를 전면금지하고 세르비아의 해외자산을 동결기로 했다고 발표
- 6.10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신유교연방이 코소보주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독립노선을 유혈탄압하고 있는데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내 자산동결 및 신규투자 전면금지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
- 7.12 러시아·국제통화기금(IMF): 러시아 금융체제붕괴를 막기 위한 대규모 구제금융(100억 달러 규모)조건에 합의
- 8.8 옐친 러시아 대통령: 정부재정 및 업체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6개 석유회사의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
- 8.17 러시아 정부: 루블화표시 외채에 대해 90일간 모라토리엄 선언
- 9.25 나토: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를 1999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의 기구확대계획에 합의
- 10.7 미국: 일본에 대해 통신·금융서비스·의약·에너지·자동차 부문의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270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10.9 코언 미국 국방장관: 이라크가 군축에 관한 유엔의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있다고 경고
- 10.26 페루·에라도르: 3차례 전쟁을 유발한 60년에 걸친 국경분쟁을 종식시켜
- 10.30 서방선진7개국(G7): 세계경제위기를 방지하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적 세계금융체제 강화방안 발표 (900억달러의 IMF구제금융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
- 11.7 러시아 시민 27만 명: 볼셰비키혁명 87주년을 맞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며 가두시위 벌여
- 11.17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콜롬비아 대통령: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한부 비상사태 선포
- 12.11 인도 노동자·농민 등 수천만 명: 정부의 국영기업 근로자 대규모 감원 조치에 항의하며 총파업 단행
- 12.19 미국 하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과 관련, 탄핵사유 4개항 중 연방대 배심위증과 사법방해 등 2개항의 탄핵결의안 가결(위증관련·사법방해관련)

1999년

- 1.1 유럽연합(EU):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11개국 단일통화인 '유로' 도입
- 1.9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자산규모로 러시아 10대 은행 중 5개 은행이 실질적으로 지급불능의 부실은행이라고 보도
- 1.18 프랑스 의회: 주권의 일부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이양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가결
- 1.27 미국 상원: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안 부결
- 2.2 영국 하원: 세습귀족의 상원의원 자동취득권 및 투표권을 박탈하는 급진적인 상원개혁안 가결
- 2.10 유엔 안보리: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에 전투행위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교전당사국들에 즉각적인 공습 중지"를 촉구
- 2.12 러시아 하원 대통령탄핵특별위원회: 약 8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옐친에 대한 5개항의 탄핵안 확정
- 2.12 미국 상원: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위증 및 사법방해 등 2개항의 탄핵사유 부결

- 2.16 프랑스 하원: 공직참여상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가결(3.4 상원도 가결)
- 3.1 대인지뢰의 제조금지와 보유제한 등을 규정한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오타와조약) 발효
- 3.12 폴란드·헝가리·체코: 나토에 공식가입
- 3.15 중국 전인대: 사유재산보장, 개체경제 및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 지위 격상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의결
- 3.24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담(베를린):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에게 국제평화안 수용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성 공동성명 발표
- 3.26 유럽연합(EU) 정상들: 베를린 협상에서 2000~2006년의 7년간 EU재정체제를 새로 마련하기 위한 '어젠다 2000'에 합의
- 4.9 니제르 군부쿠데타 발생(이브라힘 바레 마이나라사라 대통령 피살)
- 4.19 중국 신화통신: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해 유럽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일부구간을 개통했다고 보도
- 5.21 독일 상원: 혈통주의 국적법을 86년 만에 개정하는 법안 승인
- 6.3 아르헨티나·칠레 의회: 100년 이상 두 나라 간에 계속돼 온 국경분쟁을 마감하는 국경조약 비준
- 6.10 유엔 안보리: 유고연방 코소보주의 평화회복을 위해 나토 주도 하의 국제평화유지군을 즉각 배치토록 허용하는 코소보결의안 가결
- 7.6 카리브연안국 정상들: 2000년 6월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공동시장을 구성기로 합의
- 8.12 베네수엘라 헌법회의: 부패한 공권력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회·기타 기관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
- 8.19 베오그라드 시위대 15만 명: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반정부시위 벌여
- 9.9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들: 2001년까지 '아프리카연합(AU)'창설을 골자로 하는 '시르테선언' 채택
- 10.15 무사라프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무혈쿠데타로 전권장악 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권을 장악하는 등 사실상의 계엄통치를 선언

- 10.26 영국 상원 800년 전통을 지닌 세습 귀족의 상원의원직 자동취득 및 투표권을 박탈하는 급진적인 개혁안 가결
- 11.5 유엔 총회: 미국에서 추진 중인 전역미사일방위(TMD)구상을 저지하기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승인
- 11.16 제9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들: 쿠바의 민주화와 인권상황개선, 미국의 對쿠바경제봉쇄해제, 신국제금융체제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바나선언' 채택
- 11.19 미국·유럽·러시아: 역사적 유럽군축조약에 서명하고 21세기 유럽평화체제구축의 골격이 될 평화헌장 채택(이스탄불)
- 11.30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유럽방위군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럽방위체제구축을 위한 협정 초안에 합의
- 12.2 영국·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을 공식인정하고 1998년 체결된 켈트요일 평화협정을 확인하는 조약에 서명
- 12.6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 EU 독자군을 양성하고 이 독자군을 분쟁발발지역에 나토군 지원 없이 신속 배치키로 합의

2000년

- 1.6 캄보디아 정부: 대량학살혐의를 받고 있는 크메르 루주 지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재판계획법안 승인
- 1.10 미국 유전자연구회사 셀레라 제노믹스사:自社연구팀이 인체게놈지도 90%를 해독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인간유전자의 97%가 규명됐다고 밝혀
- 1.2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직 무대행: 세계경제교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줄어들고 국내경제가 침체된 데 대해 국가주도의 개혁을 촉구
- 1.23 스페인 시민·노조원·정치인 100여만 명: 수도 마드리드에서 바스크분리주의단체의 공격행위재개를 규탄하며 테러종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위
- 1.26 독일 정부: 나치 강제노역피해자 배상금으로 100억 마르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승인

- 4.6 짐바브웨 의회: 백인소유의 토지를 정부가 특별한 보상없이 몰수하는 법안 의결
- 4.6 미국 유전자연구회사 셀레라 제노믹스: 인간을 형성하는 DNA 속의 화학물질인 염기의 서열구조를 완전히 해독, 인간생명의 비밀을 풀기 위한 인간게놈지도작성에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발표
- 4.2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 나토의 잠재적 위협과 이슬람권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에 관한 크렘린의 권한확대를 골자로 하는 러시아 새 군사독트린에 서명
- 4.29 미국 정부관리들: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은 크메르 루주 지도자들을 학살혐의와 관련, 재판하는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혀
- 5.3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백인소유농지의 절반을 몰수, 수십만 명의 땅없는 흑인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
- 6.30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세계영향력을 복원시키고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다극화된 세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외교독트린을 승인했다고 보도
- 7.23 서방선진 8개국(G8) 정상들: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비정부조직(NGO) 등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개혁이 불가결하다"는 등의 '오키나와 2000' 공동선언 채택
- 9.1 남미 12개국 정상들: 2010년까지 남미대륙을 국가 간 연합체로 완전한 물리적 통합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2002년까지 역내경제를 통합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합의
- 10.4 유고 시민·야당: 대규모 시위 끝에 의사당·국영방송 등 점령(야당연합의 대통령선거 후보 보이슬라브 코스투니차는 국영방송에 출연해 정권인수와 새 시대의 출범을 선언)
- 11.1 민주주의국가로 새로 출범한 유고: 유엔에 가입(슬로보단 밀로셰비치前 대통령 시절 유엔무대에서 추방된 지 8년 만에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새 장을 열어)

- 11.26 미국 플로리다주 선관위: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결정할 플로리다주의 최종 개표결과 조지 부시 공화당후보가 앨 고어 민주당후보에 승리했다고 발표
- 12.12 미국 연방대법원: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수작업 재개표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환송(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대통령당선이 사실상 확정)
- 12.19 유엔 안보: 아프간 탈레반 집권세력이 테러 배후세력인 오사마 빈 라덴을 인도하고 테러리스트 훈련장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폭넓은 새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2001년

- 1.2 캄보디아 민족회의: 1970년대 170여만 명을 학살한 '킬링필드' 주역들에 대한 재판법 승인
- 1.14 아시아·유럽회의(ASEM) 재무장관들: 아시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경제·통화분야의 지역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의장서명 채택(일본 고베)
- 1.23 오스트리아 각의: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중립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하고 '안보정책협력'과 나토가입을 권고하는 안보독트린 승인
- 2.11 미국·영국 등 6개국 국제컨소시엄인 인간게놈프로젝트(HGP)와 미국 생명공학벤처 셀레라 제노믹스: 2000년 6월 초안이 발표된 인간게놈지도를 완성했다고 발표
- 2.22 러시아 하원: 러시아가 유엔의 對이라크금수조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할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
- 2.26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연방정부규제를 완화하고 卹정부권한을 확대하는 '신연방주의'를 선언
- 3.12 아프리카단결기구(OAU) 40개국 정상들: 아프리카대륙을 정치·경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AU)을 창설한다고 선언
- 3.13 아프간 탈레반 군사정부: 아프간 내 모든 불상 중 3분의 2를 이미 파괴했고 불상파괴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혀
- 4.10 네덜란드 상원: 안락사를 최종 승인(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합법화)

- 4.11 영국 생명공학업체 PPL세리퓨틱스社: 세계 최초로 유전자식기법으로 복제돼지를 생산했다고 발표
- 4.23 러시아 우주국(RSA): 미국 우주항공국(NASA)이 미국 기업가의 국제우주정거장(SS)행에 동의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관광'목적의 우주비행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혀
- 4.25 유엔인권위원회(HRC): 모든 나라에 대해 사형제의 완전철폐로 나아가기 위한 前단계로 사형을 일시중지토록 촉구한 유럽연합(EU) 결의문 채택
- 5.17 러시아·유럽연합: 양측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성장 및 번영, 사회발전, 환경정화, 유럽내 안정 및 안보강화를 위한 공동선언 채택
- 5.26 아프리카 53개국 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 출범
- 7.2 러시아·프랑스: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및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전략적 안정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7.1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당법에 서명(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관련법 소위)
- 7.20 서방선진 8개국(G8) 외무장관들: 핵확산방지과 군비축소, 중동평화문제, 국제분쟁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관해 공동선언문 채택
- 7.23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이행에 대한 유엔기후협상 타결(독일 분)
- 9.15 독일 내각: 향후 20년 안에 독일 내 19개 원자력발전소 전부를 폐쇄하는 방안을 담은 원전폐쇄법안 승인
- 9.12 미주기구(OAS) 특별총회(페루): 쿠데타방지과 독재정권 출현저지를 위한 미주민주헌장(IDC) 채택
- 9.14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뉴욕 세계무역센터빌딩이 붕괴되고 워싱턴 국방부건물(펜타곤)이 일부 파괴되는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선언
- 10.19 나토 의원총회(PA): 미국주도의 對 테러전쟁을 지지하는 결의문 채택
- 11.10 유엔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 대표단: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총회(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을 공식승인
- 11.30 독립국가연합(CIS) 정상들: 미국의

- 對아프간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공동선언 발표(모스크바)
- 12.19 페르난도 델라루아 아르헨티나 대통령: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약탈과 방화, 공공건물점거, 이에 따른 사상자발생 등 소요확산으로 전국에 30일 간의 비상사태 선포
- 12.22 아프간 과도정부 정식 출범(수반에 카르자이)
- 12.23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아 아르헨티나 임시대통령: 아르헨티나는 사상 최고 디폴트(채무불이행)액수인 1천320억 달러의 대외부채상환을 중단한다고 선언

2002년

- 1.11 아르헨티나: 폐소화의 거래가 재개되면 이의 가치폭락을 방지하고 은행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예금액 670억 달러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예금지급 동결
- 1.14 세계무역기구(WTO) 항소패널: 유럽연합(EU)과 마찰을 빚는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금지원법안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에 패소판결 내려
- 1.15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테러분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그를 숨겨주고 지원하는 자는 테러범과 같이 유죄"라며 "바로 그 같은 원칙이 미국의 對테러독트린"이라고 선언
- 1.30 영국 뉴사이언티스트: 실리콘칩기판을 이용해 복제배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의 생명공학업체가 개발했다고 보도
- 2.2 에두아르도 두알데 아르헨티나 대통령: 국민의 은행대출제한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국가재정상태를 파괴시킬 수 있다며 무정부상태 직전에 직면에 있다고 경고
- 2.28 유로랜드 12개국의 기존 통화와 새 화폐인 유로의 병행통용기간 완료(유럽 12개국 舊통화 퇴장)
- 3.3 콜로아 탈라케 투발루 총리: 투발루 일부지역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으로 이미 침수됐으며 앞으로 50년 이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혀
- 3.12 유엔 안보리: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 채택

- 3.16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부과에 대한 보복을 지지하고 에너지시장 부분개방, 노동시장 탄력성 강화, 퇴직연금연장 등 주요 경제개혁조치에 합의
- 3.19 미국 국립방설자료센터(NSIDC): 약 만2천 년 전에 형성된 남극대륙의 거대한 氷棚이 지구온난화현상을 견디지 못해 붕괴되고 있다고 발표
- 4.1 네덜란드: 특정한 상황하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 시행(세계 최초로 안락사 합법화)
- 4.19 아르헨티나: 예금인출금증에 따른 비상대책으로 금융거래를 무기한 중단시키기로 결정
- 5.3 유럽의회: 전쟁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정서 채택
- 5.16 러시아 하원: 1977년 불세비키혁명 당시 토지를 국유화한 이래 처음으로 농지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입법안 잠정승인
- 5.16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 보호무역주의 증가가 세계경제성장 및 시장지향성 경제개혁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 채택
- 5.25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한 후 새로운 미·소협력시대를 선언
- 6.15 선진7개국(G7) 재무장관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돈세탁과 테러자금조성을 봉쇄하기 위해 포괄적인 기준의 평가작업을 수행토록 촉구하는 공동성명 채택(캐나다)
- 6.26 러시아 하원: 1977년 불세비키혁명 이후 농지사유화를 합법화하는 법안 의결
- 6.27 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주요 8개국(G8) 정상들: 핵·생화학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6개 원칙을 채택하고 세계 각국이 이 원칙들을 준수할 것을 요청
- 6.29 러시아 우주통제센터: 국제우주정거장(SS)에 보급품을 전달할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 M46'이 ISS와 도킹에 성공했다고 밝혀
- 9.6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브라질에 사상최대 규모인 304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

- 9.26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법정: 1990년대 초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을 규명키 위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前 유고연방 대통령에 대한 전범재판 시작
- 10.27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들: 이슬람 과격단체에 대한 자금유입 차단과 항공여행안전강화 등 강력한 반테러조치와 역대 경제협력 및 교역안전 등을 다짐하는 '로스 카보스 선언' 채택
- 11.8 유엔 안보리: 이라크에 무장해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결의안 승인
- 11.21 나토 지도자들: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들의 신종위협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속대응군(NRF) 창설에 합의
- 12.13 유럽연합(EU): 체코·폴란드·헝가리·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몰타·키프로스 등 10개국의 EU가입을 승인

2003년

- 1.1 루이스 이나시오 로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당선자 새 대통령에 취임
- 1.11 이집트·요르단·모로코·튀니지 무역장관들: 자유무역지대창설협정 체결(암만)
- 1.15 인도 언론들: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 남아시아를 강타한 한파로 약 1천3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 1.23 파키스탄: 인도가 자국외교관을 추방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자국주재 인도대사관속 외교관 4명에게 "48시간 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혀
- 1.24 국제통화기금(IMF): 아르헨티나가 만기상환이 불가피한 세계은행·미주개발은행(ADB) 등 다자금융기구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긴급차관 29억8천만 달러를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 1.28 세계은행: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빈곤층을 돕기 위한 6억 달러의 차관제공을 승인했다고 발표
- 2.1 미국 항공우주국(NASA): 16일간의 실험을 마친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지구귀환 중 텍사스주 상공에서 공중폭발해 승무원 7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발표
- 2.4 유엔 안보리: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에 프랑스군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승인
- 2.6 베네수엘라: 자국통화인 '볼리바르'의 환율을 미국달러화에 고정시키는 한편 새로운 외환매입규제조치 시행
- 2.7 콜롬비아 경찰: 보고타 북부의 한 고급클럽 주차장에서 좌익반군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폭탄이 터져 적어도 32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혀
- 2.12 인도: 러시아와 공동개발한 초음속 크루즈미사일 '브라모스'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혀
- 2.14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생화학·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거래를 금지하는 대통령령 발표
- 2.18 볼리비아 내각: 정부의 세금인상계획 등에 반대하는 근로자와 농민들의 반정부시위 등 일련의 국정혼란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료 전원 사퇴 결정
- 2.19 나토: 對이라크전쟁 발발시 패트리엇 미사일시스템과 공중조기경보기(AWACS), 생화학방호부대를 터키에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
- 2.19 이란 IRNA통신: 이란 군용수송기가 중부도시 케르만 인근에 추락해 탑승자 302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보도
- 2.21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웨스트 워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대형 화재 발생. 90여 명이 숨지고 180여 명 중경상
- 2.24 신화통신: 중국 북서부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카스지구 자스현과 바추현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 최소한 258명이 숨지고 1천여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
- 2.26 영국 하원: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출한 이라크 무장해제동의안 가결
- 2.28 체코: 제3대 대통령에 우파 야당출신 바츨라프 크라우스 前 총리 선출
- 3.1 터키 의회: 미군의 자국영토 사용을 허용하는 안건 거부
- 3.4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다바오 국제공항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대형 폭발사고 발생. 최소 19명 사망, 140여명 부상
- 3.6 알제리 APS통신: 알제리항공사에 어알제리 소속 보잉737 여객기가 남부 타만라세공항을 떠나 알제로 향하던 중 사막에 추락, 102명이 사망했다고 밝혀
- 3.11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 미국의 對이라크무력사용 결의안에 반대입장을 밝혀
- 3.12 조란 진지치 세르비아 총리: 베오그라드 정부청사건물로 들어서던 중 괴한들이 쓴 총탄에 피살
- 3.1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보지즈 장군: 앙주 펠릭스 파타세 대통령의 해외출장 중 공항과 대통령궁을 점령, 헌법을 정지시키고 정부와 의회의 해산을 발표
- 3.17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48시간 내에 권력을 버리고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미국주도의 군사공격에 직면한다고 최후 통첩(사실상의 선전포고)
- 3.20 미국: 이라크 남부공격을 개시하고 수도 바그다드의 후세인 지휘병커와 군지휘부 건물공습 감행
- 3.22 중국 북부 산시성 샤오이현의 탄광폭발사고로 최소한 28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매몰
- 3.23 러시아·중국 외무장관:미국주도 이라크전의 즉각 종단을 공동 촉구
- 3.24 영국 BBC: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명명된 괴질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망자수가 22명에 이르며 중국 광둥지역에서도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
- 3.28 일본 우주개발사업단: 對북한정찰을 주임무로 하는 일본 최초의 정보수집위성 2기가 가고시마현 우주센터에서 성공리에 발사됐다고 발표
- 3.31 볼리비아 당국: 수도 라파스 북쪽 250km 떨어진 금광마을 산사태로 가옥 400여채가 흩더미에 묻히고 7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 4.6 유엔 관계자: 콩고민주공화국 동북부 지역에서 3일 종족분쟁이 일어나 최소 1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혀
- 4.7 미군: 이라크전 개전 20일 만에 미군 제3사단은 탱크 70여 대와 장갑차 60여 대 등으로 구성된 기갑대대를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 투입해 후세인 대통령궁을 점령했다고 발표
- 4.9 미군: 이라크전 개전 21일 만에 바그다드 전역을 장악
- 4.14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NHGR):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국 과학자들이 인간생명의 유전적 청사진인 인간게놈지도도를 99.99%의 정확도로 완성했다고 밝혀

4.16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발병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4.22 나이지리아 선관위: 집권 인민민주당 오바산호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부하리 후보는 "투표결과가 조작됐다"며 무효를 주장)

4.24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4.25 제59차 유엔인권위: 북한·벨로루시·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침해상황을 규탄하는 국별결의안 채택(제네바)

4.25 멕시코 엘 유니베르살: 미국·캐나다·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유럽연합(EU)식의 완전한 통합체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

4.27 파라과이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콜로라도당의 니카노르 두아르테 프루토스 후보가 승리

4.30 미국 국무부: 2002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혀

5.1 터키 관리: 리히터규모 6.4의 강진이 남동부 빙골을 강타, 최소 150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혀

5.3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담: 미국 주도의 다국적평화군의 이라크파병안 승인

5.7 세계무역기구(WTO): 미국상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부과를 승인

5.9 일본 언론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가고시마 우주공간관측소에서 소행성탐사기인 '뮤지스(MUSES-C)'를 탑재한 M5로켓 5호기를 성공리에 발사했다고 보도

5.11 토미 프랭크스 미국 중부군사령관: 35년간 이라크를 통치해 왔던 사담 후세인의 집권 바트당이 해체됐다고 공식선언

5.19 스리랑카 중부와 남부에 최악의 홍수와 산사태로 200여 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5.21 알제리 수도 알제 동부에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 발생, 최소 1천여 명이 사망하고 7천여 명 부상

6.4 시에라리온 국제전범재판소: "1990년대 시에라리온 내전당시 국제인도주의법위반과 전쟁범죄 등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전범혐의로 기소

6.8 영국 BBC방송: 모리타니 군부쿠데타로 마우드 울드 타야 대통령이 대통령령에서 탈출했다고 보도

6.21 이스라엘군 소식통: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자 압둘라 카와스메를 사살했다고 밝혀

6.26 피터 콜먼 라이베리아 보건부 장관: 지난 이틀 간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치열한 교전에서 민간인 200~300명이 사망하고 1천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혀

7.4 파키스탄 경찰: 남서부 퀘타의 시아파 이슬람사원에서 자살폭탄테러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 적어도 44명이 숨지고 65명이 부상했다고 밝혀

7.11 미국 상원: 이란이 사주한 각종 테러의 미국인 피해자에게 미국 내 이란 자산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승인

7.13 전후 이라크의 실질적 집행권을 행사할 과도통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출범

7.16 상투메프린시페서 쿠데타 발생, 혁명군이 저항없이 정권전복에 성공

7.24 미국 하원: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비준안 가결

7.28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인민당(CPP) 총선에서 승리

8.6 영국 BBC방송: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의 복제말을 탄생시켰다고 보도

8.11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대통령: 14년간의 라이베리아 내전과 관련, 모제스 블라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준 뒤 나이지리아로 망명

8.23 AP통신: 유럽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프랑스에서 약 1만 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 유럽 각국에서 1만2천 명이 더위로 숨진 것으로 집계

8.25 르완다: 독립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 실시

9.11 국제통화기금(IMF): 아르헨티나: 앞으로 3년간 아르헨티나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내용 등의 금융구제안에 합의했다고 공동발표

9.19 러시아·벨로루시·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S) 4개국: 지역경제통합안에 합의

10.3 러시아 석유회사 유코스 경쟁업체인 시브네프트와의 합병을 완료, 세계 4대 석유생산회사로 부상

10.26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주택 500여 채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주민 4만~5만 명이 대피

11.8 사우디 정부관계자: 세계 각지에 테러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에서 테러로 인한 강력한 폭발이 3차례 발생,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혀

12.14 폴 브리머 미군정 이라크 최고행정관: 사담 후세인 前 이라크 대통령을 8개월간의 도피 끝에 생포했다고 공식발표

2004년

1.3 카이로공항당국:승객 135명과 승무원 6명 등 141명을 태운 이집트 전세여객기 1대가 홍해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 사망한 것 같다고 밝혀

1.4 미국 항공우주국: 쌍둥이 화성탐사로봇 중 첫 번째인 '스피리트'가 7개월에 걸친 우주여행 끝에 화성표면에 안착했다고 밝혀

1.19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와 단일경제권 창설협정에 서명

1.26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새 헌법에 서명·공포

2.11 에티오피아: 서부 김벨라주에서 1월 말 종족 간 폭력사태로 196명이 사망

2.19 이란 북동부 네이사부르시에서 열차폭발사고발생, 320명이 숨지고 460명이 부상

2.26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치타와 극동 하바로프스크를 연결하는 총연장 2천165km의 자동차도로 개통

2.28 타이완주민: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배치에 항의하며 '2·28사건' 기념일을 맞아 총연장 500km의 인간사슬을 만들고 反中시위

3.8 25인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이라크 임시헌법에 정식서명

3.20 천수이볜 민진당후보: 제11대 총통선거에서 야당연합후보 렌진에 승리, 재선에 성공

3.20 네팔 정부군: 서부 산악지역에서 마오쩌둥노선을 추종하는 반군세력과 정부군 사이의 교전으로 반군 약 500명이 숨졌다고 밝혀

4.17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취임

4.17 팔레스타인 민중저항운동단체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압델 아지즈 란티시: 이스라엘군 헬기의 미사일공습으로 사망

4.21 유엔 인권위: 미얀마 군정에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女)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5.1 유럽연합 회원국이 기존의 15개에서 25개로 확대

5.5 나이지리아 이슬람단체: 종족·종교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민병대의 무차별공격으로 200명 이상의 이슬람교도가 사망했다고 밝혀

5.13 스페인 의회: 이라크주둔 자국병력의 철수를 승인

5.15 국제축구연맹 집행위: 2010년 제19회 월드컵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 남아공을 개최국으로 확정

5.20 일본 중의원: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국민보호와 미군과의 협력방안 등을 규정한 有事법안 가결

6.5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제40대 대통령 사망(93세)

6.18 유럽연합(EU) 정상들: 역사적 EU 헌법안 채택

6.29 유럽연합(EU) 지도자들: 주제 마누엘 두랑 바로수 포르투갈 총리를 EU 차기집행위원장에 공식지명

7.1 사담 후세인 前 이라크 대통령, 처음으로 이라크 특별재판소 법정에서 출두, 그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역사적인 재판 시작

7.3 수단: 인종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다르푸르에 병력을 파견, 아랍무장세력인 잔자위드를 무장해제시키고 인권감독관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

7.17 싱가포르 정부: 리관유 초대 총리의 장남 리셴룽 부총리가 총리직에 오를 것이라고 발표

7.19 필리핀 정부: 이라크 무장세력에 인질로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자국군을 모두 철수시켰다고 발표

8.2 쿠웨이트 KUNA통신: 쿠웨이트와 이라크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단교한지 14년 만에 외교관계를 재개했다고 보도

8.13 호주 상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9.5 러시아 정부: 북오세티아의 학교 인질극 사망자 집계결과, 어린이 155명을 포함,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9.6 인도·파키스탄: 인도 뭄바이와

파키스탄 카라치에 양국의 영사관을 개설키로 하는 등 다양한 신뢰구축방안에 합의

9.25 아이티 정부관리들: 허리케인 '진'으로 인한 홍수피해 사망자가 1천316명으로 늘어났으며 실종자도 1천97명에 달한다고 발표

10.9 아프간: 탈레반정권 붕괴 이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를 처음 실시

10.14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모니 왕자가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의 뒤를 이을 새 국왕으로 선출됐다고 밝혀

10.17 인도: 정권교체 이후 5개월 만에 치러진 주의회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회의당 압승

10.20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취임

10.21 인테르팍스통신: 러시아와 중국은 장기간의 국경분쟁대상이었던 3개의 섬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10.29 유럽연합 정상들: 유럽연합헌법에 서명(로마; 2년 내에 25개 회원국 의회나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공식효력을 발생)

11.20 네팔 관리들: 서부지역에서 정부군과 공산주의 무장세력이 충돌해 정부군 병사 10명과 무장대원 66명이 숨졌다고 밝혀

11.28 중국 정부: 중부 산시성 천자산광산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166명이 매몰됐다고 밝혀

11.30 프랑스 하원: 소생가망이 없는 말기환자가 생명연장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 승인

12.7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초대 직선대통령에 취임

12.7 미국 하원: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해 미국내 정보기관을 총괄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개혁법안을 가결

12.11 오스트리아 의사들: 우크라이나 대선후보 빅토르 유시첸코가 최근 얼굴에 심한 변형을 보인 것은 독성화학물인 다이옥신에 의한 악물중독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

12.15 도쿄고등법원: 중국의 2차대전 중 일본군 중군위안부들이 제기한 배상소송을 기각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

12.2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연안에서 발생한 진도 8.9의 강진으로 인

한 사망자수가 급증, 6천33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

12.27 우크라이나 중앙선관위: 빅토르 유시첸코 대선후보가 결선재투표에서 승리, 차기대통령에 당선했다고 밝혀

12.31 안 에켈란트 유엔인도지원담당사무차장: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 및 지진해일(쓰나미) 대참사에 따른 사망자수가 15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혀

2005년

1.17 자오쯔양(趙紫陽) 중국공산당 前 총서기: 베이징 시내의 한 병원에서 자병으로 사망..향년 85세

1.26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외서 통근열차가 장애물과 충돌하면서 탈선..10명 사망, 200여 명 부상

2.10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댐 붕괴..600여 명 사망·실종

2.14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베이루트서 차량폭탄 공격을 받아 사망

2.19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 강에서 여객선 침몰..119명 사망, 80여 명 실종

2.21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둥시 인근에서 산사태..146명 사망, 139명 매몰

2.22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에서 리히터 규모 6.4의 강진 발생..최소 400명 사망, 수천명 부상

3.10 이라크 북부 모술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폭테러..47명 사망, 80여 명 부상

3.16 이라크 제헌의회 개원

3.21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고교서 재학생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 발생..10명 사망

3.24 아스카르 아카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총선무효를 주장하는 야권과 시민들의 시위로 하야..‘레몬혁명’ 완성

4.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4.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서 거행

4.19 독일의 요제프 라칭거(78) 추기경: 새 교황에 선출.. 교황 이름은 베네딕토 16세를 사용하기로 결정

4.20 에라도로 의회: 부패혐의로 루시오 구티에레스 대통령 축출키로 의결..후임에 알프레도 플라치오 부통령 지명

4.24 교황 베네딕토 16세: 제266대 교황으로 공식 취임

5.3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후 이라크 새 정부 공식 출범

5.7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 발생..11명 사망, 162명 부상

5.27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폭탄테러..20명 사망, 150명 부상

5.29 이스라엘 내각: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400명 석방 승인

6.8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보안군이 발포..최소 20명 사망

6.14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나: 지병으로 사망..향년 91세

6.16 캄보디아 북서부 시엠레엡 국제학교서 무장 인질범 4명, 경찰과 6시간 대치..어린이 1명 사망.

6.20 이라크 아르빌에서 자살폭탄 테러..20명 사망, 50여 명 부상

6.21 이스라엘 텔아비브 근교서 열차와 대형 트럭 충돌..200여 명 사상

7.2 이라크내 알-카에다 조직: 납치한 이هاب 알-세리프(51) 이라크주재 이집트 대사 살해

7.7 영국 런던에서 동시다발 폭탄테러 발생..50여 명 사망, 700여 명 부상

7.12 케냐 북동부 투르비에서 부족간 충돌로 66명 사망

7.16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시아파 사원 부근에서 자살폭탄 테러..98명 사망

7.23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서 연쇄폭탄테러..64명 사망, 실종 8명

8.1 파드 빈 압말 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서거..향년 84세

8.3 아프리카의 모리타니 군부: 무혈 쿠데타로 정권 장악

8.12 미국의 4번째 화성 탐사선 '화성정찰궤도선(MRO)':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

8.17 불법 이민자 113명 태운 에콰도르 선박 1척, 콜롬비아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침몰..104명 사망

8.29 최대 시속 24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남부 멕시코만 연안 강타..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앨라배마주 등지에서 총 1천 306명 사망 · 6천644명 실종

8.31 이라크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성지인 카디미야 부근 다리 난간이 무너져 시아파 순례객 965명 사망, 465명 부상.

9.5 인도네시아 국적 항공기: 수마트라섬 메단에 추락..탑승자 117명 전원 사망

9.12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완전철수..38년 지속된 가자지구 점령체제 종식

9.14 이라크서 시아파 노린 테러 잇따라 발생..150명 사망

9.15 인도네시아 아체 반군: 평화협정에 따라 무장해제 착수

10.1 인도네시아 발리 식당가에서 연쇄폭탄테러..23명 사망, 한국인 5명을 포함해 50여명 부상

10.4 과테말라서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스탠'으로 파나마와 잔차흐 마을에서 대형 산사태 발생..1천500여명 사망

10.8 파키스탄 동북부 인도 국경 부근에서 리히터 규모 7.6의 강진 발생..8만여 명 사망

10.17 중국의 두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6호: 5일간의 우주비행 마치고 귀환

10.19 반인륜혐의로 기소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특별재판 개시

10.22 나이지리아 벨부항공 여객기: 라고스 공항 이륙직후 추락..117명 사망

10.27 프랑스 클리사-수-부아에서 경찰 검색 피해 달아나던 두 소년, 변전소 담 넘어 감전사..주로 무슬림 소년들에 의한 3주간의 소요사태 촉발

10.29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州)서 열차 탈선한 뒤 하천으로 추락..100명 이상 사망, 30여 명 실종

11.6 미국 중서부에서 토네이도 발생..220여명 사상

11.9 유럽우주국(ESA):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호 발사

11.9 요르단 수도 암만 호텔가에서 자살폭탄 테러..140여 명 사상

11.15 세계보건기구(WHO): 2003년 이후 15일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에 137명 감염, 이중 70명 사망 발표

11.18 이라크 시아파 사원 2곳서 자살폭탄 테러..200여 명 사상

11.18 미 하원: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안 부결

11.22 독일: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CDU) 당수를 8대 독일 총리로 선출

11.27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단광 폭발사고..134명 사망, 15명 매몰

12.3 미얀마 정부: 아웅산 수치 여사가 택연금 6개월 연장 발표

12.5 중국 반체제 작가 류빈연(劉賓雁80) 사망

12.6 이란 군수송기: 수도 테헤란의 아파트에 충돌..128명 사망, 90여 명 부상

12.6 이라크 바그다드 경찰학교서 여성 2명 자폭테러..115명 사상

12.17 유엔 총회: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기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가결

2006년

1.1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1.4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전 총리: 출혈성 뇌졸중으로 긴급 수술

1.10 이란: 핵시설 봉인 제거, 핵연료 연구 재개 선언

1.12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순례 행사(하지) 압사사고..360여명 사망

1.15 칠레: 대선 결선서 집권 중도좌파 연합의 미첼 바첼레트 칠레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

1.25 팔레스타인 총선서 무장단체 하마스 승리

2.1 프랑스 수아르, 독일 디 벨트, 이탈리아 라 스타파, 스페인 엘 페리오디코 등 유럽 일간지: 마호메트 풍자 만평 게재..2005년 덴마크 신문에 의해 촉발된 마호메트 만평 파문 확산

2.3 이집트 여객선 '알 살람 보카치오 98'호 홍해상에 침몰..1천여 명 사망, 실종

2.4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 핵 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결정

2.22 이라크 사마라 시아파 사원 폭파 공격..종파분쟁 격화

3.11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헤이그 감옥서 사망. 향년 64세.

3.14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용태영 KBS 두바이 특파원 포함, 외국인 7명 납치

3.16 이라크 새 의회 개원

3.22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단체 '바스크 조국과 자유': 영구 휴전 선언

3.28 이스라엘 총선서 샤론 전 총리가 창당한 카디마당 승리

4.5 헝가리 다뉴브강 수위 120년 만에 최고치..중동부 유럽 홍수 비상

- 4.9 이탈리아 총선서 중도좌파연합 승리
- 4.11 이란: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 4.21 가넨드라 네팔 국왕: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국민에게 권력 이양 발표
- 4.25 이집트 시나이반도 휴양지 다합서 3건의 연쇄폭탄테러 발생..최소 33명 사망, 150여 명 부상
- 5.3 아르메니아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0 여객기 흑해 상공서 추락..탑승자 113명 전원 사망
- 5.5 수단 정부-반군 다르푸르 평화협정 서명
- 5.12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범죄조직 폭동..490여 명 사망
- 5.27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진도 6.2 강진..5천여 명 사망, 수천명 부상
- 5.28 콜롬비아 대선서 친미(親美) 강경 우파 알바로 우리베 재선
- 5.31 에이즈 발견 25주년
- 6.3 몬테네그로: 독립 공식 선언
- 6.7 이라크 내 알-카에다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 미군 공습으로 사망 /나이지리아의 무장단체 '니제르 델타해방운동(MEND)': 한국인 근로자 5명 납치
- 6.15 이라크 미군 전사자 2천500명 돌파
- 6.19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섬에서 폭우로 홍수·산사태 발생..최소 111명 사망, 10여 명 실종
- 7.2 멕시코 대선서 우파 집권 국민행동당(PAN)의 펠리페 칼데론 당선
- 7.5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 7.9 러시아 S7 항공사 A-310 여객기 이르쿠츠크 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 이탈..120여명 사망
- 7.11 인도 뭄바이서 연쇄 열차폭탄테러 발생..135명 이상 사망, 300여 명 부상
- 7.12 헤즈볼라: 이스라엘 병사 2명 납치..이스라엘,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레바논 침공 개시
- 7.17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쪽 해안에 7.7 강진과 쓰나미 발생..최소 668명 사망
- 7.24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 결렬
- 7.30 이스라엘: 레바논 카나마를 공습..어린이 등 60여 명 사망.
- 7.31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동생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에게 권력 임시이양
- 7.31 유엔 안보리: 대이란 결의안 채택..8월 31일까지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
- 8.10 영국 경찰청: 영국발 미국행 여객기 테러음모 적발
- 8.11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촉구 결의 채택
- 8.14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결의 공식 발표
- 8.22 러시아 풀코보 항공사 Tu-154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추락..탑승자 170 몰사
- 8.24 국제천문연맹(IAU):명왕성 행성지위 박탈
- 8.26 이란: 중수(重水) 공장 가동
- 9.12 시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 피격
- 9.17 스웨덴 총선서 우파연합 승리
- 9.18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 의결권 확대
- 9.19 태국 군부 쿠데타..택신 치나왓 총리 실각
- 9.26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제90대 총리 피선
- 9.29 브라질 골항공 보잉-737 여객기: 아마존 상공서 소형 항공기와 충돌..탑승자 154명 전원 사망
- 10.2 유엔 사무총장 4차 예비투표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사실상 내정
- 10.9 북한: 핵 실험 실시
- 10.11 경비행기가 미국 맨해튼 고층아파트에 충돌
- 10.15 유엔 안보리: 북핵 관련 대북 제재 결의
- 10.29 브라질 대선 결선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재선
- 10.29 공교민주공화국 대선 결선서 조셉 카빌라 승리
- 11.5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두 자일 마을 시아파 주민을 학살한 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받아
- 11.5 니카라과 대선서 좌파 지도자 다니엘 오르테가 당선
- 11.7 미국 중간선거서 민주당 압승..상·하원 장악
- 11.8 이라크전 진두지휘했던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사임 발표
- 11.21 네팔 정부-마오쩌둥(毛澤東)주의 공산반군: 내전 종식위한 평화협정 서명
- 11.21 피에르 게마일 레바논 산업장관 피살
- 11.22 네덜란드 총선서 집권 기독교민주당 승리
- 11.23 러시아 연방보안부(FSB) 전직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독극물 테러로 사망
- 11.2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합의
- 11.26 에라도르 대선 결선서 좌파 라파엘 코레아 당선
- 11.27 인도: 사상 첫 미사일 요격 실험 성공
- 11.28 교황: 이슬람국가 터키 방문
- 11.30 태풍 '두리안' 필리핀 강타..1천여 명 사망, 실종
- 12.5 베네수엘라 대선서 우고 차베스 재선
- 12.9 미 의회: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승인..베트남전 종전 32년 만에 무역관계 정상화
- 12.10 칠레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 심장질환 합병증 등으로 사망.. 향년 91세
- 12.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 활동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12.25 달라이 라마: 뉴델리 강연서 "문화적 자치만 보장된다면 중국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이 티베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12.27 제38대(1974~77년)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93세를 일기로 타계
- 12.30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집권 중 시아파 주민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고 교수형

2007년

- 1.2 룰라: 제39대 브라질 대통령 취임
- 1.9 사담 후세인 교수형 모방 어린이들 잇따라 사망
- 1.9 미국: 소말리아 알카에다 공습..테러분자 척결명분 첫 직접개입
- 1.18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개막..남미 11개국 정상들, 회원국 간 불균형해소 등 논의
- 1.24 다보스 포럼 개막..기후변화, 웹2.0, 트라이블리즘, 인포데믹스 등 논의
- 1.27 영국 경찰: 리트비넨코 방사능차(茶)로 독살 결론
- 1.31 혼다 미국 공화당 의원: 위안부 결의안 하원에 제출
- 2.12 이라크 고밥 후세인 정권시절 부통령 지낸 타하야신 라미단에 교수형 선고

- 2.13 북핵 6자회담 타결..합의문서 공식 발표
- 2.17 미국 하원 부시 이라크 증파안 거부
- 2.19 인도 열차서 테러 추정 폭발로 60여명 사망
- 2.24 북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초청
- 2.28 체니 미국방장관 방문 아프간 미군기지 인근 폭탄테러..한국군 1명 등 수십명 부상
- 3.2 美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미국 대법에 지위확인 소송
- 3.7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소속 여객기: 착륙 중 화재 사고..탑승객 21명 사망, 8명 실종
- 3.9 빌 게이츠: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갑부' 자리 13년째 고수(이건희 314위, 정몽구 432위 등)
- 3.11 부시: 미군 4천400명 이라크 추가 파병 승인
- 3.17 러시아 여객기 비상 착륙하다 추락..5명 사망, 52명 부상
- 3.18 탈레반 억류 이탈리아 기자 마스트로자코모: 석방
- 4.2 한·미 FTA 타결..부시 대통령 FTA로 한미 유대 강화 표명
- 4.10 미국 재무부: 마카오 북 자금 동결 해제
- 4.17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사건..조승희 난사로 32명 사망
- 4.23 프랑스 대선..사르코지, 루아얄 결선 진출
- 4.27 러시아: 재래식무기감축조약 이행 유예 선언
- 5.5 케냐항공 737-800: 카메룬에서 추락해 탑승객 114명 전원 사망
- 5.7 프랑스: 대선서 우파 후보 사르코지 승리, 16일 대통령 취임
- 5.10 영국 블레어 총리: 사임 발표
- 5.15 한국인 4명 등 24명이 승선한 마부노1호와 2호: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 5.18 네오콘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 6월30일자로 사임 발표
- 6.2 중국 부총리 황위 사망
- 6.11 벨기에 총선 집권 연정 패배..기독민주당 승리
- 6.14 반(反)시리아계 레바논 의원 폭탄테러로 사망
- 6.15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 공동내각 해산..하마스 "가자지구 장악" 선언
- 6.18 프랑스 우파 집권당: 절대 과반의 석 획득
- 6.20 불룸버그 뉴욕시장: 공화당 탈당
- 6.21 EU 정상회의 개막..헌법 부활 '미니조약' 갈림길
- 6.25 브라운: 영국 집권 노동당 당수 취임
- 6.25 BDA 자금: 북 은행계좌로 입금
- 6.26 세탁소 바지사장: 한인세탁업주 승소
- 6.25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한국인 13명 등 탑승객 22명 전원 사망
- 6.27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위안부 결의안 지지 성명
- 6.28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중동특사로 임명돼
- 7.10 파키스탄: 붉은사원 시위 강제진압.. 100여명 사망
- 7.12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발표..삼성전자 46위
- 7.17 브라질 탐(TAM)항공 여객기: 착륙 도중 화물터미널과 충돌해 199명 사망
- 7.19 탈레반: 한국인 인질 23명 납치
- 7.22 탈레반 피랍 독일인 인질 1명 숨진 채 발견
- 7.25 탈레반: 한국인 인질 배형규 씨 살해
- 7.31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7.31 탈레반: 인질 22명 중 심성민 씨 추가 살해
- 7.31 크메르루주 국제재판정 5명의 재판 대상자 중 첫 피의자 수감
- 8.13 탈레반: 아픈 한국 여성인질 2명 석방
- 8.14 미국 마텔 사(社): 중국산 장난감 1천800만개 리콜
- 8.16 이라크 자살폭탄테러로 사상 최대 250명 사망
- 8.24 미국 국무 장관: 54년 만에 리비아 방문..양국관계 이정표
- 8.28 한국·탈레반 대표: 가즈니 적신월사 건물에서 대면협상 재개..인질 19명 전원 석방 합의
- 9.3 영국군: 이라크 바스라서 550명 철수
- 9.6 성악가 파바로티: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에 있는 자택에서 타계..향년 71세
- 9.11 미군 사령관 "이라크주둔 미군, 내년 7월까지 3만 철수"
- 9.12 아베 일본 총리: 사의 표명
- 9.12 북핵 기술탐: 영변핵시설 방문
- 9.17 그리스 보수여당: 산불 위기 딛고 재집권 성공
- 9.17 EU법원 "MS에 반독점 벌금 부과 정당" 판결
- 9.20 독일 내각: 아프간 주둔 1년 연장 승인
- 9.25 일본: 후쿠다 총리 취임..사상 처음으로 부자(父子) 총리 기록
- 9.27 미얀마군: 반정부 시위대에 발포..일본 기자 등 수십명 사망
- 10.11 미국 클리블랜드 고교서 총격사건..최소 5명 부상
- 10.15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개막
- 10.16 미국: 터키 이라크 북부 군사행동 제동..외교마찰
- 10.19 파키스탄 부토 전 총리 겨냥 차량 폭발..100명 이상 사망
- 10.19 미국 법원: BBK 사건 김경준 한국 송환 승인
- 10.20 미국 대통령 부시: 미얀마 군사정권에 제재확대 발표
- 10.22 폴란드 총선서 중도우파 야당 승리..카친스키 형제 몰락
- 10.22 中 17전대 후진타오 연임 확정..시진핑 당 서열 6위로 급부상
- 10.24 미국 캘리포니아서 산불로 6명 사망..경찰 산불 방화 용의자 2명 사살, 체포
- 10.26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 경신..WTI 90.60달러
- 10.29 아르헨티나 대선서 집권당 후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상원의원 대통령 당선
- 11.3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
- 11.4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마부노 1호, 2호 석방
- 11.8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 수도 트빌리시에 비상사태 선포
- 11.8 핀란드 10대 교내서 총격..8명 사망, 12명 부상
- 11.12 슬로베니아 대선서 좌파 후보 당선
- 11.15 파키스탄서 반정부 시위 중 2명 사망
- 11.16 BBK 김경준 한국 송환
- 11.17 방글라데시에서 사이클론으로 1천 100여명 사망
- 11.19 북·미 금융실무회의 뉴욕서 개막
- 11.20 미·러시아: 플루토늄 처리협정 체결

- 11.22 파키스탄 대법: 무사라프 대통령 연임 확정
- 11.25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위해 사임 발표
- 11.27 중동평화회의: 미국 아나폴리스서 개막..2008년까지 평화협정 타결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
- 11.30 파키스탄 무사라프 대통령: 12월 16일 국가비상사태 해제 발표
- 12.1 터키 정부: 군에 이라크 월경 작전 권 부여
- 12.3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통합러시아당 총선서 압승
- 12.7 미국 부시 대통령: 김정일에 친서 보내..결단 촉구
- 12.10 카다피 리비아 원수: 34년 만에 프랑스 방문
- 12.12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월 26일 평양공연 확정 발표
- 12.14 EU 정상: '리스본 조약'공식 서명..내년 비준 거쳐 내년 1월 발효 전망
- 12.16 인도 동부의 단테와다 교도소에서 294명의 공산주의자 수감자들이 탈옥
- 12.18 교도통신: 일본 방위성이 하와이 부근 해상에서 실시한 첫 미사일 공중 요격 실험이 성공했다고 보도
- 12.27 파키스탄 인민당(PPP) 총재인 부토 전 총리: 유세 직후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사망
- 테러..100명 이상 사망
- 2.18 파키스탄 총선서 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PP) 압승, 독일: 리히텐슈타인으로부터 정보 입수 후 대규모 탈세수사 착수
- 2.24 라울 카스트로, 형 피델 이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취임
- 2.25 달러화 기준 유로 환율 최초로 15달러 돌파
- 2.26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양 공연
- 2.27 유럽집행위원회(EC), 마이크로소프트(MS)에 반독점 위반으로 9억 유로 벌금 부과
- 2.28 탁신 치나왓 전 태국 총리 귀국
- 3.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란 핵프로그램 강행에 따른 제재안 가결, 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 양회 공식 개막
- 3.6 아프리카·중남미에 무기 팔아온 밀매상 빅토르 바우트..태국서 체포
- 3.10 티베트인들: 독립봉기 49주년 맞아 대장정 개시, 엘리엇 스피처 뉴욕 주지사 성매매 연루 파문
- 3.14 이란 총선서 보수통합전선 압승
- 3.16 JP모건, 베어스턴스 인수 합의
- 3.22 마잉주 국민당 후보, 대만 총통선거서 승리
- 3.26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브랜드 인도 타타에 매각
- 4.2 영국 과학자들, 신 동물복제기술 발명
- 4.3 미국: 체코와 미사일방어(MD)기지 건설 합의, 아이티: 식량난으로 봉기 발생
- 4.5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치서 고별 회담, 한국인 승선한 프랑스 요트..소말리아 인근서 납치
- 4.11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 국제우주정거장 탑승
- 4.12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샤오완창 대만 부총통 당선인: 보아오 포럼서 59년만의 양국 최고위층 간 회동, 이란 남부 사원서 폭탄테러..12명 이상 사망
- 4.13 케냐,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1천 500명 목숨 앗아간 분쟁 종식
- 4.14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선 승리로 재집권
- 4.21 영국 중앙은행, 1천억 달러 규모 유동성 공급안 발표
- 4.24 미, 북한과 시리아 핵협력 활동 확인
- 4.30 미, 테러지원국 명단서 북한 잔류 발표
- 5.1 소말리아서 미 공습으로 알 카에다 지도자 등 사망
- 5.2 사이클론 나르기스, 미얀마 상륙..총 14만 명 사망 혹은 실종
- 5.6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일본 방문
- 5.7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취임
- 5.8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 5.12 중국 쓰촨성서 규모 7.9 강진..8만7천600명 사망
- 5.21 이스라엘·시리아, 평화협상 재개
- 5.25 미셸 솔레이만, 레바논 대통령 선출
- 5.26 화성탐사 로봇 피닉스, 화성표면 착륙
- 5.28 네팔 군주정치 종식
- 6.5 터키 헌법재판소, 하집 착용 금지 유지 판결
- 6.12 아일랜드: 유럽통합 위한 리스본 조약 국민투표 부결, 80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단: 파리에서 아프간 재건 위한 200억 달러 원조 약속, 중·대만 반관영 협상기구..베이징서 양안대화 재개
- 6.19 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발표
- 6.20 필리핀 해역서 태풍으로 페리호 침몰..800명 이상 사망
- 6.26 미 대법원, 개인의 총기소지 합헌 판결
- 6.27 빌 게이츠: MS 경영 1선서 퇴진,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선서 승리..부정선거 논란
- 7.2 잉그리드 베탕쿠르 전 콜롬비아 대선후보, FARC 인질서 6년 만에 석방
- 7.11 원유, 배럴당 147달러로 급등
- 7.14 벨기에 인베브, 미국 안호이자-부시를 500억 달러에 인수해 세계 최대 맥주회사로 재출범하기로 합의
- 7.21 세르비아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 베오그라드서 체포
- 7.26 인쇄부 아메다바드서 연쇄폭발..56명 사망
- 8.7 러시아·그루지야 남오세티야서 전쟁 발발
- 8.8 베이징 올림픽 개막
- 8.18 페르베즈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퇴진
- 8.20 마드리드공항 비행기 충돌로 154명 사망

2008년

- 1.2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 1.3 아이오와 주 코커스로 미 대선 경선 레이스 개시
- 1.11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 에드먼드 힐러리 타계
- 1.12 대만 총선서 국민당 압승
- 1.21 경기침체 우려로 전 세계 증시 동반 폭락
- 1.23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그리스 총리: 50년 만에 터키 국민 방문,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가자지구서 이집트 국경 넘음
- 1.26 제롬 케르비엘 佛소시에테제네랄 투자직원..수십억 달러대 금융사기로 구속
- 1.27 수하르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망
- 2.13 호주정부, 원주민 차별 공식 사과
- 2.17 코소보: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선언,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서 자살폭탄

8.21 파키스탄 북서부 폭탄테러로 78명 이상 사망
 8.22 미, 이라크와 주둔군 철수 협정 서명
 8.26 허리케인 구스타프 아이티 상륙으로 130명 이상 사망, 러시아: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독립 승인, 인도: 동부 오리사 서 가톨릭·힌두 단체 간 유혈분쟁
 9.6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 취임
 9.7 미, 양대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국유화 발표
 9.9 사막 순다라벳 태풍, 현재의 위헌 판결로 사퇴압력
 9.14 러 우랄산맥 중부서 여객기 추락..88명 사망
 9.15 짐바브웨: 권력분점 합의, 이란: 나탄저스 원심분리기 가동사실 공개,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9.17 중멜라민 분유 파문 확산..22개사 생산 전국서 유통 확인
 9.20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요구로 타보 음베키 남아공 대통령 사퇴, 이슬라마바드 메리어트 호텔서 자살폭탄 테러..53명 사망
 9.21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 사퇴
 9.24 아소 다로 日총리 선출
 9.25 중, 최초 유인우주선 선저우 발사 성공
 9.30印 라자스탄 사원서 압사사고..최소 224명 사망
 10.3 美 7천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안 통과, 터키·쿠르드 반군 교전..42명 사망·17명 부상
 10.6 노벨 생리학상에 독일의 하랄트 추어 하우젠, 프랑스의 프랑수아즈 바레시누시와 리크 몽타니에 등 3명 공동수상
 10.7 노벨 물리학상에 日 고바야시 마코토와 마스카와 도시히데, 난부 요이치로 등 3명 공동수상
 10.8 태 반정부 시위대·경찰 충돌..수백 명 사상, 노벨 화학상에 일본의 시모무라 오사무와 미국 마틴 체피, 로저 쉐 등 공동수상
 10.9 노벨 문학상에 프랑스 작가 장 마리 귀스타브 르클레지오르, 北: 영변 핵시설에 IAEA 검증팀 접근 차단, 미 연방제도준비위원회(FRB): AIG 378억 달러 추가 지원

10.10 노벨 평화상에 마르티 오이바 칼레비 아티사리 핀란드 전 대통령, 美·印: 민간 핵협정 서명
 10.12 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
 10.13 노벨 경제학상에 美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
 10.18 부시, '한국 비자면제국' 공식 발표
 10.22 인도, 달 탐사위성 '찬드라얀 1호' 발사 성공
 10.27 국제통화기금(IMF), 헝가리·우크라이나 등에 구제금융
 10.30 FRB: 한·미 통화스와프 발표, IMF: 신흥시장 달러통화스와프 개설 승인, 인도 북동부서 연쇄 테러..최소 6명 사망
 11.4 버락 오바마, 美 첫 흑인대통령 당선
 11.6 부탄 5대 국왕 최연소 즉위
 11.7 아이티서 학교건물 붕괴..89명 사망
 11.9 러 '핵잠수함 오작동 사고'로 20여명 사망
 11.22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
 11.24 IMF, 파키스탄 구제금융안 승인
 11.25 美: 대규모 모기지 금융지원책 발표, 태 시위대: 방곡 국제공항 난입..승객 3천명 고립
 11.26 EU, 경기부양에 2년간 2천억 유로 투입
 11.26 印 뭄바이 테러(~29일)..195명 사망
 12.1 美 국무 힐러리 클린턴, 국방 로버트 게이츠 유임 공식발표
 12.2 태 집권당 해체
 12.4 佛 사르코지, 260억 유로 경기부양책 발표
 12.8 美 전투기 추락사고로 한인 일가족 3명 참변
 12.9 EU 사상 최대 민간 임무단, 코스보 활동 개시
 12.10 홍콩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닭 8만 마리 살처분
 12.12 美 자동차업계 지원법안 상원통과 실패, EU정상회의: 경기부양책·환경정책 타결
 12.13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사실상 무산, 에라도르: 국제이자 채무불이행 선언
 12.15 태 의회, 새 총리에 아버지 쉘라와 선출
 12.17 美 기준금리 0~0.25%로 운용, 제로금리 선언

12.18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데니스 블레어 전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국가정보국 국장에 내정
 12.20 벨기에 레테름 총리 내각 총사퇴 결정
 12.22 중, 2020년까지 철도에 7천306억 달러 투입
 12.24 美 국무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계속" 발표
 12.30 美 법원: 1968년 북한에 나포됐던 푸에블로호 승무원에 6천5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이스라엘: 하마스에 전면전 선언

2009년

1.3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면적 지상전 개시
 1.7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유 유럽 가스공급 전면 중단
 1.8 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
 1.17 이스라엘, 가자지구 일방적 휴전 선언
 1.19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 타결
 1.2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1.28 국제통화기금(IMF):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2.2%~0.5% 대폭 하향 조정, 미 중앙은행: 연방기금 금리 역대 최저수준인 0~0.25% 유지 결정
 2.8 호주 사상 최악 산불로 173명 사망(7주간)
 2.10 미 상원: 8천380억 달러 경기부양안 통과, 이스라엘 집권 카디마당 총선서 승리
 2.12 소말리아 피랍 한국선원 5명 석방, 미 뉴욕주서 여객기 추락..49명 사망
 2.13 클린턴 미 국무, 亞순방 앞서 "북핵 완전포기 시 정상화 용의"
 2.15 베네수엘라 국민투표,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
 2.16 클린턴 미 국무, 첫 아시아 4개국 순방(~22일)
 2.20 GM 자회사 사브 파산보호 신청
 2.28 오바마 "이라크 전투임무 2010년 8월 종료" 철군 계획 발표
 3.2 다우지수 7천선 붕괴..12년 만에 최저
 3.5 유럽·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사상 최저
 3.11 프랑스, 43년 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복귀 선언

- 3.15 예멘 폭탄테러로 한국인 4명 사망
- 3.17 미 국적 여기자 2명, 북한·중국 접경지역서 취재 중 북한에 억류
- 3.19 IMF, 세계 경제성장률 -0.5%~ -1.0%로 다시 하향
- 3.26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인권결의안 의결
- 3.30 오바마, GM, 크라이슬러 회생안 거부
- 4.2 G20 런던 정상회의 개막
- 4.5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 4.6 이탈리아 중부지역 강진 150명 이상 사망
- 4.11 태국 반정부 시위로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 개막 하루만에 무산
- 4.12 태국,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방곡 비상사태 선포(~24일)
- 4.13 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발사 비난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미국 쿠바 여행·송금 제한 완화, 개방유도 일환
- 4.14 북, 미·국제원자력기구(AEA) 영변 핵불능화팀 추방 명령
- 4.20 제2차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더반 검토회의) 개최, 21일 선언문 채택
- 4.24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기업 3곳 선정, 해외 자산동결, 미국과 멕시코서 신종플루 인체 감염사례 확인, 멕시코 45명 사망 발표
- 4.26 미 신종플루 대응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 4.27 유럽 신종플루 감염사례 첫 확인
- 4.30 WHO: 신종플루 경보수준 5단계로 격상, 전염병 대유행 임박 경고,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신청
- 5.13 EU, 인텔에 리베이트 지급 등 혐의로 10억6천만 유로 벌금 부과, 사상 최대
- 5.16 일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 선출, 인도 국민회의당 총선 압승, 재집권 성공, 스리랑카 정부: 타밀반군에 승리 선언, 26년 내전 종료
- 5.25 북한 2차 핵실험
- 6.1 GM, 파산보호 신청
- 6.11 WHO, 신종플루 경보수준 최상위 6단계로 상향, 대유행 선언-41년 만에 처음
- 6.12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한국인 여성 포함 9명 예멘서 피랍·사망
- 6.13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재선 성공
- 6.25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 6.28 온두라스 군부, 쿠데타 일으켜 마누엘 셀리아 대통령 추방
- 6.29 미 법원,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 거래소 위원장에 징역 150년 선고
- 6.30 예멘 여객기 코모로 해상 추락, 152명 사망
- 7.5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서 대규모 유혈시위, 192명 사망
- 7.6 미·러, 핵탄두 수 1천500~1천675기로 감축 합의
- 7.13 한·EU(유럽연합) FTA 협상 타결
- 7.15 중국: 외환보유액 2조 달러 돌파 발표, 미 재정적자는 1조 달러 초과, 이란 여객기 북서부서 추락, 168명 사망
- 7.16 유엔 안보리, 북한 2차 핵실험 관련 5명 제재 확정, 대북제재에 처음 北 정부인사 포함, 5개 기관 해외 자산동결 추가
- 8.1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타계
- 8.4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회동, 억류 여기자 2명 석방
- 8.28 WHO, 전 세계 신종플루 사망자 2천185명 집계
- 8.30 일본 총선 민주당 압승, 54년 만에 정권교체
- 9.8 금값 온스 당 1천 달러 돌파
- 9.11 대만 지방법원, 천수이볜 전 총통에 종신형 선고
- 9.16 일 하토야마 총리 취임
- 9.21 셀리아 전 온두라스 대통령 브라질 대사관 통해 귀국
- 9.22 유엔본부서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
- 9.24 미 피츠버그서 제3차 G20 정상회의 개최(~25일), 2010년 11월 차기 회의 한국 개최 확정
- 9.25 IAEA "이란 제2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중" 확인
- 9.27 독일 기민당 총선 승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연임, 보수연정 복귀
- 9.30 인도네시아 파당서 강진 발생, 1천명 이상 사망
- 10.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 선정
- 10.5 노벨생리의학상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 존스홉킨스대 캐럴 그리더 교수, 하버드의대 잭 쇼스택 교수 공동수상
- 10.6 노벨물리학상 영국 스탠더드텔레콤연구소 찰스 가오(高), 미국 벨연구소 윌러드 보일·조지 스미스 공동수상
- 10.7 노벨화학상 이스라엘 아다 요나트, 미국 벤카트라만 라마크리슈난·토머스 스타이츠 공동수상
- 10.8 노벨문학상 독일 헤르타 뮐러 수상
- 10.9 노벨평화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수상
- 10.12 노벨경제학상 미국 인디애나대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올리버 윌리엄슨 교수 공동수상
- 10.14 다우지수 1년여 만에 1만선 회복
- 11.2 아프가니스탄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 부정선거 논란 끝에 당선 확정
- 11.4 미 중앙은행 '상당 기간' 제로금리 유지 결정
- 11.12 미, 대(對)이란 경제제재 1년 연장
- 11.13 오바마 아시아 첫 순방(~19일)
- 11.19 초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판 롬파위 벨기에 총리 선출
- 11.22 오바마 미 행정부 건강보험 개혁안 상원 통과
- 11.26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정부, 6개월간 채무상환 유예 요청, 사실상 모라토리엄 선언
- 11.27 타이거 우즈 교통사고, 성추문 증폭, 러시아 열차 폭발테러 50여 명 사망·실종
- 12.1 EU '미니헌법' 리스본 조약 발효, 오바마 미 대통령 새 아프간 전략 발표, 3만 명 추가 파병, 출구전략 제시
- 12.5 러시아 나이트클럽 폭발사고 111명 사망
- 12.6 WHO, 전 세계 신종플루 사망자 9천596명 집계
- 12.7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덴마크 코펜하겐서 개최(~18일)
- 12.8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10일), 북·미 첫 대화
- 12.12 태국, 북한무기 적재한 수송기 돈므앙 공항 억류
- 12.13 인도: 핵탐재 가능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압하지야 공화국 바캅시 대통령 재선 성공

- 12.14 '현대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얼슨 타계
- 12.16 미 하원: 새 이란 제재법안 통과
- 12.19 이란군 이라크 영토 내 유전 침범
- 12.24 미국 상원: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2조3천900억 달러로 2천900억 달러 증액하는 법안 통과(12.28 오바마 대통령 법안 서명)
- 12.27 중국 세계 최고속 우광(武廣)고속철도 개통
- 12.29 러시아·우크라이나 석유수송 분쟁 해결, 中·아세안 2천300억 달러 경제공동체 출범

2010년

- 1.5 중국 외교부: 미국에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즉각 중단 촉구
- 1.12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에서 규모 7.0 강진 발생, 20만 명 이상 사망
- 1.17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선
- 1.25 승객, 승무원 등 90명 태운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지중해에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 1.25 사담 후세인 심복 알리 하산 알-마지드(케미컬 알리) 사형집행
- 1.28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인준안, 상원 전체회의 통과, 연임 확정
- 1.30 중국: 대만에 무기판매 강행한 미국과 군사교류 중단 선언
- 2.1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시아파 성지 순례자 노린 자살폭탄 공격, 54명 사망
- 2.3 이라크 시아파 성지인 카르발라 외곽에서 자살폭탄 공격, 25명 사망
- 2.6 무단 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돼 있던 로버트 박 석방
- 2.7 이란: 보유 유라늄 20%로 고농축 발표
- 2.11 유럽연합(EU) 정상회의서 그리스 지원 '정치적 합의' 도출
- 2.25 우크라이나 신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 2.27 칠레 서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8.8 지진 발생, 700명 이상 사망
- 3.3 그리스 정부: 새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 3.7 나이지리아 중부 조스 부근서 무슬림과 기독교도 유혈 충돌, 300명 이상 사망
- 3.11 칠레 중부에서 규모 7.2 여진 발생
- 3.11 피네라 칠레 대통령 취임, 20년 만의 정권교체
- 3.12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서 자살폭탄 테러 2건 발생, 50명 이상 사망
- 3.21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하원 통과
- 3.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법안 서명
- 4.10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탑승 비행기 추락, 카친스키 대통령 등 탑승자 전원 사망
- 4.14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서 규모 7.1 지진 발생, 2천200명 이상 사망
- 4.14 아이슬란드 남쪽 에이아프알라요쿨 화산 폭발, 화산재로 유럽 항공대란
- 4.20 미국 멕시코만 해상서 영국 석유업체 BP가 운영하던 석유시추시설 '딤피 워터 호라이즌' 폭발, 원유 대량유출로 일대 생태계에 환경 재앙 초래
- 4.21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별세
- 5.2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 그리스에 3년간 1천100억 유로 구제금융 제공 합의
- 5.3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극비 방중(~7일)
- 5.5 우마르 야라두아 나이지리아 대통령 별세
- 5.6 영국 총선서 보수당 승리
- 5.12 리비아 국적 여객기, 트리폴리 공항서 추락, 탑승자 104명 중 103명 사망
- 5.12 영국: 신임 총리로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 임명
- 5.13 태국 반정부 시위 격화, 15일까지 군경-시위대 충돌로 25명 사망
- 5.22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망갈로르공항 착륙 시도 중 추락, 158명 사망
- 5.31 이스라엘 특공대: 가자지구 향하던 국제 구호선 승선자들에 발표, 활동가 9명 피살
- 6.2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사의 표명
- 6.4 일본: 간 나오토 신임 총리 선출
- 6.9 유엔 안보리: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제4차 제재 결의 채택
- 6.19 중국: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결정
- 6.23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설화 파문'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 경질,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신임 사령관 임명
- 6.24 호주: 신임 총리에 여성인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선출
- 6.27 미 법무부: 러시아 스파이 10명 체포
- 7.8 미국·러시아: 스파이 맞교환
- 7.9 유엔 안보리: 천안함 폭침 관련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 7.11 일본 참의원 선거서 집권 민주당 과반수 확보 실패
- 7.15 미국 상원: 금융개혁법안 가결
- 7.21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금융개혁법안 서명
- 7.24 독일 뒤스부르크 음악축제 '러브 퍼레이드'서 대규모 압사사고, 20명 사망
- 7.26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크메르루주 전범 카잉 구엑 에어브에게 35년 금고형 선고
- 7.28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서 152명 탑승 '에어블루' 여객기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 7.29 파키스탄 홍수 악화, 총 1천700명 이상 사망
- 8.5 칠레 수도 산티아고 북쪽 800km 지점 산호세 광산 붕괴, 광부 33명 매몰
- 8.10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식민지 지배 관련 "통절한 반성" 담화 발표
- 8.10 세계보건기구(WHO):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 공식 선언
- 8.19 이라크 주둔 미군의 마지막 전투 여단 철수 완료
- 8.21 이란 첫 원자력발전소 부세르 원전에 첫 연료 주입
- 8.21 호주 연방의회 총선: 여·야 모두 하원 단독 과반수 실패
- 8.25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 8.26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극비 방중(~30일)
- 8.27 카터 전 대통령: 북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데리고 귀국
- 8.30 미국 재무부: 제재대상 북한 기업, 개인 리스트 발표,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포함
- 9.7 일본 해상보안청: 센카쿠 열도의 구바지마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나포, 양국간 외교갈등 시작
- 9.8 일본: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승과 선원 14명 체포
- 9.13 일본: 중국 선원 14명 석방
- 9.18 베이징·상하이·선양·선전 등 지서 반일 시위
- 9.18 아프가니스탄 총선, 부정선거 논란
- 9.24 일본: 중국인 선장 잔치승 석방, 중국·일본 갈등 봉합

9.30 파키스탄: 아프간 나토군으로 향하는 보급로 차단

10.1 중국: 달탐사위성 '칭어2호' 발사

10.8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10.13 칠레 산호세 광산 매몰 광부 33명 구조 완료..매몰된 지 69일 만에 '햇빛'

10.22 프랑스 상원: 퇴직정년 60세에서 62세로 연장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가결

10.25 인도네시아 먼타와이 군도서 쓰나미 발생..400여 명 사망

10.26 인도네시아 머라피 화산 폭발..30여 명 사망

10.27 프랑스 의회: 연금개혁법안 최종 승인..노동계 반발

11.2 미국 중간선거서 공화당 하원 다수당 4년 만에 탈환 / 예멘에서 한국 석유공사 운영 송유관 일부 폭탄 공격에 폭발

11.3 미국 연방준비제도: 2차 양적완화 계획 발표

11.13 미얀마 민주화 운동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65) 7년 만에 가택연금 해제

11.15 중국 상하이 중심가 고층 아파트서 화재..50여 명 사망

11.20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북한서 원심분리기 2천개 봤다" 발표

11.22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축제 중 압사사고 발생..약 400명 사망

11.24 아일랜드 정부: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150억 유로 긴축 재정안 발표

11.28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미국 외교전문 25만 건 공개 개시

11.28 중국 외교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의 제안

11.28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 아일랜드 구제금융안 850억 유로 승인

12.7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수사 관련, 런던 경찰에 자진 출두 및 체포

12.9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평양에서 중국 다이빙귀 외교담당 국무위원 접견

12.10 노벨평화상 시상식: 수상자 류샤오보 불참한 가운데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서 거행

12.12 방글라데시 섬유 업체 근로자 저임금 불만 시위..4명 사망

12.14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신임투표 승리

12.15 독일 정부: 징병제 '사실 상 폐지' 공식 의결

12.16 IMF: 아일랜드 구제금융 225억 유로 승인

12.17 키르기스스탄 신임 총리에 아탐바예프..첫 내각제 정부 출범

12.21 파키스탄: 핵탑재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12.26 北 · 中: 나진항 개발협약..中, 부두 50년 사용

12.27 북북동부 60년래 최악의 폭설..유럽도 피해 잇따라

2011년

1.3 유럽연합(EU) 4대 금융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 유럽은행감독청(EBA)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 유럽증권시장청(ESMA) 공식 출범

1.9 수단 남부지역 분리 독립 국민투표 실시...남수단 분리 독립 99.57% 찬성

1.17 튀니지 과도정부 출범...야권 인사를 포함한 총 23명으로 내각 구성

1.18 베트남공산당 신임 당서기장에 응웬 푸 쯩 국회의장 선출

1.19 오바마 미 대통령: 백악관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1.31 미얀마서 22년 만에 의회 열려...상 · 하원 의장 선출

2.1 압둘라 요르단 국왕: 리파이 총리를 퇴진시키라는 국민 요구 수용해 내각 해산

2.4 미얀마 의회: 군정 핵심인물인 테인 세인(65) 총리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

2.5 미 · 러 새 핵무기감축협정 발표, 이집트 집권당 국민민주당(NDP) 지도부 총사퇴...무바라크 대통령은 당수직에서 사임

2.11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반정부 시위 18일 만에 전격 사퇴

2.14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각 해산...마무드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 내각 사임안을 수용하고 파야드 총리에게 새 내각 구성 지시

2.15 '아랍의 봄' 리비아로 확대...벵가지에서 반정부시위 발발

2.16 일본 · 인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18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현 대통령: 대선 압승...4선 성공

2.25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카다피 친위병력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 개시...사망자 속출 · 트리폴리 주재 미 대사관 폐쇄

2.27 유엔 안보리: 리비아 제재 결의안 채택...무기금수 · 카다피 가족 및 핵심 측근 16명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튀니지의 간누치 총리: 반정부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굴복해 사임...후임 총리에 에세르시 전 외무장관 임명

2.28 유럽연합(EU), 대(對) 리비아 제재 결정...비자발급 중단 · 자산동결 · 무기금수

3.1 유엔: 리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 박탈

3.8 예멘 정부: 수도 사나에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발포...90여 명 부상

3.9 리비아 카다피군: 반정부군이 장악한 라스 라누프의 원유시설 폭격...리비아 원유생산량 3분의 1 이하로 감소하고 수출은 사실상 중단 상태, 미국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마지막 우주비행 마치고 귀환...27년간 39차례 우주왕복

3.11 일본 동북부 해저에서 규모 9.0의 대지진 발생 · 대형 쓰나미 일본 강타...전 세계 지진 관측 사상 4번째로 강력 · 1만9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17조4천억 엔(약 238조원)의 재산 피해

3.12 일본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원전 건물 붕괴로 대규모 방사선 유출 · 반경 20km 주민 대피

3.14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3호기 폭발

3.15 후쿠시마 제1원전 2 · 4호기 폭발, 바레인: 3개월 시효 국가비상사태 선포

3.17 유엔 안보리: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승인하는 결의안 채택...비행금지구역 설정

3.18 예멘: 국가비상사태 선포...시위대 수십 명 사망

3.19 국제사회: 대(對) 리비아 군사작전 '오디세이 새벽' 개시...영국 · 프랑스 · 미국 등 서방국 리비아 공습 시작

3.20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 내각 전원 해임

- 3.23 리비아 반정부세력: 방가지에서 임시정부 출범. 미국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타계...향년 79세
- 3.24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 3.27 나토: 대(對) 리비아 군사작전 지휘권 전면 인수
- 3.29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내각 총사퇴
- 3.30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 3.31 쿠웨이트 내각 총사퇴
- 4.1 미국인 목사의 코란 소각에 격분한 아프간 무슬람: 유엔사무소 공격...최소 12명 사망
- 4.4 아이티 대통령 선거에서 팝스타 미셸 마르텔리(50) 당선
- 4.5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70) 당선
- 4.10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휴전 합의
- 4.11 대선 패배에도 대통령직 이양을 4개월 이상 거부해온 그바그보 대통령 체포...코트디부아르 내전 종식
- 4.18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인민민주당(PDP)의 국력 조너선(53) 당선
- 4.19 이란: 30년 만에 주이집트 대사 임명
- 4.22 일본 국회의원 54명: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 4.25 나토: 카다피 관저 공습...관저 건물 3개동 파괴
- 4.26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 4.27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에 국제인권법 전문가 롭상 상가이(43) 선출
- 4.29 영국 윌리엄 왕자: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평민 신부' 케이트 미들턴과 결혼
- 5.1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미군 작전으로 파키스탄에서 사살
- 5.5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포르투갈에 총 780억 유로(약 120조 원)의 구제금융 지원
- 5.9 쿠바: 50년 만에 관광목적의 해외여행 허용
- 5.10 미국 워싱턴서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최...위안화 절상 '이견', 유럽연합(EU): 대(對) 시리아 무기금수 조치 단행
- 5.11 그리스 양대 노총 총파업...정부의 재정 긴축 조치에 항의
- 5.13 파키스탄 군 훈련장에서 자폭테러로 70명 사망...파키스탄 탈레반 "빈라덴 사살에 대한 첫 보복 공격"
- 5.14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
- 5.16 유럽중앙은행(ECB) 새 총재에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선출
- 5.17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100년 만에 아일랜드 방문
- 5.21 아이슬란드 그림보스튼 화산 폭발...화산재로 유럽지역 항공기 500여편 운항 취소
- 5.24 나토군: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축출을 위해 수도 트리폴리에 사상 최대 규모의 폭격 가해
- 6.3 살레 예멘 대통령: 반정부세력 포격으로 부상입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
- 6.5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쿠바 방문...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 논의
- 6.6 페루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오안타 우말라 당선...36년 만에 좌파정권 복귀
- 6.14 미국 애리조나 대규모 산불...피해 면적이 46만9천 에이커(1천898km²)로 주(州)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
- 6.2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임 성공...유엔 총회에서 5년 연임안 192개 회원국 박수로 통과
- 6.25 오바마 미 대통령: 차기 주한미국 대사에 성 김(51) 6자회담 특사를 공식 지명
- 6.28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 국제통화기금(IMF) 첫 여성 총재로 선출
- 6.29 미국의 AP통신: 북한 평양에 종합지국 개설 계획 발표
- 7.3 태국 총선서 제1야당 푸어타이당 승리...첫 여성 총리에 잉락 친나왓(44)
- 7.8 시리아 하마에서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이래 최대 인파인 45만 명이 참가한 시위 열려...최소 13명 사망
- 7.9 남수단: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 선포...193번째 주권국가 탄생
- 7.10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의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뉴스오브더월드 도청 및 해킹 파문으로 폐간
- 7.13 미국: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철군 개시...2014년까지 완료
- 7.16 오바마 미 대통령: 중국 반발 속에 달라이 라마와 면담...“티베트인 인권 보호 중요”, 브라질: 남미대륙 정치기구인 남미국가연합에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7.25 베트남 새 국가주석에 썬응떤상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
- 7.29 북·미 대화 미국 뉴욕서 1년7개월 만에 재개...비핵화 선행조치·6자회담 재개 등 논의
- 8.3 유엔: 시리아 규탄 의장성명 채택...3월 반정부시위 이후 첫 공식조치
- 8.5 S&P: 미국 신용등급 70년 만에 처음으로 1단계 강등...AAA에서 AA+
- 8.6 미 1급 작전팀 헬기: 아프간서 탈레반 로켓포 공격으로 격추...38명 전원 사망, 영국 토트넘에서 경찰 총격에 반발한 폭동 발생...영국 전역으로 확산
- 8.11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런던과 잉글랜드 도시에서 일어난 폭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와의 전쟁' 선언
- 8.17 터키: 자체 개발 첫 인공위성 라사트(RASAT) 발사 성공
- 8.24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북·러 정상 회담...6자회담 재개 합의·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을 위한 남북·러 3국 특별위원회 발족 등 경제협력 합의
- 8.26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사임
- 8.27 싱가포르 대통령 선거서 친여당 후보 토니탄(71) 전 부총리 당선
- 8.30 노다 요시히코(54) 민주당 대표: 제95대 일본 총리로 취임
- 9.2 위키리크스: 미 외교전문 25만 건 모두 공개...한반도 관련 1만2천여 건·김정일 1천 건
- 9.3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남동부 지역에 산불 발생...수백만 평의 수풀 태워 고속도로 폐쇄되고 주민 대피령
- 9.9 오바마 미 대통령: 4천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9.17 미국 뉴욕에서 소득 불평등과 금융권의 탐욕에 항의하는 '월가 점령(Occupy)' 시위 시작
- 9.18 예멘 정부군: 반정부 시위대에 발포...최소 24명 사망·700명 이상 부상

- 9.22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개발 중단' 대북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9.25 케냐의 파트릭 마카우(26):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03분 38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
- 9.29 중국: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1호 발사 성공
- 10.6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56): 8년간 회장직 맡아 투병 끝에 사망
- 10.7 노벨평화상에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엘렌 존슨-설리프(73) 라이베리아 대통령 · 라이베리아 평화운동가 레이마 보위(39) · 예멘 여성운동가 타우왈쿨 카르만(32) 선정
- 10.12 미국 상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보복 법안 가결, 태국 대규모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에 재난지역 선포
- 10.15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개막(~18)
- 10.18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이스라엘 피랍병사 길라드 샬리트를 5년 만에 석방...팔레스타인 포로 1천27명과의 맞교환 방식
- 10.20 리비아 시민군: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69) 사살...8개월에 걸친 내전 종식
- 10.21 북 · 미: 미군 유해발굴 사업 재개 합의, 카메룬 대통령 선거에서 폴 비야 현 대통령 승리...6선 성공
- 10.22 오바마 미 대통령: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 서명
- 10.23 리비아 과도정부: '해방' 공식 선포, 튀니지에서 제헌의회 선거...‘아랍의 봄’ 이후 첫 선거
- 10.24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 · 미 2차 고위급 대화 개최(~25)...김계관 · 보즈웬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사전조치 이행 문제와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등을 논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선 성공...1차 투표서 득표율 53% 넘어 압승
- 10.25 예멘 정부와 반정부군 휴전 합의
- 10.31 세계인구 70억 명 돌파, 팔레스타인: 유네스코 정회원국 가입
- 11.3 프랑스 칸에서 G20 정상회의 개막...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논의
- 11.7 과테말라 대선 결선투표서 군장성 출신의 우파 정치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61) 당선...36년간의 내전 종식 이후 첫 군 출신 대통령
- 11.8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3선 성공
- 11.11 그리스 과도 거국내각 출범...새 총리에 루카스 파파데모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 선임
- 11.12 오바마 미 대통령: 9일간의 일정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순방 개시...18~19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
- 11.13 이탈리아 최장수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5) 사임...후임에 마리오 몬티(68) 상원의원 임명
- 11.14 제19차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녹색산업 무역을 촉진하자는 ‘호놀룰루 선언문’ 채택, 중국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天宮) 1호와 무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8호 우주 도킹 성공
- 11.17 구글: 1300만 곡 음원 제공하는 ‘구글 뮤직’출시...애플 아이튠스에 도전
- 11.18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 핵개발 비난 결의안 채택
- 11.21 이집트 예삼 샤라프 총리 내각 총사퇴...시민 · 군부 유혈사태 확산 책임
- 11.22 리비아 과도정부 새 내각 발표...압델라힘 알 키브 신임 총리 임명, ‘아랍의 봄’ 발원지 튀니지에서 민주의회 개회, 중국 인민해방군: 첫 육해공 통합 전략부서 창설
- 11.23 33년 장기 독재 살레 예멘 대통령: 권력이양안 서명
- 11.25 이집트 군부: 카말 간주리 전 총리를 신임 총리로 임명
- 11.27 아랍연맹: 시리아 경제제재 합의...정부 자산동결 · 중앙은행과 금융거래 중지 등, 미 항공우주국: 화성 무인탐사선 ‘큐리오시티호’를 실은 아틀라스 V 로켓 발사...2012년 8월 화성 도착 예정
- 11.30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미안마 방문(~12.2)...미안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 회동, 영국 공공노조 긴축 반대 총파업...연금 개혁 반발 260만 명 참가
- 12.1 미국 ‘월가 점령’ 시위 73일 만에 종료...로스앤젤레스(LA) · 필라델피아 시위대 강제 해산
- 12.2 세르비아 · 코소보: 유럽연합(EU) 중재로 국경 공동관리 합의
- 12.4 러시아 총선서 푸틴 총리의 통합 러시아당 승리
- 12.5 파리에서 독일 · 프랑스 정상회담...재정통합 골자 ‘EU 안정 · 성장협약’ 개정 추진, 벨기에 연정 구성 ‘541일 무정부’ 마감...신임 총리에 사회당 당수 엘리오 디 뤼포 임명, 타이거 우즈: 세브론 월드챌린지 골프대회서 2년 만에 우승
- 12.7 예멘 연립정부 구성 발표...신임 총리에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바신드와 지명
- 12.8 일본: 중국 내 공간 진입 탈북자 보호 포기...중국 정부에 서약서 제출
- 12.10 러시아 부정부패 혐의시위 전국 확산...모스크바 5만 명 · 상트페테르부르크 7천 명 시위
- 12.11 남아공 더반서 열린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서 교토의정서 연장 · 2020년 새 체제 출범 합의, 미군: 파키스탄 공군기지에서 10년 만에 철수
- 12.12 튀니지 새 대통령에 반체제 인사 출신 몬세프 마르주키(66) 선출
- 12.15 미국: 이라크전 종전 선언...9년 전쟁 동안에 8천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이라크인 10만 명 · 미군 4천500명 사망
- 12.16 러시아: 세계무역기구(WTO)의 15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
- 12.18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완료
- 12.19 미국: 김정일 사망 소식에 국가안보회의 열고 ‘비상대기’ · 일본: 각료와 자위대에 ‘경계 태세’주문 · 중국: 가장 먼저 공식적인 ‘애도 표명’
- 12.20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북한 주민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성명 발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의차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방문, 쿠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 선포
- 12.21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진압 군인 · 경찰이 여성 시위대원을 폭행한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이집트 여성 약 1만여 명 참석
- 12.26 베이징에서 중국 · 일본 정상회담...김정일 사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 유지가 관련국 공통의 이익이라는 데 인식 같이하

2012년

- 1.5 이집트 검찰: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
- 1.13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정치범 등이 포함된 651명에 대한 대규모 특사 단행, 이탈리아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32명 사망·한국인 탑승객 34명 전원 구조
- 1.14 친(親)중국파 대만 집권 국민당의 마잉주(62) 총통 재선 성공
- 1.15 인도: 외국인의 증시 직접 투자 허용
- 1.16 AP통신사: 서방 언론사 최초로 북한 평양 조선중앙통신 빌딩에 'AP 평양지국'개설, S&P: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 AAA에서 AA+로 강등
- 1.23 유럽연합(EU):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합의...이란: EU 원유수출 중단 경고
- 1.30 벨기에에 노동계: 유럽연합(EU)과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해 20년 만에 총파업 단행
- 2.1 이집트 축구장 난투극으로 73명 사망·1천여 명 부상...당국 미숙한 대응에 대규모 시위 비화
- 2.7 오바마 미 대통령: 미국 내 이란자산 동결 '행정명령'에 서명,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대통령 하야 선언 발표
- 2.9 중국 왕리진(王立軍) 충칭시 부시장의 미 총영사관 망명시도 알려져 파문
- 2.10 미국: 모하메드 와히드 신임 대통령이 이끄는 새 몰디브 정부 승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30년 만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승인...조지아주(州) 보그틀에 있는 기존 원전시설에 2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
- 2.11 '팝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48) 사망
- 2.12 그리스 긴축안 의회 통과...8만여 명 격렬 항의 시위
- 2.16 유엔 총회: 시리아의 시위 유혈 진압을 규탄하고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 2.21 프랑스 검찰: 매춘 연루 혐의로

-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긴급체포
- 2.22 미국 애틀랜타 사우나에서 한인 총기난사...5명 사망
- 2.23 북·미: 베이징서 김정은 체제 후 첫 회담...비핵화 사전조치·대북 식량지원 등 논의
- 2.26 시리아 대통령 임기를 7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실시...국제사회: 아사드 대통령이 최장 16년간 권좌를 더 유지할 수 있어 "국민투표는 아사드 정권의 사기"라고 비판
- 2.27 S&P: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 CC에서 SD(선택적 디폴트)로 강등
- 3.2 유럽연합(EU) 25개국 정상: 신(新)재정협약에 서명...회원국 재정운용 규제 강화
- 3.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모스크바에서 대규모 반(反)푸틴 시위
- 3.14 중국 공산당: 보시라이(薄熙來) 총칭시 서기 해임...'보시라이 스캔들' 본격화
- 3.18 독일 신임 대통령에 요아힘 가우크(72) 선출...옛 동독 민주화 운동가 출신
- 3.22 유엔 안보리: 시리아 폭력종식 성명서 채택, 아프리카 말리에서 쿠데타...군(軍) 정권 장악
- 3.27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아랍연맹-유엔 평화중재안 수용
- 4.1 미얀마 첫 민주적 보궐선거 실시...아웅산 수처 여사: 첫 원내 진출
- 4.2 미국 캘리포니아 오글랜드 오이코스대학에서 한국계 총기난사...7명 사망, 러시아 시베리아 중부도시 튜멘에서 공항을 이륙하던 여객기 추락...32명 사망·11명 부상
- 4.8 아프리카 남부 말라위 첫 여성 대통령 조이스 반다(62) 취임...무타리카 대통령 급사로 승계
- 4.10 캐머런 영국 총리: 일본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정상회담...무기 공동개발 합의, 중국: 보시라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직 정지 처분...사실상 정치생명 끝나
- 4.13 북한: 국제사회 비난 속 '광명성 3호 위성' 로켓 발사 강행...실패, 시리아 정부: 휴전 합의 이행(12일) 하루 만에 반정부 시위대에 발표, 캐머런 영

- 국 총리: 미얀마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미얀마에 대한 제재 완화 등 논의
- 4.14 중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0.5%에서 1.0%로 확대
- 4.15 아프간 탈레반: 수도 카불과 동부 3개 주에서 동시 다발 테러 공격 단행...대통령군·의사당·각국 대사관 피격
- 4.16 유엔 안보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렬히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 채택,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州) 토네이도 강타...5명 사망·8천 가구 정전
- 4.19 미국·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8천600명을 감 등 일본 밖으로 이전 합의
- 4.20 일본 국회의원 80명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인근에서 악천후 속에 여객기 추락...탑승객 127명 전원 사망
- 4.22 중국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가택연금 탈출...주중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
- 4.25 파키스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 4.29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초청으로 미얀마 공식 방문
- 5.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에서 이웅산 수처 여사와 첫 회동...미얀마 민주화에 관한 의견 교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백악관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군비중강을 계속하는 중국 의식 양국군의 공동 정찰활동 강화 합의
- 5.4 중국: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의 유학 허용...미국 망명 사실상 수용
- 5.6 프랑스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17년 만에 좌파로 정권 교체
- 5.12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등 도시 80여 곳에서 대규모 긴축반대 시위...최소 10만 명 참가
- 5.15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옛 소련권 7개국의 군사동맹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 개최...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7개 회원

- 국 정상 참석
- 5.17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학생·교사·일반 시민 등 10만 명이 참가한 교육개혁 시위…피네라 대통령 지지율 24%로 추락
- 5.18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州)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이들 일정으로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개막…유로존위기 논의
- 5.19 '가택연금 탈출' 중국 인권변호사 천광칭 미국행
- 5.20 이탈리아 북동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에서 강진…7명 사망· 이재민 4천500명
- 5.21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미국 시카고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아프간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중점 논의
- 5.22 피치: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한국과 동일
- 5.25 미국 첫 민간우주선 '드래건' 우주정거장과 도킹 성공
- 5.29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확정, 찰스 테일러(64)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국제재판소에서 첫 국가 정상 단죄
- 6.2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징역 25년 형…사실상 종신형,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즉위 60주년(다이아몬드 주빌리)…기념행사 개막
- 6.5 스페인: 유럽연합(EU)에 1천억 유로(약 146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신청…EU서 4번째, 시리아: 미국 대사를 비롯한 시리아주재 서방국가 외교관 17명에 추방 명령
- 6.6 페루서 한국인 8명 탄 헬기 실종…전원 사망
- 6.9 오바마 미 대통령: 백악관서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중국 견제 해상안보 협력 강화 합의
- 6.13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 스위스·노르웨이·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 순방…14일 스위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노르웨이 오슬로서 노벨평화상 수상 등
- 6.14 튀니지 군사법원: 벤 알리 전 대통령에 종신형 선고…작년 재스민 혁명 유혈 진압 혐의, 미국 콜로라도·뉴멕시코주(州)에서 초대형 산불 발생…2억㎡에 달하는 면적의 삼림 태워
- 6.15 홍콩증권거래소(HKEX):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거래소인 영국의 런던금속거래소(LME) 인수…인수가 2조5천억원
- 6.16 중국 첫 유인우주선 선저우9호 발사…18일 우주정거장 텐궁1호와 도킹 성공
- 6.19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막(~20)
- 6.21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개막(~23)…세계 190여 개국 정상·정부대표 등 5만여 명 참석
- 6.23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 의회 탄핵으로 사임
- 6.24 이집트 새 대통령에 무함마드 무르시 당선…60년 만에 첫 민선 대통령
- 6.26 일본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중의원(하원) 통과…현행 5%를 2014년에 8%·2015년에 10% 인상
- 7.1 멕시코 대선서 아권 후보 페냐 니에토 승리…12년 만에 정권교체
- 7.4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힉스 입자'로 추정되는 소립자 발견 발표
- 7.5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협정 체결, 유럽 최고층 빌딩인 영국 런던의 '더 샤드' 완공…310m 높이 87층
- 7.6 러시아 남서부 크라스노다르주(州) 일대 이상 폭우로 최소 17명 사망
- 7.7 리비아서 반세기 만에 첫 민주화 선거 실시…제한 의회 선출
- 7.11 미국: 미얀마 정부의 개혁조치에 화답하기 위해 미얀마 주재 대사를 22년 만에 파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금융 및 실물 분야 협력 사업 합의
- 7.12 시리아 하마에서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의 공격으로 민간인 등 200여 명 사망…13일 '하마 학살극' 영상 공개돼
- 7.17 리비아 의회선거서 자유주의 성향 국민연합당 승리…카다피 축출 이후 첫 민주선거
- 7.19 인도 대선에서 프라납 무커지 전 재무장관이 제13대 대통령에 당선, 튀니지 법원: 아비디네 벤 알리 전 대통령에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 혐의로 종신형 선고
- 7.20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14명 사망
- 7.28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 개막(~8.13) …한국: 금 13개로 종합순위 5위 달성
- 7.30 인도서 이틀간 세계 최대 규모 정전…인구 절반인 약 6억 명 피해
- 8.1 세계은행(WB): 미얀마 양곤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25년 만에 자금 지원 재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세네갈·남수단 등 아프리카 7개국 순방…중국의 영향력 경계 및 이슬람 무장세력의 안보 위협 논의
- 8.5 미국 위스콘신주의 시크고 사원에서 총기난사…7명 사망
- 8.6 미국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화성 착륙 성공
- 8.10 일본: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에 주한 일본대사 본국 소환…한·일 독도 갈등 고조
- 8.11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시(市) 인근에서 규모 6 이상 강진 두 차례 발생…최소 200명 이상 사망·2천명 부상
- 8.15 홍콩 시위대: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상륙, 일본: 섬에 상륙한 홍콩 활동가 14명 전원을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
- 8.16 남아공 마리카나 백금 광산에서 파업 중인 광부들에 경찰이 발포…34명 사망
- 8.17 러시아 법원: 반(反)푸틴 공연을 펼친 5인조 여성 펑크록 그룹 푸시 라이엇 멤버에게 징역 2년 선고
- 8.19 중국 광둥성 성도 광저우·선전·저장성 항저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일시위 열려…일본 상품 불매 움직임도, 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을 연결하는 총연장 7천800km의 초고속 해저 광케이블 개통…초당 40기가비트 데이터 전송
- 8.20 미얀마: 언론 사전검열제 폐지, 중국 법원: 보시라이 전 총칭시 당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에게 사형유예 선고…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 독살 혐의
- 8.25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 별세…

향년 82세

9.1 아르메니아: 헝가리와 외교관계 단절...자국 장교 살해한 아제르바이잔 장교 석방에 항의

9.7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과 구이저우(貴州)성 접경지대에서 규모 5.7·5.6 지진 잇달아 발생...최소 89명 사망·820명 이상 부상·2만여 채 건물 파손

9.11 파키스탄서 잇단 공장화재로 이틀간 최소 314명 사망, 이집트·리비아서 이슬람 모독 영화에 항의하는 반미시위 발발, 리비아 뱅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4명 사망, 일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 섬 3개 국유화 완료

9.12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요구 '100만 명' 시위

9.14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3만여 명 대피

9.15 중국: 40년 만에 최대 반일시위...베이징 등 중국 내 80개 도시서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에 항의

9.24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호' 취역, 미얀마 대통령 46년 만에 미국 방문...테인 세인 대통령: 제6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

9.26 일본 자민당 총재에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 선출

10.7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선 승리...4선 연임 성공

10.8 파키스탄 10대 여성권리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탈레반에 피격

10.10 S&P: 스페인 신용등급 BBB-로 2단계 강등...투기등급 바로 위 수준

10.11 유럽연합(EU): 노벨평화상 수상...2007년 이후 첫 단체 수상

10.18 그리스 건축 반대 총파업...전국 마비

10.19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성공...15년 만에 재진출·2013~14년 임기, 소설가 모옌: 중국 국적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

10.26 허리케인 '샌디' 카리브해 강타...아이티·쿠바 등지에서 122명 사망

10.29 '샌디' 미국 동부 상륙...131명 사망

10.31 유엔: 동티모르에 치안권 완전 이양

11.3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일본 방문

11.6 미 대선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

11.7 과테말라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7.4 강진...사망자 48명·실종자 100여 명

11.8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14일)...시진핑 체제 공식 출범

11.10 미국 CIA 퍼트레이어스 국장 성추문에 사임...'불륜' 스캔들 일파만파

11.11 시리아 반정부 단일 연합체 시리아국가연합(SNCORF) 결성

11.14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시작...하마스 군사령관 사망, 유럽 23개국에서 수백만 명 긴급 반대 총파업...항공기 700편 결항·대중교통 마비

11.19 오바마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 방문

11.20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Aaa에서 Aa1으로 강등...최고등급 박탈, 일본의 도쿄·오사카 증권거래소 합병

11.21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팔레스타인 160명·이스라엘 5명 사망

11.22 피치: 일본 소니의 신용등급을 '정크'수준인 'BB-'로 세 단계 강등

11.24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대형화재로 121명 사망

11.29 팔레스타인: 유엔 비회원 옵서버 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 지위 격상 성공

12.4 필리핀 남부 초대형 태풍 '보파' 강타...902명 사망·934명 실종

12.6 이집트 '헌대판 파라오 헌법'에 반대 시위 격화...유혈충돌로 6명 사망·446명 부상

12.7 라오스 의회: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158번째 회원국

12.9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서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12.12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

12.14 미국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서 총기난사...어린이 등 28명 사망

12.16 일본 총선서 자민당 압승...3년3개월 만에 정권 탈환·새 총리에 아베 신조

12.26 중국: 단일 고속철도 구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총 2,298km의 징광 고속철(베이징~광저우) 전면 개통

2013년

1.8 미국 연방 대법원: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허용

1.14 쿠바: 반세기 만에 해외여행 자유화 허용

1.15 볼리비아 유엔 반(反)마약 협약 재가입, 시리아 알레포 대학에서 2차례 폭발...82명 사망·160명 이상 부상

1.16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긴장완화 합의...양국 군 사령관급 전화통화서 "2003년 휴전합의 지지"

1.2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1.22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에 외국인 이 포함된 사형수 용병부대 1천200여 명 파병

1.2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에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결의안 채택...조선 우주공간기술위 등 기관 6곳·개인 4명 추가 제재

1.27 체코의 첫 대통령 직선에서 밀로스 제만 전 총리 당선, 브라질 남부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300km 가량 떨어진 산타 마리아 시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화재 발생...242명 사망

1.28 이란: 원숭이 태운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

1.30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원의혹' 시리아군 연구시설 공습...5년 만에 다시 시리아 타격

2.4 유럽 공동 경찰기구인 유로폴: 월드컵·유럽챔피언스리그 등 전 세계 700경기에서 조직적인 승부조작을 저지른 범죄조직 적발

2.5 이란 대통령 단교(1980년) 후 첫 이집트 방문...무르시 이집트 대통령 직접 공항 나가 영접

2.6 3D 프린터로 세계 최초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사'...영국 에든버러 헤리엇-와트 대학 연구진 성과

2.7 미국: 이란산 석유 수입 국가가 석유 대금을 이란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 시행

2.11 파키스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2.15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지역에서 '운석우' 낙하...1천여 명 부상

2.19 중국: 하이난 섬에 내·외국인을

- 대상으로 한 카지노 영업 허용...중국 대륙 내 도박 첫 허용
- 2.22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첫 개최
- 2.23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첫 정상회담...“북핵 강력 대응”
3. 1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 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효
3. 5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14년 장기집권 끝에 암으로 사망
3.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확대 추가 결의안 채택...선박검색·금융제재 추가
3. 9 제4대 케냐 대통령에 우후루 케냐타(5) 부총리 당선...케냐 첫父子 대통령 탄생
- 3.10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정규리그 17경기 연속 골 기록...세계 신기록
- 3.12 포클랜드서 이틀간 치러진 주민투표서 주민 99.8% “영국 영토로 남자”에 투표...영유권 분쟁 아르헨티나 “효력 없어”
- 3.13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첫 아메리카대륙·예수회 출신 교황
- 3.1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
- 3.21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3.22 미국 세출법안 하원 통과...연방정부 폐쇄 사태 모면
- 3.25 유로존 회원국들: 키프로스 구제금융 조건 승인...100억 유로(약 14조4천억원) 받는 조건으로 금융부문 과감히 축소
- 3.27 제5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브릭스판 세계은행 설립 합의, 아랍연맹(AL): 시리아 반정부세력에 대한 '군사지원 권리'에 합의
- 3.28 태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남부 이슬람 반군 민족해방전선(NRF)과 사상 첫 평화협상 개시, 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미국 맨해튼 파산법원 아메리칸항공과 US항공의 합병 계획 승인
- 3.29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에라리온·세네갈·말라위·카보베르데 등 아프리카 4개국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중국에 '맞붙',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신임 사령관에 필립 브리드러브 미 공군대장 임명
- 3.30 이집트·이란 직항 항공편 30여년 만에 재개
- 3.31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후 첫 부활절 미사에서 한반도 화해 위해 기도
4. 1 미얀마서 50년 만에 민간 신문 발행
4. 3 현대·기아차 미국서 차량 190만대 리콜
4. 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CIJ): 부유층 조세회피처 악용실태 본격폭로...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재산을 은닉한 수천 명의 신상 공개
4. 8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뇌졸중으로 타계...향년 87세
- 4.15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테러...3명 사망·260여 명 부상
- 4.20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9의 강진 발생...200여 명 사망·실종
- 4.25 방글라데시 영세 의류공장 붕괴...최소 380명 사망
- 4.30 빌럼 알렉산더르(46) 네덜란드 왕세자: 어머니인 베아트릭스(75) 여왕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왕위에 올라
5. 7 중국: 미국 대북 제재 첫 동참...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중단 발표
- 5.11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300만년 만에 400ppm 돌파
- 5.23 '상송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프랑스 가수이자 작곡가 조르주 무스타키 별세...향년 79세
- 5.26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대일 부채 약 2천억 엔(2조2천112억원)을 탕감하는 동시에 910억 엔(1조61억원) 규모의 개발원조(ODA) 제공 약속, 바이에른 뮌헨 2012~2013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 5.30 터키: 이스탄불 공원 보존 집회 강경 진압...“권위주의 반대” 반정부 시위 급속 확산
- 5.31 국제통화기금(IMF): 그리스에 22억 6천만 달러(약 2조5천6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추가 지원
6.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카리브 지역 8개국 정상들과 회담...쿠바와도 협력 협정 체결, 중국 지린성 더후이(德惠)시의 대형 양계·육류가공 공장에서 화재 발생
6. 6 영국 가디언지 '스노든 파일' 첫 폭로기사 게재...“미국 정보기관이 시민 수백만 명의 전화기록 수집해”
6. 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캘리포니아 주 랜초미라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합의
- 6.11 중국: 주취안(洵川)위성발사센터에서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0호 발사 성공
- 6.13 미국 연방대법원 '인간유전자는 특허대상 아니다' 판결
- 6.14 노르웨이 의회: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통과...2015년부터 여성들은 1년간 병역의무 이행
- 6.15 이란 대선에서 중도파 성직자 출신 하산 로하니 후보가 제11대 이란 대통령으로 당선
- 6.19 나토군: 아프가니스탄군에 치안권 최종 이양, '철의 장막'을 견어낸 줄리호른 헝가리 전 총리 별세...향년 80세
- 6.23 사우디아라비아서 주말을 목·금요일에서 금·토요일로 변경
- 6.25 이탈리아 법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뇌물 등 권력남용 혐의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7년형 선고
7. 1 크로아티아 유럽연합(EU) 가입
7. 3 이집트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군부 개입으로 실각
7. 6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0214편 여객기 착륙 도중 충돌...승객 3명 사망
7. 8 이집트군: 카이로의 공화국 수비대 본부 앞에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파 시위대를 향해 발포...70명 사망·500명 부상
7. 9 영국: 런던은행 간 금리(리보)의 관리권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운영하는 NYSE유로넥스트에 넘기기로 결정
- 7.10 유럽연합(EU): 라트비아의 유로지역(유로화 사용 국가) 가입 공식 결정
- 7.13 '탈레반 피격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16) 유엔본부서 연설...“아동 의무교육 보장해야”·유엔 '말랄라의 날' 선포
- 7.15 파나마: 무기류 위장수송 북한선박 청천강호 억류, 조던 스피스(19·미국):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디어 클래식 우승...82년 만에 나온 10대 우승자

- 7.16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로 통합
- 7.18 중국과 독일을 잇는 1만214km의 화물열차 노선 개통
- 7.19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 시(市) 파산 선언
- 7.21 일본의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승...향후 3년 아베 총리 독주 길 열려, 벨기에의 필립(53) 왕세자 국왕으로 즉위
- 7.22 중국 간쑤성 민(岷)현에서 규모 6.6의 지진 발생해 88명 사망
- 7.28 이집트서 무르시 찬반 진영과 당국 진압대 충돌로 최악의 유혈사태...74~120명 사망 추정
- 7.30 16세 미국 소녀 케이티 레데카: 스페인에서 열린 2013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5분 36초53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
8. 6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경영난 끝에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 매각
- 8.15 헤이룽장성·지린성·네이멍자치구 등 중국 동북지역 30년 만에 최악의 수해로 85명 사망
- 8.16 이집트 전국에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시위대와 군경 충돌로 173명이 숨지고 1천330명 부상
- 8.18 일본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櫻島) 화산 폭발...연기 5천m까지 치솟아
- 8.20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해 헌화
- 8.21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서 화학무기로 민간인 학살...미국 추정 1천429명 사망, 아랍권 최대 위성 방송사인 알 자지라: 미국 전역에 첫 방송 내보내
- 8.22 중국서 '새 변종'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병...H7N7 계열로 독성이 더 강하고 발병 매개체는 오리, 뉴욕 양키스의 일본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 미국·일본 리그 통산 4천 안타 대기록 달성
- 8.23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 중심부에 있는 수니파 모스크(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연쇄 차량 폭탄테러 발생...47명 사망·500여 명 부상
- 8.30 스위스 남부 알프스 지역 지하를 통과하는 57km의 세계 최장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 관통
9. 2 마이크로소프트(MS):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54억4천만 유로에 인수한다고 발표
9. 7 호주 총선서 토니 애벗 자유당 대표가 이끄는 보수 야당연합(자유+국민당) 승리...6년 만에 정권교체, 제70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이탈리아 감독 지안프란코 로시의 다큐멘터리 '사크로(Sacro) GRA(성스러운 도로)'가 황금사자상 수상...다큐멘터리 부문의 황금사자상은 최초
- 9.10 제9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 토마스 바흐(60·독일) IOC 부위원장 선출
- 9.12 네덜란드: 식민시대 인도네시아 주민 학살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학살 자행 67년 만의 사과
- 9.13 시리아 정부: 러시아 중재안 수용하며 화학무기 포기 선언...유엔(UN)에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문서도 제출
- 9.14 짐 퓨릭(미국):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인 BMW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매직넘버'인 59타 기록
- 9.15 미국·러시아: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유보하는 합의안 타결...시리아의 화학무기를 2014년 상반기까지 폐기하는 조건
- 9.16 미국 워싱턴D.C. 해군 복합단지에서 총기난사...최소 13명 사망,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의 시나봉 화산(2,460m) 분출...4천여 명 대피
- 9.19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850억 달러 양적완화·초저금리 정책 유지 결정
- 9.21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웨스트게이트에서 이슬람 무장세력 테러...민간인 등 72명 숨쳐
- 9.24 유럽연합(EU) 17개국 장관들: 인종차별 반대 '로마 선언' 채택,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규모 7.7의 강진 발생...주민 500여 명 사망
- 9.26 한국 등 5개국 참여 중견국협의체 'MIKTA' 출범...멕시코·호주·인도네시아·터키 등 참여, 국제형사 사법기구인 시에라리온 특별법정(SCSL) 재판부: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등 11개 죄목으로 기소된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항소심서 50년형 확정
- 9.27 파나마: 미신고 무기류를 신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지난 7월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에 벌금 10만 달러(약 10억7천만원) 부과
- 9.2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9.29 중국 대규모 아동유괴 조직 적발...301명 체포·아동 92명 구출
10. 1 여야 정쟁에 미 연방정부 17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돌입...10월 16일 상·하원 셧다운·디폴트 협상안 가결로 미국 국가부도 위기 모면
10. 4 일본 도쿄대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 희스 입자가 붕괴해 다른 소립자로 변하는 패턴 등을 조사한 결과 희스의 존재 확증...희스 질량은 양자의 134배
- 10.10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탈레반 총격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16) 유럽 최고 권위의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
- 10.11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화학무기금지기구 선정
- 10.15 필리핀 중부 세부 인근의 보홀 섬에서 규모 7.2의 강진 발생...약 200명 사망·실종
- 10.18 사우디아라비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직 거부...“안보리 시리아 사태서 너무 무능해”
- 10.24 그린란드: 대규모 자원개발 첫 허용...영국업체에 30년간 철광석 채굴권을 부여하고 우라늄 채광 금지도 해제
- 10.25 '중국 최대 정치사건' 보시라이(薄熙來) 전 총칭시 당 서기 재판 종결...상소심에서도 패소해 무기징역 확정
- 10.26 독일 주간지 슈피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02년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감청해왔다고 보도...독일·미국 최악 외교 갈등
- 10.29 '유럽·아시아 잇는' 터키 보스포러스 해저철도 개통...해저철도 구간(1.4km)을 포함해 터널 13.6km 건설
11. 1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총격 사건 발생...보안요원 1명 사망·7명 부상, 미국 무인항공기 공격으로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 하키물라 메수드 사망
11. 5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동부지역에서 기승을 부린 반군 M23 그룹을 완전히 격퇴했다며 승리 선언...M23 그룹 "반군 활동 중단" 성명
- 11.10 '슈퍼 태풍' 하이옌(Haiyan) 필리핀 강타...당국 "사망자 1만 명 넘을 수 있어"
- 11.11 국제사법재판소(CJ) "프레야 비히

어 사원과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다”고 판결·태국·캄보디아 영토문제 막 내려

- 11.13 시리아 쿠르드족 과도정부 수립 선언, 미국 내 3위 아메리칸항공(AA)과 5위 US에어웨이 합병·세계최대 항공사 탄생
- 11.17 러시아 서남부 카잔공항에서 타타르스탄항공 소속 보잉737 여객기 착륙 도중 추락해 탑승객 50명 전원 사망
- 11.23 중국: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 구역’ 설정·한·일 반발, 우크라이나에서 ‘EU협력 협약 무산 반대’ 대규모 집회·정권 퇴진 운동으로 격화
- 11.24 이란: 제네바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과 핵협상 극적 타결·이란은 향후 6개월간 핵개발을 억제하고 미국 등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 12. 5 벨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타계·향년 95세
- 12. 6 일본: 무기수출 금지 원칙 폐지·“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수출 가능”
- 12. 7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 출범 이후 첫 ‘세계 무역협정’ 타결·1조 달러 경제효과 기대
- 12.11 우루과이서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 합법화 승인
- 12.14 아일랜드: 유로 위기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제금융에서 공식 졸업, 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 달 착륙 성공·미·러 이어 세 번째
- 12.16 칠레 대통령에 중도좌파 여성 후보 미첼 바첼레트(62) 당선
- 12.17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해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기로 합의·150억 달러 지원하고 천연가스값 3분의 1 인하·우크라이나와 EU 경험 사실상 물 건너가
- 12.18 중국서 H10N8형 조류인플루엔자(A) 사망자 세계 최초로 발생·장시성의 73세 여성 이달 초 사망
- 12.20 쿠바: 50여 년 만에 자동차 수입 제한 철폐, 러시아: 북극 연안서 첫 원유 생산
- 12.30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정치범 전원 사면 결정, 알살바도르 차파라스 티크 화산 37년 만에 폭발·주민 5천여 명 대피

2014년

- 1. 1 유럽연합(EU):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해 EU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이주 자유에 대한 제한 철폐
- 1.11 아리엘 샤론 전 이스라엘 총리 85세로 타계
- 1.13 이란과 주요 6개국(P5+): 제네바 이행안 합의
- 1.21 태국 정부: ‘셋다운’ 집회 지속에 방콕 등지에 비상사태 선포
- 1.23 남수단 정부-반군 휴전협정 체결
- 1.28 일본 정부: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
- 1.30 중국 레노바: 구글의 스마트폰 사업 부문 모토롤라를 29억천만 달러에 인수·세계 스마트폰 3위 업체로 부상
- 2. 1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시나봉 화산 폭발·최소 15명 사망
- 2. 3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 취임·첫 여성 의장
- 2. 4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신임 최고경영자(CEO) 취임
- 2. 7 미국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안’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 시 7월부터 발효
- 2. 8 제22회 동계올림픽대회 러시아 소치의 피시트 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개막
- 2.11 중국·대만 65년 만에 첫 장관급 회담 개최·상시적 소통기구 설치 합의
- 2.13 미국 네바다 주 이반파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 가동·겨울만 30만 개
- 2.14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 있는 클루드 화산(1천731m) 분출·4개 공항 폐쇄·주민 20여만 명 대피
- 2.16 이집트 시나이반도 버스 폭탄테러로 한국인 3명 사망·14명 부상
- 2.1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 국제형사재판소(CC) 회부 권고
- 2.20 우크라이나서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최대 100명 이상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사태 발생·21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탄핵 및 티모셴코 전 총리 전격 석방
- 2.28 세계 첫 비트코인 오프라인 거래소 홍콩에 개설·비트코인의 최대 거래소인 일본의 ‘마운트곡스’는 법정관리 신청
- 3. 1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무장병력 6천 명 투입

- 3. 4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우크라이나 도착·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에 10억 달러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
- 3. 6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자치공화국 의회 러시아와 합병 결의
- 3. 8 승객·승무원 239명 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
- 3.15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1%인 위안화 환율 하루 변동 폭을 2%로 확대
- 3.18 러시아-크림자치공화국 합병조약 체결
- 3.27 유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병합에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 필리핀 정부-이슬람 반군 평화협정 체결로 40여 년 내전에 종지부
- 3.31 에볼라 바이러스 라이베리아 확산
- 4. 1 일본: 47년 만에 무기수출금지 정책 폐지, 칠레 북부 해안 인근 태평양에서 규모 8.2의 강진 발생해 최소 5명 사망
- 4.11 팔레스타인 ‘제네바협약’ 가입·1989년 신청 이후 25년 만에
- 4.16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 나이지리아 치복시에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며 여학생 276명 납치
- 4.18 미국: 무인 우주화물선 ‘드래건’을 국제우주정거장(SS)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
- 4.28 미국·필리핀: 군사기지 공유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협력협정 체결
- 5. 2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바다크산주에서 대규모 산사태 발생·300여 명 사망·2천500여 명 실종
- 5. 5 미국·필리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실시·총 5천500명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
- 5. 7 친나왓 인략: 태국 총리직 상실·태국 헌법재판소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경질은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임 결정
- 5.12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등 2개주 독립 선언하고 러시아에 병합 요청
- 5.13 터키 마니사주 소마에서 탄광 폭발사고 발생·301명 사망·486명 구조
- 5.22 태국 군부 쿠데타·과도정부 해산
- 5.25 유럽의회 선거 극우정당 득세
- 5.26 나렌드라 모디 신임 인도 총리 취임
- 5.27 에볼라 바이러스 시에라리온 확산 확인·감염자 5명 사망
- 6. 2 스페인 카를로스 국왕(76) 퇴위·

아들 펠리페(46) 왕세자 승계

6.3 러시아: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 중국 서부 관동 고속철 완공... 총연장 1천776km로 신장위구르와 내륙 연결

6.4 유럽연합(EU): 리투아니아 2015년 유로존 가입 승인

6.5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를 0.15%로 인하하는 등 유동성 완화 조치 발표...하루짜리 은행 초단기예금을 현행 0.0%에서 -0.10%로 내려 첫 마이너스 금리 적용

6.10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당시 ISIL) 이라크 모술 장악

6.13 2014 브라질월드컵 개막

6.18 미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 스마트폰 시장 진출...자사의 첫 스마트폰 '파이어폰' 공개

6.20 일본 정부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한·일 간 정치적 합의로 작성됐다"고 밝혀...검증결과 국회에 보고

6.22 미국: 대륙 간 탄도미사일(CBM) 공격을 외기권(外氣圈)에서 직접 요격해 차단하는 미사일 방어(MD) 실험에 성공...6년 만에 첫 성공,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차량 폭발로 이스라엘 10대 소년 사망...이스라엘군의 보복 포격으로 시리아 군인 최소 10명 사망

6.23 제1차 유엔 환경총회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막(~27)...170개국 정부 대표단 등 1천300여 명 참석

6.25 미 상무부: 40년 만에 원유 수출 허용...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 수출 승인, 중국 장관급 65년 만에 대만 방문...정즈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장관급) 타이베이 방문,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의 대형 쇼핑몰에서 폭탄 테러 발생...20여 명 사망

6.29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정치·종교권력 함께 가진 '칼리프 국가' 수립 선언

7.1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헌법 해석 각의 의결

7.8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전...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하마스: 예루살렘 등에 로켓포 공격

7.9 브라질 은행권의 지불시스템 '블레토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지난 2년 동안 37억5천만 달러를 빼내는 사이버 절도사건 발생...전 세계 사이버

범죄 사상 최대 규모

7.14 독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7.17 우크라이나 동부서 298명 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격추...7월 21일 우크라이나 반군: 탑승자 시신과 블랙박스를 피해국 조사단에 인계

7.22 인도네시아 대선서 야당 투쟁민주당(PDIP) 후보 조코 위도도(53) 당선...2004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첫 정권 교체

7.24 기상악화 속 말리 상공을 비행하던 알제리 여객기 추락...탑승자 118명 전원 사망

7.29 유럽연합(EU)·미국: 러시아 전방위 제재 동시 단행...러시아 국영은행의 유럽 금융시장 거래 제한·미국: VTB 등 3개 은행 거래 금지

8.1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高雄) 도심에서 연쇄 가스폭발 사고 발생...20명 사망·290여 명 부상·석유화학 물질 지하 공급라인 누출

8.3 중국 남서부 윈난성 자오통(昭通) 시 루톈(魯甸)현에서 규모 6.5의 지진 발생...500여 명 사망·실종

8.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라크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공습 승인

8.8 세계보건기구(WHO):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 PHEIC) 선포, 나이지리아 정부: 에볼라 발생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선포

8.10 미국 퍼거슨시에서 백인 경찰 흑인 10대 청년 사살에 격렬 시위...16일 퍼거슨시 비상사태 선포

8.11 미국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 로빈 윌리엄스(63) 캘리포니아주 자택에서 자살

8.13 중국: 총연장 1천344km에 달하는 양골라 횡단철도 완공

8.15 미국 전역이 난치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통칭 루게릭병) 환자 돕기를 위한 얼음물 뒤집어쓰기(ALS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열풍에 휩싸여

8.19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 참수 영상 공개

8.26 이스라엘-하마스: 장기 휴전 합의...7월 8일 시작돼 50일간 양측에서

2천2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교전 사태가 50일 만에 일단락

9.5 우크라이나 정부-동부지역 반군 휴전, 쿠데타 주역 프랴웃 찬 오차 신임 총리가 이끄는 태국 새 내각 출범

9.15 프랑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동참

9.18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 부결

9.19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뉴욕 증시에 상장...공모가 68달러·첫 거래가 92.70달러·시가총액 2천314억4천만 달러(241조6천억원)

9.21 프란치스코 교황 최빈국 알바니아 방문..."오랜 고통에 성원 보내고자 유럽 지역 첫 방문지로 선택"

9.22 미국: 시리아 내의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근거지 공습 시작해 IS 요원 등 370명 사상

9.24 인도: 아시아 최초로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미국·유럽연합(EU)·러시아에 이 세계 네 번째

9.27 일본 나가노현 온타케산(3천67m) 7년 만에 폭발...사망자 56명·실종자 7명

9.28 홍콩 도심 점검시위 개시...중국이 마련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대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수십 명 부상, 데니스 키메토(30·케냐): BMW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2분 57초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사상 첫 2시간 2분대에 진입

9.30 중국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와 유로화 직거래 시작

10.2 미국: 중국 견제 위해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 해제

10.10 노벨평화상에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17) 양과 인도의 아동 노동 근절 및 교육권 보장 운동가 카일라시 시티아티(60) 공동 선정

10.29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양적완화(QE) 종료 선언

10.30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연합(EU) 가스 협상 타결...3월까지 러시아의 가스공급 재개로 우크라·주변국 겨울철 에너지 위기 넘겨

11.4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로 상·하원 장악...8년 만에 '여소아대'

11.6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에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 임명

11.8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시 배·매튜

토드 밀러 등 미국인 2명 전격 석방돼

11.11 세계 최대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1년에 한 번 열리는 '독신자의 날'(싱글즈데이) 빈값 특가 이벤트서 하루 온라인 매출 10조원 기록

11.12 유럽 탐사선 '로제타호' 10년 8개월 만에 세계 처음으로 혜성 착륙 성공.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고보경) 역대 최연소 2014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신인상 수상자로 확정

11.15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막(~16)·회원국 간 실행계획 담은 '브리즈번 액션 플랜' 채택

11.17 상하이와 홍콩 증시 연계 '후강통' 개시·외국인 투자자들 홍콩 통해 중국 본토 주식 매매

11.18 유엔: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

11.24 미국 퍼거슨시 흑인 청년 사살 백인 경찰 불기소에 미국 전역 시위

12. 1 세계보건기구(WHO): 에볼라 감염 사망자 수가 6천2명이라고 발표,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해킹당해 온라인 상에 유출·소니 측이 북한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수사 착수

12. 6 중국 공산당 저우용강(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

12.11 홍콩 시위 75일 만에 종료·홍콩 정부: 시위대의 본거지인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 지역의 시위캠프 대부분을 철거하고 시위대 20여 명 체포

12.16 파키스탄 탈레반(TTP): 페샤와르에 있는 군 부설 사립학교 공격·학생 등 14명 사망·반군 무장대원 7명 모두 사살·자폭

12.17 미국과 쿠바: 53년 만에 국교정상화 선언·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간첩 혐의로 투옥 중인 미국 정보요원 2명과 쿠바인 3명 맞교환

12.18 '북한인권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

12.24 일본 제3차 아베 내각 출범·아베 신조 제97대 총리로 선출

12.28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프가니스탄 전쟁 13년 만에 공식 종료, 162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를 떠나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소속 여객기 실종

2015년

1. 7 '이슬람 풍자만평'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총격 테러로 17명 사망

1. 9 파리 유대교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으로 4명 사망·4명 중상. 인질범 아메디 쿨리발리도 사살

1.17 한국인 김모(18)군: 이슬람국가(IS) 가담 보도·국정원은 2월 24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김군이 IS에 가담해 훈련 중이라고 밝혀

1.23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91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타계·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80세) 왕세제가 왕위 승계

1.26 그리스 총선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압승·긴축정책 반대하는 그리스 독립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그리스 부채탕감 불가 입장 표명

2. 1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참수 영상 공개

2. 3 IS: 요르단 공군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 화형 영상 공개

2.15 IS: 이집트인 콥트교도 인질 21명 참수 영상 공개

2.27 푸틴 '정적' 보리스 넴초프: 크렘린궁 인근서 총격 피살

3. 6 IS: 이라크 북부의 고대 아시리아 도시 님루드 유적 파괴

3. 7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IS에 총성 맹세

3.20 예멘 사나 모스크에서 IS 소행 연쇄 폭탄테러로 137명 사망

3.23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타계, 독일 여객기 저먼윙스: 프랑스 알프스에 추락해 탑승객 148명 전원 사망

4.13 노벨문학상 수상자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 사망,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미국 대선 출마선언

4.25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서 규모 7.8 강진 발생해 8천964명 사망

5. 7 영국 총선서 보수당 재집권·보수당 재집권 반대시위서 폭력사태 발생으로 경찰관 4명 부상

5.17 IS: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주도 라마디 점령 선언

5.20 IS: 시리아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 완전 장악

5.2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시: 교

통사고로 사망

5.27 미국 국방부: 오산 주한미군 공군 기지 등에 살아있는 탄저균 발송 사실 발표, 국제축구연맹(FIFA) 고위직 6명: 스위스 취리히서 전격 체포

5.28 미국 법무부: FIFA 전·현직 고위 관계자 14명 기소

6. 1 중국 양쯔강 중류 후베이성 젠리현 부근서 454명 탄 여객선 침몰

6.11 저우용강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측근인 리충시 쓰촨성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징역12년에 백만 위안 몰수 및 뇌물에 추징 조치

6.18 프란치스코 교황: 기후변화 대처 위한 환경 회칙 발표·미국 대선후보 등 교황의 정치문제 개입에 반대 피력

6.26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IS의 쿠웨이트·튀니지·프랑스 동시다발 테러로 최소 66명 사망

7. 1 그리스,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불이행 확정

7.13 유로존 정상회의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합의·'그렉시트' 우려 해소

7.14 이란 핵협상 타결, 미국 우주탐사선 뉴호라이즌스호: 명왕성 최근접점 통과

7.20 미국·쿠바: 54년 만에 상대국 대사관 재개설·8월 14일(현지시간) 쿠바 주재 미국대사관 재개설 행사 갖고 국교 정상화 완결

8.12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로 최소 173명 사망 또는 실종

8.1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 발표

8.17 태국 방콕 에라완 사원 인근 폭탄 테러로 20명 사망

8.24 중국 증시 '블랙먼데이' 8.49% 폭락·8년 만에 최대 낙폭

9. 2 세살배기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이일란 쿠르디: 터키 해변서 숨진 채 발견돼

9. 3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및 열병식 개최

9.18 미국 환경보호청(EPA):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적발

9.19 일본 참의원 집단자위권법안 가결·시민단체들은 지역 내 평화를 위협한다며 법안 폐기 촉구

9.24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성지순례 중 압사 사고로 최소 2천10명 사망

10. 5 미국 등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 10.10 터키 앙카라 기차역 앞 IS 자폭테러로 102명 사망
- 10.19 캐나다 총선서 자유당 압승으로 10년 만에 정권교체
- 10.29 중국: 35년 만에 '1자녀 정책'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 2자녀 허용...인구 발전전략 개선 및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비 밝혀
- 10.31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서 IS 소행 폭탄테러로 러시아 여객기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 사망
- 11.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마잉주 대만 총통: 분단 66년 만에 양안 정상회담...시진핑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마잉주 '양안 핫라인 설치' 제안
- 11.8 미얀마 총선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압승
- 11.13 프랑스 파리에 IS 소행 동시다발 테러로 총 130명 사망
- 11.24 터키 공군 F-16s 전투기 격추...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전쟁 개시를 위한 명분이지만 러시아가 자제" 주장
- 11.30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프랑스 파리에 개막, 중국 위안화 국제 기축통화인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에 편입
- 12.2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발 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서 총기난사로 14명 사망
- 12.3 영국 하원: 시리아 IS 공습안 가결...영국 공군 시리아 공습 시작, 미국 법무부: FIFA 전·현직 관리 16명 기소

2016년

- 1.3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 선언...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깊은 우려 표명
- 1.4 바레인인구 수단도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
- 1.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 발표, 터키 서부 해안에서 그리스 섬으로 가려던 난민선 2척 전복,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 제롬 발케 전 사무총장에 자격정지 9년 권고
- 1.7 리비아 서부 지역에 있는 경찰 훈련센터에 자살 폭탄 피격으로 대규모 사상자
- 1.8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 교

- 도소 탈옥 6개월 만에 체포
- 1.11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이라크 바그다드 쇼핑몰 등에서 잇단 테러, 할리우드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생애 첫 오스카상(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수상
- 1.12 터키 이스탄불의 술탄아흐메트 광장에서 폭발테러로 최소 10명 사망·15명 부상
- 1.14 미국: 24년 만에 필리핀에 다시 주둔
- 1.15 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의 한 고급 호텔과 카페에서 유혈인질극 발생해 프랑스인 등 29명 사망...알카에다 지부 범행 자처
- 1.16 대만 '親美' 성향 차이잉원(蔡英文·59·여) 민진당 주석: 대선 선거 압승으로 첫 여성총통 탄생,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공식 출범
- 1.19 미 해군: 핵 항모전단 동아시아 추가 배치
- 1.20 미국 정부: IS 격퇴 위해 이라크에 19억5천만 달러(약 2조3천667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대통령특사: 세계경제포럼(WEF) 제46차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 참석
- 1.24 포르투갈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무소속 마르셀루 헤벨루 지 소자(67) 후보 압승, 미국 동부지역 최고 101.6cm 폭설로 20명 사망
- 1.25 대만 순시선: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에 몰대포 공격
- 1.26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 일본-필리핀 간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아키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필리핀 첫 방문
- 1.27 초거대 태양계 발견
- 1.28 아프리카 수단: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수단과 국경 개방, 마잉주 대만 총통: 난사군도 타이핑다오를 방문해 영토 주권 수호 선언, 예멘 대통령궁 겨냥 폭탄차량 공격으로 8명 사망
- 1.30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주의 주도 마이두구리시 외곽에 있는 여러 마을을 습격해 86명 학살
- 1.31 중국 경찰기 2대: 사전 통보 없이 한·일 양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시아파 성지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 발생으로 최소 60명 사망, 나이지리아 동북부서 보코

- 하람 추정 연쇄 공격으로 69명 사망, 스위스서 생후 8일 삼쌍둥이 분리수술 성공
- 2.1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21년 만에 프랑스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 2.2 세계보건기구(WHO):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IC) 선포
- 2.4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
- 2.6 대만 남부에서 규모 6.4의 강진 발생
- 2.8 춘제(春節·음력 설) 기간 홍콩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 발생해 100여 명 부상과 54명 체포
- 2.11 17개국 참여 '국제적 시리아 지원그룹'(ISSG): 독일 뮌헨에서 일주일 안에 시리아 내 모든 전쟁 행위 중단을 추진키로 합의...인도적 지원도 즉각 개시
- 2.12 미국 의회: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H.R. 757) 가결...18일 공식 발효, 교황·러시아 정교회 수장 1천년 만에 쿠바 아바나에서 첫 만남
- 2.15 중국의 위안화 가치 0.3% 절상
- 2.16 미국-쿠바: 50년 만에 정기항공 재개 합의
- 2.17 터키 앙카라 국회의사당 인근 대로변에서 퇴근 시간대 차량 폭탄테러
- 2.20 미국 미시간 주(州) 캘러머주에서 40대 백인남성의 '묻지마 총기난사'로 7명 숨져
- 2.23 볼리비아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
- 2.24 러시아: 15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원조
- 2.26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임기 최대 12년으로 제한하고 집행위원회 폐지하는 개혁안 통과
- 2.27 잔니 인판티노(46·스위스) 유럽 축구연맹(UEFA) 사무총장: 국제축구연맹(FFA) 새 회장으로 선출
- 2.28 아르헨티나: 헤지펀드와 채무협상 타결돼 15년 만에 금융시장 복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연쇄 자살폭탄 공격이 일어나 87명 사망
- 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제2270호 만장일치로 채택, 중국: 유엔에 앞서 독자 대북 제재 발표, 중국 창어3호: 달 탐사 세계 최장기록 세워
- 3.3 미국: 독자적인 대북 제재 착수,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

- 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
- 3.4 유럽연합(EU):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단행
- 3.5 필리핀: 수빅만 울롱가포항에 정박 중인 북한 화물선 진형호 몰수... 유엔 안보리 결의 후 첫 제재사례
- 3.7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 지도자·공직자의 위안부 폄하 발언 중단 촉구
- 3.10 유럽중앙은행(ECB): 사상 첫 제로 기준금리 적용
- 3.11 유럽연합(EU)-쿠바 간 관계 정상화 협정 체결
- 3.13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 발생
- 3.14 푸틴 러시아 대통령: 15일부터 시리아 내 러시아군 주요 병력 철수 명령, 러시아와 유럽 우주당국의 공동 화성탐사선 발사 성공
- 3.15 미안마 새 대통령으로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인 틸 짜(70) 당선
- 3.1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세컨더리 보이콧' 등 포함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 3.18 유럽연합(EU)·터키: 난민 송환 문제 합의, 일본: 2017년부터 사용할 교과 지학년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 실어
- 3.19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 공항에서 두바이 항공사 '플라이두바이' 소속 여객기 추락해 탑승객 62명 전원 사망
- 3.2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 88년 만이자 역대 2번째로 쿠바 방문, 미국·필리핀: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필리핀 공군기지 4곳과 육군 부대 1곳을 미군에 제공기로 합의
- 3.2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정상회담
- 3.24 32년 장기 집권 드니 사수 응게소(72) 콩고 대통령 3선 성공, 폴크스바겐: 풋페달(footpedal) 결함을 이유로 전 세계에서 약 80만 대 차량 리콜
- 3.25 시리아 정부군: IS 장악 고대 유적지 팔미라를 탈환
- 3.26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채무 대폭 탕감
- 3.27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3야당인 유신당이 통합한 '민진당' 공식 출범
- 3.29 일본: 집단자위권법 발효
- 3.30 미얀마: 54년 만에 첫 문민정부 출범...아웅산 수지 여사는 외무장관으로 입각
- 3.31 유럽연합(EU):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무역 및 금융 제재 단행
- 4.2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군대: 분쟁 지역에서 20년 만에 최대 충돌,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지뢰 제거 활동에 참여하던 아프간인 작업자 15명 피랍
- 4.3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15년 만에 필리핀 입항
- 4.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J): 1천 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 폭로, 미국 법원: BP 멕시코만 기름유출사건 24조원 배상안 최종 승인
- 4.5 중국 상무부: 대북 수출입금지 품목 25종 공식 발표
- 4.6 아프리카 2위 산유국인 앙골라: 국제통화기금(IMF)에 15억 달러(약 1조 7천억원)의 구제금융 신청
- 4.7 베트남 신임 총리에 응우옌 쑤언 폭(61) 부총리 선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마을 공격 후 민간인 300명 납치
- 4.10 인도 남부 콜람 힌두사원에서 불꽃놀이 폭죽 폭발 화재로 102명 사망, 미얀마 사법당국: 민주화 운동가 199명 무혐의 처리
- 4.11 이집트: 홍해상 요충지에 있는 섬 2개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지원 대가로 사우디에 양도, 존 케리 미국 무장관: 현직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廣島) 피폭 상징 장소인 평화기념공원 방문
- 4.14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에 최대진도 7의 지진 발생
- 4.16 에콰도르에서 규모 7.8 강진 발생해·국가비상사태 선포,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 침몰해 500여 명 사망
- 4.1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
- 4.19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25년 만에 채무국으로 전락,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중심가에서 정보기관을 노린 탈레반 반군의 폭탄 테러와 총격전으로 최소 64명 사망
- 4.20 라오스 새 대통령에 분당 보라치트(78) 라오인민혁명당(LPRP) 서기장 선출,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4개 차종 62만여 대의 연비를 조작한 사실 시인, 폴크스바겐: 미국 소비자에 1인당 5천 달러(566만2천500원) 배상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
- 4.21 미국 '팝의 전설' 프린스(57): 미네소타 주(州) 미니애폴리스 외곽 카버 카운티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4.22 일본: 첫 스텔스기 시험비행 성공
- 4.23 베트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최성일 단창상업은행 베트남 부대표 추방,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 2': 하와이-샌프란시스코 태평양 횡단 성공
- 4.24 에콰도르 정부: 강진 피해로 8일간 국가에도기간 선포, 영국인 우주인 팀 피크(43): 지상 400km 상공 우주선에서 마라톤 완주
- 4.26 미국 천연가스 유럽에 첫 수출
- 4.27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난민들을 바로 돌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반(反) 난민 정책 채택, 벨기에: 파리테러 주범 살라 압데슬람(26)의 신병을 프랑스에 인도
- 4.28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경봉쇄법 채택한 오스트리아 의회에서 연설...유럽 반난민정책 질타
- 4.29 리비아 해안서 난민선 침몰로 84명 실종·26명 구조
- 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리랑카에 15억 달러(1조7천억원) 차관 제공 결정, 시리아 새 휴전 돌입...북부 격전지 알레포는 제외, 이라크 의사당 강경 시아파 시위대에 점거당해
- 5.2 체코 정부: 정식 국호인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과 함께 '체키아'(Czechia)라는 호칭을 국호로 병용하는 방안 공식 승인, 비트코인 개발자: 일명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가 호주 기업가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로 밝혀져
- 5.3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2013년 7월 도시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와 관련해 345만 달러(39억7천만원) 규모의 합의안 수용, 레스터시티: 창단 132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 (EPL) 첫 우승
- 5.5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의 무슬림인 사디크 칸(45): 영국 런던시장에 당선
- 5.7 캐나다 앨버타 주 포트맥머레이에서 발생한 산불이 1주일째 계속되면서 피해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해, 시리아에서 억류된 스페인 기자 3명이 9개월 만에 풀려나
- 5.9 그리스 의회: 3차 구제금융 위한 연금 삭감 및 증세안 통과
- 5.10 필리핀 대통령에 '트럼프식 막말' 로드리고 두테르테(71) 다바오시 시장 당선
- 5.12 미국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루마니아에서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 · 가동, 브라질 상원의 탄핵심판 개시 결정으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테메르 룰리아 부통령이 권한대행
- 5.13 미 공군의 첫 여성 4성 장군 로리 로빈슨 대장: 북미우주항공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으로 취임
- 5.14 극심한 경제난과 지도력 상실로 탄핵위기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 5.17 이라크 바그다드와 근교 4곳에서 연쇄 폭탄테러로 최소 69명 사망
- 5.18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에 지명
- 5.19 66명 탄 파리발 카이로행 이집트 여객기가 지중해서 추락
- 5.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노이에서 쩌다이깡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조치 해제 등, 국제축구연맹(FFA): 마르쿠스 카터너 사무총장 대행을 금전 관련 비리 혐의로 전격 해임
- 5.24 일본: '험한시위 억제법' 제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제재 이후 2년여 만에 자본시장 복구, 벨기에 노조원 6만여 명: 브뤼셀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과 노동 개혁 반대하며 격렬 시위
- 5.25 모나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회원국 첫 사례
- 5.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 박쥐 10만 마리 습격에 호주 휴양도시 베이트만스 베이 마비
- 5.27 유럽연합(EU): 대북 추가 제재 단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폭투하 71년 만에 일본 히로시마 방문...평화공원 위령비에 헌화 및 연설, 인도네시아 해군: 영해 침범 중국 어선에 발포 및 나포, 인도 폭염에 1천200명 사망
- 5.29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 6.1 미국: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김정은 정권 전방위 돈줄 차단, 일본 미쓰비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에게 사실상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
- 6.3 미국 북상계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 32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은 끝에 별세...향년 74세
- 6.5 노바크 조코비치(1위 · 세르비아): 프랑스오픈 우승으로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한 번씩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 6.6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폴란드에서 나토 회원국 등 24개국 장병 3만 1천 명이 참가한 최대 군사훈련 '아나콘다' 실시
- 6.7 폴란드: 북한 노동자 비자발급 중단,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경선 승리와 함께 '민주당 대선후보' 공식 선언
- 6.8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심가에서 무차별 총기난사 테러로 4명 사망, 일본 국책연구소 연구자들이 발견한 113번 원소 이름 '니호니움'으로 명명
- 6.9 중국 · 러시아 군함: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첫 진입, 페루 대통령에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77) 당선
- 6.12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한 동성애자 나이트클럽에서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으로 49명 사망...'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 현장에서 사살
- 6.13 미국: 이라크서 사상 첫 아파치 공격헬기 실전투입
- 6.1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발트 3국과 폴란드에 4개 대대 규모의 지상군 배치 결정, 일본 야스쿠니 위험물 설치 혐의 한국인, 재판서 혐의 인정
- 6.15 미국 · 일본 · 인도 3국: 일본 규슈 남부에서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걸친 해역에서 합동 해상훈련 실시(~17), 일본: 중국 해선이 12년 만에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밝혀
- 6.16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 의결, '브렉시트 반대' 영국의 야당 노동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 조 콕스 피살,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인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
- 6.17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점령지 '팔루자': 2년5개월 만에 이라크 정부군이 탈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 정부: 8월 5일 하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재정 비상사태' 선포
- 6.2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단 금지 약물 복용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 육상선수들이 추가 도핑테스트 통과하면 리우올림픽 참가 허용,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 장-피에르 벤바(53)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공공) 부통령에 18년형 선고, 그리스: 유로존 구제금융 기구인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로부터 구제금융 75억 유로(약 9조8천억원) 수령
- 6.22 유럽연합(EU): 러시아 경제제재 6개월 연장 합의
- 6.23 영국: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실시...24일 국민투표 결과 탈퇴 51.9% 대 잔류 48.1%로 43년 만에 EU와 결별, 콜롬비아 정부와 좌파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쿠바 아바나에서 정전 합의, 중국 장쑤(江蘇)성 연청(鹽城)에서 폭우와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로 78명 사망
- 6.24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에 책임을 지고 10월 사임 발표
- 6.26 스페인 총선거에서 중도 우파 집권 국민당(PP) 승리, 이라크 정부군: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팔루자를 완전히 탈환했다고 선언, 파나마 운하 102년 만에 확장 개통
- 6.27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미국에서 총 147억 달러(약 17조4천억원) 배상합의, '제3의 물결' 저자이며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 별세...향년 87세
- 6.28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44명 사망
- 6.30 로드리고 두테르테(71): 필리핀 대통령으로 취임... "범죄와 가차 없는 전

- 쟁" 선언
- 7.2 시리아 정부군: 반군지역 마을 보복 폭격해 민간인 43명 사망
- 7.3 이라크 바그다드의 카라다 상업 지구에서 자살폭탄 테러 발생해 250명 사망, 중국 남부지역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확산으로 186명 사망, 영국 런던 도심서 4만 명 '블랙시트 반대' 거리 행진
- 7.4 미국 항공우주국(NASA) 탐사선 '주노'(Juno)의 목성 주변 궤도 진입 성공
- 7.5 미국 연방수사국(FBI):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불기소 권고
- 7.6 미국 정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 7.8 중국: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주중 한국·미국 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력 항의, 남수단 대통령과 부통령 경호대: 대통령궁 주변서 충돌해 최소 150명 사망...11일 휴전 지시
- 7.11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정권 압승
- 7.12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인공섬 불인정 판결
- 7.13 미국: 원자재 수출시 부당한 관세를 매긴다는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제76대 영국 총리에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60) 취임
- 7.14 유럽연합(EU): 북한을 돈세탁·테러자금지원 위험국가로 지정,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트럭 한 대가 프랑스 혁명기념일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77명 사망
- 7.15 터키 군부: 쿠데타 시도했으나 6시간 만에 진압돼...265명 사망하고 2천 839명 체포
- 7.19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 중국 베이징서 하루 만에 33억 물품탄...18년 만의 대홍수로 도시마비에 만리장성 훼손
- 7.20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쿠데타 배후 세력 척결을 위해 3개월 간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 7.22 일본에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서비스 시작
- 7.26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열린 민주당 전 당대회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후보로 선출, 태양광비행기 솔라임펄스2: 세계 최초로 연료 없이 505일간 4만2천km 지구일주 성공
- 7.27 프란치스코 교황: 폴란드에서 열린 가톨릭청년대회에 참석...동유럽 국가 첫 방문
- 7.28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77) 페루 대통령 취임
- 7.31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64) 전 방위상 당선...첫 여성 도쿄도지사
- 8.1 루마니아의 마지막 왕비인 앤(92) 왕비: 스위스 모르주의 한 병원에서 별세
- 8.2 일본 정부: 300조원대 경기부양책 확정
- 8.4 손발 없는 영국 등반가가 4천478m 스위스 마테호른 등정
- 8.6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개막
- 8.8 아키히토(明仁) 일왕: 생전퇴위 의향을 반영한 메시지 발표,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 퀘타의 한 정부 운영 병원에서 자폭테러로 최소 70명 사망
- 8.13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경찰총격에 1명 사망...민간인 상대 총격 사망으로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 조짐을 보여 비상사태 선포 및 주 방위군 배치
- 8.22 국제인권단체들: 아르헨티나서 북한 인권실태 고발...북한반인도범죄철페연대(CNK) 주최 행사서 KAL기 사건 유족 증언
- 8.23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등 중미 3국: 범죄조직 소탕 통합군 창설 합의
- 8.24 일본: 위안부 재단 10억 엔 출연 각의 통과,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52년간 지속된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기로 합의...9월 26일 공식 체결, 지구 닳은 최단거리 외계행성 '프록시마 b' 발견
- 8.25 미얀마 중부 마궤 주(州) 차우크에서 규모 6.8 지진 발생해 고대 불교유적들 붕괴
- 8.29 미국 하와이에서 1년 간 '화성 생존 실험' 마친 과학자 6명 밖으로 귀환
- 8.30 유럽연합(EU):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143억 달러·한화 16조2천억원)의 불법 세금 감면을 해줬다며 이를 추징할 것을 결정
- 8.31 이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지문역 겸 외무장관: 행정수도 네피도로 소수민족 반군단체와 각 정당 대표 등을 초청해 미얀마 평화회의 '21세기 팡룽' 개최
- 9.2 알리 봉고 현 가봉 대통령의 재선 승리 발표 이후 유혈사태 지속, 우즈베키스탄을 25년 이상 철권 통치해온 이슬람 카리모프(78세) 대통령 별세
- 9.4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 선종 19년 만에 가톨릭 성인의 반열에 올라
- 9.6 프랑스 AFP통신 평양지구 개설
- 9.8 중국·러시아 포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소속 18개국 정상들: 북한의 핵포기 촉구 '비확산 성명' 첫 채택
- 9.15 일본 제야당 민진당 대표에 렌호(蓮舫·48) 대표대행 선출...첫 여성 대표
- 9.19 2016 리우패럴림픽 폐막...종합순위 중국 1위·영국 2위·우크라이나 3위, 유엔 첫 난민 정상회의: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려...'교육·직업개선' 공동대응 선언
- 9.21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여한 40여 개국 대표들: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채택, 이집트 인근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해 최소 50명 사망
- 9.22 아프가니스탄 정부: 탈레반 다음으로 큰 반군조직 '헤즈브-에-이슬라미 아프가니스탄'(HIA)과 평화협정 초안에 서명
- 9.2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9.25 스위스 연금 10% 증액 법안 국민투표서 부결
- 9.27 엄마·아빠·난자제공자 등 세 명의 유전자를 받은 아이가 세계 최초로 태어나
- 9.28 미 상하원: '9·11 소송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기각...오바마 정권 첫 거부권 무력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초등학생 2명과 교사 등 3명 부상
- 10.2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52년 내전종식 먹구름
- 10.3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리비아 연안 지중해에서 난민선에 타고 있던 5

- 천600여 명 구조
- 10.7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선정
- 10.9 허리케인 '매슈'로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십억 달러의 재산피해 발생
- 10.13 안토니오 구테레스(67) 전 포르투갈 총리: 새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포크록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 선정,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서거...향년 88세,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에서 1만4천 년 전의 동굴 벽화 발견
- 10.15 이라크 바그다드의 시아파 종교모임 장소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35명 사망, 힌두교 성지인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 바라나시에서 종교행사 도중 압사사고 발생해 최소 24명 사망
- 10.16 러시아와 유럽 우주당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성 생명체 탐사 임무를 수행할 '엑소마스'(ExoMars)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무사히 도착...19일 발사 후 7개월여 만에 화성 착륙
- 10.17 중국: 7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 발사 성공
- 10.18 러시아·중국: 연합 미사일방어 훈련 정기적으로 실시 합의, 일본 국회의원 85명: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
- 10.21 카메룬서 열차사고 발생해 70명 사망...‘국가 애도의 날’ 선포
- 10.25 파키스탄 경찰대학 총격 테러로 61명 사망, 미국 연방법원: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 달러(약 16조7천억원) 규모의 합의안 승인
- 10.26 유엔: 쿠바 경제봉쇄해제 결의안 가결...미국은 기권
- 10.27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확정,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폐막...사실상 시진핑 1인 지도체제 선언
- 10.28 세계 24개국과 유럽연합(EU): 남극 해에 세계 최대 해양보호구역 합의...한반도의 7배
- 10.29 스페인 의회: 국민당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후보 신임안 가결...10개월간 이어진 무정부 상태가 끝나고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 소수정부 출범
- 10.30 유럽연합(EU)·캐나다: '포괄적경제자유협정'(CETA) 공식 체결
- 10.31 미셸 아운(81) 레바논 새 대통령 취임...29개월 만에 선출
- 11.1 미국·일본: 태평양 광 부근에서 첫 합동상륙훈련(∼11)...개정안보법 발효 이후 처음
- 11.3 리비아 연안 지중해에서 고무로 만든 난민선 2척 파도에 뒤집혀 최소 239명 사망
- 11.4 미국: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는 세부규칙 확정 공식 발표
- 11.6 미국 연방수사국(FBI):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재수사'를 무혐의로 종결
- 11.7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대통령 4선 성공...세계 최초 부부 정·부통령 탄생
- 11.8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 실시, '필리핀 복싱 영웅' 파퀴아오: 복귀전서 세계 챔피언 탈환
- 11.9 미국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
- 11.12 아프가니스탄 미군기지 바그람 공군기지 내에서 탈레반 자폭테러로 미군 4명 사망
- 11.16 일본 과학자들: 쥐의 간세포에 특수화합물 투여해 세포를 젊게 만드는 데 성공
- 11.20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 푸크라안에서 새벽 열차가 탈선해 107명 사망
- 11.22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 강진 발생
- 11.23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조종사 파업으로 900여 편 운항 취소
- 11.24 콜롬비아 정부-반군 새 평화협정에 서명...기존 협정 국민투표 부결 후 재협상을 거쳐 완성된 협정
- 11.25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타계...향년 90세
- 11.28 브라질 축구리그 사페코엔시 소속 팀 선수 등 81명을 태운 비행기가 콜롬비아에서 추락
- 11.29 태국 각의: 와치랄롱꼰 국왕 임명 승인
- 11.3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 석유수출국 기구(OPEC): 8년 만에 감산 합의
- 12.1 마하 와치랄롱꼰(64) 왕세자: 태국 국왕에 즉위, 아다마 바로우: 감비아 대선에서 22년 장기독재자 야흐야 자메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 12.2 미국 정부: 고려항공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에 대한 독자제재 단행
- 12.7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OHCHR): 한반도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첫 보고서를 내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헌법 개혁 국민투표의 완패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사퇴
- 12.10 미국 상원: 재미동포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의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안 가결
- 12.11 이탈리아 새 총리에 파올로 젠틸로니(62) 외교장관 지명
- 12.12 유럽연합(EU)·쿠바: 브뤼셀에서 '정치적 대화와 협력에 관한 협정(PDCA)'에 공식 서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고별연설'
- 12.13 마하 와치랄롱꼰(64) 태국 국왕: 15만 명 사면
- 12.15 시리아 반군: 알레포서 철수...휴전합의 복원
- 12.18 시리아 정부와 반군: 알레포의 주민·반군 철수 협상 합의
- 12.19 유엔총회: 1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12.20 터키 이스탄불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해저로 연결하는 '유라시아터널'(터키어 '아브라시아터널') 개통
- 12.21 이케야: '어린이 서랍장 사망사고' 피해 미국가족에 총 5천만 달러(약 600억원) 지급 합의
- 12.23 미국: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인을 상대로 시행한 '국가안보출입국 등록제'(NSEERS) 폐지
- 12.25 시리아 위문행 러시아 군용기가 흑해에서 추락해 군 합장단 64명을 포함 탑승객 92명 전원 사망 추정
- 12.27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군 함정 위에 세워진 '애리조나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하고 추도
- 12.28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온 터키와 러시아: 시리아 휴전에 합의...29일 자 정부터 휴전
- 12.3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2월 31일(현지시간) 밤 12시(현지시간) 8대 유엔 사무총장에서 공식 퇴임